

2007년 제17호

후손의 메아리



고양문화원

2007년 제17호

학·생문예

고양문화원

속 간 사



내 가정의 행복과 평화를 그리고, 내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책임져야 할 학생 여러분!

‘될 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말은 장차 국가발전에서 필요로 하는 유능한 인물, 크게 국가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사람은 자라나는 어린시절부터 그 조짐이 보인다는 말이요, 한 나라와 한 가정의 영광과 번영, 그리고 비전(Vision)은 자라나는 학생들이 어떤 꿈과 의지로 어떻게 자라나느냐에 달렸다는 뜻의 말이라 생각합니다.

고양문화원은 16년전 고양 향토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의 정서와 사유를 보다 살찌고 풍요롭게 하는 단련의 기회와 장을 마련하겠다는 것과 잠재된 문학적 소질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뜻에서 ‘학생문예’란 책을 발간토록 계획하여 고양시의 지원을 받아 열일곱번 째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학생여러분! 문학이란 단순히 그 시대와 사회의 생활모습이나 감정만을 표현하는것이 아닌, 글쓰는 이의 생각을 담아내어 표현하는 것이기에 작품속에 교훈이 있고, 감동의 핵이 있고, 뜻의 응어리가 있어 한 사회계도와 세계사조(정신적 흐름의 방향)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다시 느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젊은 고양시가 한국의 문화를 이끌어가고 세계문화를 주도하는 주역이 될 사람들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그런 주역으로 자랄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많은 학생들이 ‘학생문예’ 지 발간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학생들 지도에 힘쓰시며, ‘학생문예’ 원고를 제출하여 주신 학교와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건강하심과 발전의 보람을 축원합니다.

2007. 12.

고양문화원장 오 수 길

심사를 마치며...

입상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응모 편수는 운문과 산문을 합쳐 400여편 심사를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응모편수가 많았고 다음 중등부 순으로 많았습니다. 고등부는 시험 기간인 관계로 응모 편수가 적었습니다. 산문보다 운문 편수가 많았고 작품수준은 작년과 비슷했습니다. 특히 중등부 응모작에 산문과 운문에 좋은 작품이 많이 나왔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감성의 싹이 움트는 나이에 좋은 글로 심성을 표현 하였습니다. 백일장 심사에 나타나는 현상은 산문보다 운문의 편수가 많아지는 추세가 보입니다. 이유는 긴 문장을 회피하고 짧다는 이유로 운문을 택하는 경향이 두드러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문의 특성은 함축에 있습니다. 운문 속에 노래가 있고, 운문 속에 그림이 있고 숨겨진 진실과 아름다운 꿈이 숨어서 흐르는 강물과 같은 것입니다. 운문의 비유법에는 직유법과 은유법이 있습니다. 한편의 운문 속에는 한편의 소설이 들어 있어야 하고, 한편의 산문이 들어 있을 때의 함축이 좋은 운문이 됩니다.

백일장의 심사기준은 수준에 맞는, 좀 어설피지만 자기만의 생각을 모방이 아닌 창의성에 높은 점수를 주게됩니다. 백일장의 작품은 논술이 아니고, 나열식도 아닙니다.

더구나 이미 발표된 기성 작품을 표절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만의 상상력을 설명이 아니고 구체성을 깃들인 작품을 요구합니다.

한편의 운문을 풀어 쓰면 한편의 산문이 되고, 한편의 산문을 함축하면 한편의 운문이 되는 훈련을 거쳐야 됩니다. 특히 산문에서 고쳐야 될 것은 주제를 표현함에 소재를 너무 많이 사용하다보니 문체가 설명으로 끝나고 독자가 읽지 않는, 진부한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소재의 제목 선택에 비중을 두어야겠습니다. 제목과 첫째 행과 연이 작품의 65%를 차지하고 작품을 끝까지 쉬지 않고 읽는 좋은 글이 됩니다.

행신중학교 운문으로 장원을 받은(박예리) 학생의 “비 오는 날”의 경우 중학생답게 기승전결의 형태인 4연으로 구성된 전통적인 형식을 구사하였으며 청각적이며 시각적인 의성법을 동원하여 재치 있게 은유(메타포)를 잘 구사하여 아름다운 여운 남기는 운문으로 장원에 올려놓았습니다.

백신고 장은지 학생의 산문 “어머니의 기도”에서, 첫 행과 두 번째 행을 제시어로 띄어 놓음으로 끝까지 지루함이 없이 차분히 주제를 구체화하여 가족의 아픔을 아름답게 쓴 좋은 작품으로 더욱 정진하길 바랍니다.

능곡 초, 김태환 학생의 “선생님의 눈” 1학년 어린이답게 어머니와 선생님을 솔직하게 그려낸 작품으로 선택 되었습니다.

백일장은 모방, 표절이 아니라 자기만의 창작입니다. 백일장 글짓기에서 실험적인 형태의 글에 도전하여 보십시오.

백일장은 아름다운 꿈을 꾸게 하는 샘물입니다.

2007. 12.

고양시문인협회회장 장종국

CONTENTS

초 등 부

장원	8	김태완	선생님의 눈	능곡초등학교 1학년 4반
차상	10	김여진	가을	백양초등학교 2학년 2반
차하	11	최정윤	내친구	호수초등학교 2학년 4반
가작	12	김제우	가을	백마초등학교 1학년 5반
	13	조예현	나만의 친구	행신초등학교 1학년 1반
	14	박세현	친구는 나의 반쪽	지도초등학교 5학년 3반
	16	서지연	선생님의 등지	문화초등학교 6학년 7반
	19	김진경	위험한 불	성라초등학교 4학년 3반
	20	정윤희	웃는 얼굴	행신초등학교 3학년 4반
	24	최승호	지우개	성라초등학교 4학년 3반
	25	오윤서	할머니	성라초등학교 4학년 3반
	26	허윤영	찬이와 권율장군	성저초등학교 4학년 3반
	30	권재훈	우리 선생님	한내초등학교 2학년 3반
장려	31	박수진	하늘이야기	가좌초등학교 5학년 1반
	32	김성민	친구	백신초등학교 3학년 2반
	34	김하은	시계바늘 우리 부모님	백양초등학교 5학년 1반
	35	조성은	말!말!말!	행남초등학교 6학년 2반
	37	이유민	가을, 그리고 할아버지	대곡초등학교 6학년 1반
	41	박수현	아버지	성석초등학교 6학년 금남화반
	42	손보경	깨달음을 아는 친구	문촌초등학교 3학년 4반
	44	이아영	봉사는 즐거워	행신초등학교 3학년 2반
	46	김혜인	이크발은 파키스탄에 사는친구다	안곡초등학교 4학년 1반
	49	김정태	아빠같은 형이 될래	화중초등학교 3학년 백합반

중 등 부

장원	52	박예리	비오는 날	행신중학교 1학년 6반
차상	53	나지원	행주열의 외침	지도중학교 2학년 11반
차하	56	최사라	시간의 여행	원당중학교 3학년 13반
가작	60	최준호	한눈이 갔다	지도중학교 1학년 12반
	61	유수원	비오던 날	행신중학교 1학년 7반
	62	배다은	가족은 집이 아니라 행복이다	저동중학교 1학년 2반
	65	정혜경	사랑합니다	가람중학교 1학년 7반
	69	정다현	질서, 우리의 미래	신능중학교 2학년 10반
	73	이예은	아빠 무엇을	능곡중학교 2학년 7반
	74	김준수	사랑하는 언니	가람중학교 1학년 13반
	77	한근권	바둑	원당중학교 1학년 4반
	78	박채린	전통놀이	가람중학교 1학년 10반
	80	김예나	우리선생님 = 핑크공주	현산중학교 1학년 2반
장려	83	강지애	아버지께	가람중학교 2학년 7반
	84	오서란	진정한 사랑의 손금	행신중학교 1학년 5반
	87	김도연	오늘도 그렇게	행신중학교 1학년 5반
	88	박수형	든든한 형	백신중학교 1학년 1반
	89	권희은	효의식을 되살리자	호곡중학교 3학년 11반
	96	차주안에	친구	원당중학교 1학년 3반
	107	국주호	가을을 담은 사람	신일중학교 1학년 3반
	108	김홍식	고양 향토유적	현산중학교 3학년 1반
	110	정현이	가족	화수중학교 2학년 14반
	112	홍종호	어버이	신능중학교 1학년 7반

CONTENTS

중 등 부

기타	114	최사라	정(情)	원당중학교	3학년	1반
	116	공민지	우리선생님	현산중학교	1학년	4반
	118	이다슬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벽제중학교	1학년	1반
	122	김수환	질서의 생활화	현산중학교	1학년	4반
	124	류정아	대답 없는 아버지	원당중학교	3학년	5반
	129	민동민	시계	능곡중학교		
	130	김채원	엄마 마음	가람중학교	1학년	7반
	131	이해니	마음을 웃게 하는 방법	행신중학교	2학년	4반
	135	이다솜	정선에서 찾은 가족 사랑	지도중학교	2학년	9반
	139	임현준	호박	능곡중학교		
	140	신해송	더도말고 덜도말고 외갓집만 같아라	무원중학교	2학년	6반
	142	정승원	뿌듯, 따듯, 아름답게 해 주는 것	신능중학교	2학년	5반
	145	최희진	자원봉사	현산중학교	2학년	11반
	150	김소진	부모님의 사랑	현산중학교	1학년	1반
	152	박윤경	자원봉사	현산중학교	1학년	6반

고 등 부

장원	156	장은지	어머니의 기도	백신고등학교	2학년	9반
차상	161	조경원	동생의 편지	능곡고등학교	1학년	11반
차하	165	백승현	자장면과 보리건빵	고양외국어고교	1학년	4반
가작	172	김나영	우리의 빛과 소금	화정고등학교	2학년	5반
	175	이하림	너와 나만이 알고 있는 조약돌	백신고등학교	2학년	8반
	187	양주혜	아픔을 뒤로한 웃음	화정고등학교	2학년	6반
	190	강해현	선생님의 수화	화정고등학교	2학년	6반
	194	장소영	찬란한 슬픔의 봄	화정고등학교	2학년	10반
	207	김희경	전통문화	일산정보산업고	2학년	8반
	211	김지영	생명사랑 밤길걷기 그 특별한 밤	일산대진고교	2학년	12반
	222	장영준	단풍	고양외국어고교	1학년	4반
	236	안진영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백신고등학교	1학년	17반

초 등 부

■ 선생님의 눈	김태완
■ 가을	김여진
■ 내친구	최정윤
■ 가을	김제우
■ 나만의 친구	조예현
■ 친구는 나의 반쪽	박세현
■ 선생님의 등치	서지연
■ 위험한 불	김진경
■ 웃는 얼굴	정윤희
■ 지우개	최승호
■ 할머니	오윤서
■ 찬이와 권율장군	허윤영
■ 우리 선생님	권재훈
■ 하늘이야기	박수진
■ 친구	김성민
■ 시계바늘 우리 부모님	김하은
■ 말!말!말!	조성은
■ 가을, 그리고 할아버지	이유민
■ 아버지	박수현
■ 깨달음을 아는 친구	손보경
■ 봉사는 즐거워	이아영
■ 이크발은 파키스탄에 사는친구다	김혜인
■ 아빠같은 형이 될래	김정태

선생님의 눈

능곡초등학교 1학년 4반

김 태 완

우리 선생님은 내가 쉬는 시간에 책을 읽으면 책을 잘 읽는다고 칭찬하신다. 어떨 때는 따로 부르셔서 칭찬해 주신다. 그러면 나는 책도 더 많이 읽고 선생님 말씀도 더 잘 듣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화장실에서 같은 반 친구를 한 친구가 먼저 화장실에 가두자고 했다. 그 옆에 있던 친구 2명도 몰려와 같이 화장실로 밀었다. 난 그 광경을 보고 “애들아! 그러지마.” 하고 말했다.

화장실에 갇힐 뻔한 친구는 울면서 바로 선생님께 일렀다.

선생님께선 화나신 얼굴로 그 장소에 있던 나를 포함한 친구 3명 모두 복도에 손을 들고 서 있는 벌을 세우셨다.

아주 한참 동안이나 말이다. 시간이 흘러 갈수록 팔이 너무 아팠다.

하지만 마음은 더 아팠다. 눈물이 나올려고 했다.

‘선생님께선 나를 책도 잘 읽고 말 잘 듣는 아이라고 여기실 텐데 아주 많이 실망하셨을거야’ 라는 걱정도 되고 ‘선생님께선 그 상황을 잘 모르시면서 나를 벌 세우시다니’ 라는 생각이 드니 정말 속상했다.

벌을 서고 난 다음 우리들은 그 친구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중에 나는 선생님께 가서 “나는 그런 짓 안했어요. 친구들한테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라고 말씀드렸다.

하지만 선생님께선 그래도 잘못된 건 맞다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 때 아주 조그만 소리로 얘기했고 행동으로 말리지는 않았다. 조금은 비겁했고 용감한 행동이 아니었던 것 같아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우리 선생님은 교실에도 화장실에도 눈이 달려 있어 우리들을 지켜보시는 것 같다. 엄마가 그러시는데 선생님들은 눈으로 우리들의 마음 속까지도 보신다고 하셨다.

언젠가 ‘고마워요, 선생님’ 이란 책을 읽은 적이 있다. 그 때 도 느낀 점인데 선생님들의 힘은 그야말로 상상초월이다.

가을

백양초등학교 2학년 2반

김 여 진

엄마와 함께 공원에 갔어요.

가을이 왔나 봐요.

바람이 달라졌어요.

만지면 차가워요.

단풍잎도 아픈가 봐요.

빨강계 열이 나요.

차가운 바람에 감기 걸렸나?

아기 단풍잎아, 얼른 나아라!

엄마 햇님이

아기 단풍잎을 포옥 안아줍니다.

우리 딸, 감기 들라!

우리 엄마도

나를 포옥 안아줍니다.

내친구

호수초등학교 2학년 4반

최 정 윤

내 친구는
 나의 마음 같아요.
 심심할 때는
 어떻게 알고
 따르릉 따르릉
 전화를 하니까요

내 친구는
 무서운 벌 같아요.
 싸울 때는
 벌의 침 같이
 따끔따끔
 따스한 줄을 소니까요.

내 친구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아요.
 준비물을 안 갖고 오면
 아낌없이 척척
 모두 빌려 주니까요.



가을

백마초등학교 1학년 5반

김 제 우

바람은 솔솔 낙엽은 소곤소곤
떨어지며 살며시 나무가 흔들립니다.

바람 시원하고 시원할 때
낙엽이 치치치 하면서 떨어집니다.

가을 냄새가 좋다.
가을엔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납니다.

나만의 친구

행신초등학교 1학년 1반

조 예 현

학교는 내 친구다.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 친구다.
 추울 때면
 엄마처럼 꼬옥 감싸주는
 친구다.

그림책은 내 친구다.
 나를 똑똑하게 해주는 친구다.
 책을 읽으면
 웃기도 하고 상상도 한다.

놀이터는 내 친구다.
 학교가 끝나면
 놀이터로 달려가 그네를 탄다.
 친구랑 싸워서 화난 마음이
 다 풀어져 버린다.

친구는 나의 반쪽

지도초등학교 5학년 3반

박 세 현

내가 1학년 때였다. 그 때는 거의 반장이나 다름없었던 나였다. 언제나 내가 앞장섰고 애들을 지휘하던 리더였다. 2학년 때도 3학년 때도 항상 그랬었고 앞으로도 그럴 줄 알았다.

그런데 4학년 때 그것이 깨졌다. 아이들이 다른 애를 따르기 시작하면서 나는 점점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5학년 때도 마찬가지였다. 애들이 패를 나누면서 나는 극소수의 애들과 어울려 놀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걸 극복 하였고 괜찮아졌다.

그리고 싫어하는 애들도 많아지게 되었다. 참견하는 애들, 성격이 얄미운 애들. 이러한 아이들은 왕따가 되기 십상이었고 다른 애들은 모두 등을 돌렸다.

나도 그 중 한명일까? 나를 싫어하는 걸까? 내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루에 수십 번도 생각해 보았다. 이제 나는 왕따일까? 앞으로도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생각들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불안감에 떨어 울고 말았다. 그럴 만도 하지. 난 여태까지 최고밖에 몰랐으니까. 난 친구를 잃으면 이렇게 힘들다는 슬픈 사실을 알아버렸다.

위의 경험으로 난 친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친구란 무엇일까? 친구란 힘들 때 곁에서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게 진짜 친구라고 생각한다. 또 친구를 아껴주고 칭찬하며 먼저 생각해 주는 게 진짜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친구가 얼마나 될까? 우리반 애들은 서로에게 욕을 하고 때리는데 이런 반들은 셀 수 없이도 많은데. 진정한 친구를 만나는 것은 돈 버는 것 보다 더 힘들 것이다.

친구는 정말 소중한 것이다. 친구를 잃는다는 것은 세상을 전부 다 잃는 것과 같고 친구를 사귀다는 것은 세상을 얻는 것과 같다. 난 내 경험을 통해서 친구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의 좋은 다짐을 얻게 되었다. 앞으로는 친구를 소중히 여기고 왕따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지. 오늘 부터 아름다운 실천을 행동에 옮기자! 아자!

선생님의 동지

문화초등학교 6학년 7반

서 지 연

스승의 은혜는 하늘같다는 노랫말 처럼 우리는 선생님의 끝없는 사랑 안에서 무럭무럭 성장 해가고 있다.

예전에 난 양파, 버섯등을 싫어하는 편식쟁이였고, 한편으론 누군가가 나에게 큰 소리로 말을 해도 금세 눈물을 짓는 마음여린 어린 아이였다.

그러던 어느 날 2학년 담임선생님은 나에게 살며시 다가오셨다.

“우리 지연이의 꿈은 뭐니? 나중에 크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부끄러움을 많이 탔던 나는 얼굴이 붉어져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고 나중에야 자그마한 목소리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도서관 사서선생님이 되고 싶어요”라고 말씀드렸다. 선생님은 나의 작은 몸을 꼭 안아주시며 말씀을 이으셨다. 지연이나 친구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보석이 있단다. 그 보석은 편식을 하고, 자주 눈물짓는 아이에게는 나타나지 않지 라고 하시며 환하게 미소를 지어 주셨다.

1년 내내 선생님은 눈물 많은 나에게 많은 신경을 써주셨고, 열심히 차근차근 공부를 가르쳐주셨다. 나에게겐 학교에서의 부모님 이셨다.

그 때는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세상을 환하게 밝힐 보석이 우리의 몸속에 있다는 말씀들이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이제는 선생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 했던가를 마음속으로 느낄 수 있다. 우리 안에는 누구에게나 보석이 존재한다. 그 보석을 발견하거나 발견하지 못하거나 보석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 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가치를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 그렇게 노력하는 삶을 살다보면 준비하는 사람에겐 희망이 있고, 언젠가는 꽃이 활짝 핀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려 했던 것은 아닐까 하지만 우리의 아름다운 보석을 갈고 닦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선생님들을 함부로 대하는 친구들이 늘고 있다.

물론 선생님께서도 신이 아니기에 가끔씩 실수를 하실 수 있고 잘하는 아이를 예뻐하실 수도 있다. 물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모든 선생님들은 한결 같이 학생들을 바른길로 이끌기 위해 칭찬도 때론 벌도 내리시는 것 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선생님을 존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는 선생님이로 인해 한 학생이 미래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에게 깨달음을 준 이야기는 효성이라는 아이의 이야기이다. 5학년 때 엄마 아빠가 헤어져

할머니와 살게된 효성이가 마음의 문을 닫고 부자동네의 아이들의 자전거를 훔치게 된다. 효성이의 담임선생님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다그쳐서 혼내는 것이 아니라 효성이의 입장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걱정해 주셨다. 그런 선생님의 노력으로 효성이는 모범적이고 우수한 학생으로 돌아오게 된다. 나 또한 효성이처럼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 인간으로써 갖추어야 할 덕목과 공부의 필요성을 배우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생명을 가진 조그마한 ‘알’이었던 나를 조금 더 활동적인 애벌레로 클 수 있게 만들어 주었고 우주와 같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얼마전 한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대학교 앞에서 떡볶이 장사로 평생을 살아오시며 고생하여 버신 돈을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를 할 수 없는 가난한 학생들의 학비로 쓰라며 기부를 한 이야기를 읽고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꼈다.

이러한 어른들처럼 나도 미래에 직업을 갖게 된다면 어떤 직업을 갖던 간에 사회에 봉사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가슴 속에 새기고 있다.

나는 꿈꾼다.

지금은 꿈틀 꿈틀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는 힘없는 애벌레지만 선생님들의 가르침에 따라 성장을 해나가면 언젠가는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 오색찬란한 날개를 펼치며 하늘 높이 날 수 있는 날이 올 것을....

위험한 불

성라초등학교 4학년 3반

김진경

내 친구 나영이와 나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다. 많이 놀았다고 느껴질 때쯤 나영이가 “우리 이제 집에 가자”하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조금만 더 놀다가자”라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학생 오빠들이 놀이터로 들어왔다. 처음에 우린 그냥 들어오는구나 하며 생각했는데 마른 나뭇잎을 주워 모으더니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올랐다. 당황스럽고 무서웠던 우리들은 놀이터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망설였다.

‘경비아저씨께 말씀드릴까?’

경비아저씨께 말씀드리면 오빠들에게 혼날 것 같고, 말씀드리지 않으면 위험할 것 같았다. 그래서 우리는 경비아저씨께 말씀드리러 갔다. 우리는 지금 놀이터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드렸다. 그래서 경비아저씨께서 놀이터 쪽으로 가셨다. 그 중학생 오빠들은 혼이 났고, 우리는 큰 불을 막은 것만 같아서 뿌듯했다.

우리가 그 일을 경비아저씨께 말씀드리지 않았다면 큰 일이 났을지도 모른다. 그 오빠들도 우리도 모두 깨달았지만 불장난은 우리 모두에게 위험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저런 장난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겠다.

웃는 얼굴

행신초등학교 3학년 4반

정 윤희

“너, 계속 그럴거니?!”

“.....”

오늘도 어김없이 저 목소리가 들려온다. 선생님 목소리와 말
썰쟁이 수민이 목소리,

이수민, 그 애는 우리반 아이들이 모두 싫어하는 아이다.
쉬는시간에 뒤뜰에 나가 개미를 잡아 여자아이들 옷에 집어
넣는다. (나도 여자라서 그 일을 당해 본 적 있다.) 또 선생님의
새 차에 낙서를 한 적도 있었다. 그래서 3학년 중에서는
수민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잠시 후, 수민이가 나왔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손이 퉁퉁
부은 채 말이다. 그 모습으로 서 있기 부끄러운지 나를 밀치고
뛰었다.

“어휴, 재는 정말 이해할 수 없어.”
뒤를 돌아보니 미나였다.

“이다솔, 너는 왜 재를 뺏히 쳐다보고 있어?”

“어? 그냥.....”

그 때 미나가 웃으면서 말했다.

“야, 다솔아, 우리 수민이를 한번 따라가보자.”

“왜?”

“네가 수민이를 뺏히 쳐다보는 걸 보니까 수민이에게 관심 있는 것 같아서.”

“뭐? 난 그게 아니라..... 알았어. 재미있겠다. 한번 해보자.”
수민이에게 관심있는 건 아니지만 웬지 재미있을 것 같아서
미나를 따라갔다.

그 때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더니 구름이 나타났다.

그 구름 위에 어떤 토끼가 있었다.

“당신들은 수민이를 따라가려고 하시죠? 그럼 이 구름을 타
세요 빠르게 수민이를 따라잡겠습니다.”

우리는 엉겁결에 구름 위에 올라탔다. 나는 잔뜩 긴장했는데
미나만 신난 것 같았다.

토끼가 이상한 말을 하더니 구름은 순식간에 밖으로 나왔다.
어안이 빙빙했다. 토끼는 구름에 있는 핸들을 돌리고 손
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자 구름은 하늘로 올라갔다.

저 아래 수민이가 터벅터벅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여러분, 이대로 수민이에게 갈까요?”

“아니, 수민이를 따라가 줘”

미나가 얼른 말했다.

한참을 가다보니 어떤 집으로 수민이가 들어갔다. 그곳은 보육원이었다. 보육원 안에서 수민이를 괴롭히는 목소리가 자꾸 들려왔다.

“미나야, 수민이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나봐?”

“그러게, 안됐다. 그래서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말썽을 부리나봐, 다솔아, 이제부터 우리가 수민이와 친하게 지내자.”

그때부터 우리는 수민이와 친하게 지내려고 했다. 수민이는 처음에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렸다.

어느 날 수민이가 이렇게 말했다.

“다솔아, 미나야, 나 부모님을 찾았어.”

“와! 정말? 잘됐다! 어떤 분이시니?”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이면 좋겠어. 너희들 이랑 헤어지지 않아도 되잖아?”

사실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나도 그러면 좋겠다. 하지만 기다려보는 수 밖에.....

딩동댕동!

이크, 벌써 종이 울렸다. 아이들은 허겁지겁 자리에 앉았다.

선생님께서 들어오셨다. 무슨 말씀을 하려는 것 같았다.

“수민아, 앞으로 나오렴.”

“네.....”

“수민이가 부모님을 찾았어요 중국인인데 수민이를 잘 돌봐 주실거예요.”

“.....”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습을 미나와 같이 보고 있었다.

“수민이가 떠나니까 웬지 허전하다.”

“난 괜찮아. 같이 편지하기로 했거든.”

여러 날이 흘렀다. 내 머리에서 수민이가 조금씩 잊혀지고 있었다.

어느 날, 수민이에게서 편지 한 통이 왔다.

〈다솔아, 미나야, 잘 있니? 나 수민이야. 날 잊어버린 건 아니겠지? 여기는 참으로 신기해. 중국인인 부모님과 같이 생활하려니 조금 어색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 너의 얼굴이 점점 잊혀지고 있네. 한번 네 얼굴을 보면 좋겠어. 안녕!〉

잊어버렸던 수민이의 웃는 얼굴이 서서히 보이고 있었다.

지우개

성라초등학교 4학년 3반

최 승 호

지우개는 쓱싹쓱싹

잘 지워져요.

내가 잘못 쓴 글씨도

웃으면서 지워주지요.

지우개는 나이를

거꾸로 먹나봐요.

점점 키가 작아져

아이가 되니까요.

할머니

성라초등학교 4학년 3반

오 윤 서

우리 할머니는 연세가 많으시다. 그런데도 내가 학교 갔다 오면 문 앞에서 나를 보러 나오신다. 할머니의 손에는 주름이 많아서 가끔 할머니의 손을 장난감처럼 생각하며 만지며 논다. 할머니는 안방에서 주무셨는데 이모가 이민가고 난 후 눈물을 흘리셔서 다 함께 같이 잔다. 간식 두 개가 있으면 할머니는 안 잡수신다며 나에게 다 먹으라고 하셨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다 먹으라고 하신다. 예전에 할머니께서 우리 집에 오셨을 때는 입 냄새가 너무 심했는데 이제는 양치를 깨끗이 하셔서 입 냄새가 많이 좋아지셨다. 그런데 할머니는 음식을 드실 때 암전히 드시지 않고 뒤죽박죽 섞어서 드신다는 게 할머니의 단점이다. 나는 할머니가 싫을 때도 있지만 좋을 때가 더 많다. 할머니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할머니를 좋아한다. 할머니가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

찬이와 권율장군

성저초등학교 4학년 3반

허 윤 영

학교 사회 시간입니다.

“오늘의 숙제는 권율장군과 행주산성을 조사하는 것이예요.”
라고 찬이의 담임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찬이가 제일 싫어하는 과목 사회에다가 조사하는 일은 정말 싫어했거든요. 하지만 숙제는 해야 하기 때문에 주말에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행주산성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찬이는 행주산성에 가는 것이 못마땅 하였지만 찬이 부모님과 동생 순이는 뭐가 좋다고 신이 났는지 정말 들떠보였습니다.

행주산성에 도착한 뒤 아빠는 표를 끊으러 갔고, 우리는 행주산성 주변을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표를 끊고 들어 가보니 권율장군 동상과 그 뒤에 행주산성에 대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찬이는 너무 놀라워서 입을 딱 벌리고 있었습니다.

단풍으로 물들어서 아주 곱고 색다른 길을 걸으면서 아빠가 들려주는 설명을 들으며 행주 대첩비라고 쓰여져 있는 곳 옆에서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먹고 행주산성 근처를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어 버렸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울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 밑에서 많은 군사들이 찬이 쪽으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찬이는 깜짝 놀라서 의자 뒤로 숨었습니다. 그런데 찬이 앞에는 의자가 없고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몇 분이 지난 후에 조용해지자 찬이는 바위 뒤에서 일어났습니다.

찬이는 ‘여기가 어디지?’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권율장군을 만났습니다. 찬이는 처음에는 권율 장군을 못 알아보았지만 사회시간에 많이 본 얼굴이라서 알 수 있었습니다.

찬이는 당황해 했지만 침착하게 ‘지금은 전투 중이 아니니까 권율 장군님께 좀 여쭙어 보아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권율장군께 걸어갔습니다.

“저… 권율장군님 저는 서울에서 온 찬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뭐하시는 거예요?”

권율장군께서 찬이를 보며 “아하! 네가 그 찬이었구나! 어제 밤에 이곳에서 찬이라는 아이를 만난다고 했거든. 그래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하냐고? 이제 방금 일본군이 갑자기 쳐들어

왔어. 많이 놀랐다면 사과할게. 그나저나 너는 여기로 어떻게 왔니?”

“저는 행주산성을 둘러보다가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저 바위에서 울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에서 군사들이 몰려와 깜짝 놀라 바위 뒤로 숨었어요.”

“그래? 저 바위가 언제 생겼지? 어쨌든 만나게 되어서 반갑다. 마침 군사가 한명 모자랐었는데 네가 군사가 되는 것은 어떨까?”

“죄송하지만 저는 가족에게 가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지금 저를 찾고 있을 거예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좀 안됐지만 보내 주어야지. 그럼 잘 가거라.” 라고 말하는 순간 갑자기 어디선가 화살 하나가 권율장군과 찬이의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찬이는 깜짝 놀라 움직이지 못 하였습니다.

권율장군께서는 찬이를 건물 기둥 뒤에 숨기고 전투를 하였습니다. 찬이는 숨을 고르고 빨리 전투가 끝나길 빌었습니다.

찬이가 기둥 뒤에 숨어서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나 보려고 하는 순간 일본군사가 찬이를 보고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찬이는 무서워서 “엄마!”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때 찬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권율장군께서는 사라지셨고, 건물의 기둥과 전쟁터는 눈을 씻고 보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엄마 아빠의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찬이는 그 소리를 듣고 엄마 아빠 순이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찬이는 권율장군의 이야기를 엄마 아빠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찬이의 엄마 아빠는 그 이야기를 듣고 웃으며 “좋은 꿈을 꾸었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날 학교 사회 시간에 조사한 것을 발표하라고 해서 찬이가 발표 하였더니 선생님께서 참 잘 했다면 찬이를 많이 칭찬해 주었습니다.

찬이는 이제부터 사회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흥미진진한 과목이 되었습니다.



우리 선생님

한내초등학교 2학년 3반

권 재 훈

우리 선생님은 착하다.
'혼나면 어찌지?'
콩닥콩닥 걱정하는데
조용히 타이르시니까.

우리 선생님은 이상하다.
나이와 몸무게는
절대 안 가르쳐주신다.
왜 그럴까?

우리 선생님은 엄마다.
우리 엄마처럼 소리도 지르고
가끔씩 벌도 세우니까.

우리 선생님은 우리를 사랑하
신다.
나이 어린 우리들에게도
존댓말을 쓰시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끌어주
시니까.

우리 선생님은 예쁘다.
뽀글뽀글 머리에 화장도 하시
니까.
치마를 입으면 더 예쁘실 텐데.

하늘 이야기

가좌초등학교 5학년 1반

박 수 진

내가 알던 하늘나라엔
콩나무를 타고 올라간 제크가 숨을
죽이고
옥황상제의 인자한 웃음 구름 만들
고 두레박 준비하는 선녀이야기

여직도 이야기가 남아 있을까?
시커먼 연기에 콩나무는 시들고
시끄러운 다툼 소리 웃음도 사라져
두레박 내릴 마음 남아 있을까

내가 알던 하늘나라
다시 찾고 싶어요
우리들 꿈 이야기
귀한 꿈 꽃피는
하늘 이야기

내 동생 맑은 눈에
담아주고 싶어요

친 구

백신초등학교 3학년 2반

김 성 민

우리들은 어디에나 친구들이 있다.
힘이 들 땐 도와주고, 슬플 땐 같이 슬퍼해 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어떤 때는 가끔 싸우지만 그런 게 좋은 추억들이 된다.
나쁜 친구 좋은 친구를 다 섞어서 사귀어 보면 나쁜 친구도 나와 정이 들어 좋은 친구가 될 것이다.

추억들을 나쁜 일 좋은 일을 마음속에 담아서 소중한 보물 1호로 만들면 세계 최초의 보물이 된다.

추억을 만들려면 마음 사진기가 최고이다. 소중한 추억들을 찍으며 돌아다니는 마음 사진기는 따뜻한 마음속에 품어 들어간다. 품어 들어가며 친구와 했던 일들을 찍고 다닌다.

어른이 되면 각자 갈 길을 가야 하는 것 친구들과 헤어져도 마음의 사진은 썩지 않고 반짝일 것이다.

친구는 친할 친 이 붙어 친구가 생긴 것이고, 친구라는 이름

은 무엇보다 소중한 이름이라고 생각한다.

손을 가슴에 올리면 “너의 친구가 들어있어”라고 말한다.

가슴에 손을 대고 친구이름을 똑바로 말하면 그 친구 이름이 마음에 저장된다.

지식은 지식을 쌓아 올리고, 친구는 친구들을 쌓아올린다.

친구를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할 때가 있다. 그럴 땐 친구! 라고 용기를 내면 그 아이와 금방 친구가 된다.

친구를 만나면 헤어지는 법도 있다. 그럴 때에는 마음에 담겨있는 말을 한글자 한글자 쓰면서 친구의 모습을 떠올린다. 헤어짐도 어찌면 커서 다시 만날지도 모른다.

그런 날이 오길 바라며 헤어진 친구를 기다린다.

추억과 우정이 섞여 나가며 만들어진 친구는 보물 1호다.



시계바늘 우리 부모님

백양초등학교 5학년 1반

김 하 은

시계바늘 우리 부모님
긴 바늘은 아빠.
짧은 바늘은 엄마.

때로는 따로 따로
때로는 함께 같이
내 주변을 돌고 돈다.
나를 가르키며
나를 바라본다.

하루를 온통 맴돌아도
결국은 같은 자리
부모님의 자리



똑딱똑딱
시계 바늘이 움직이면
시간이 흐른다.

듬뿍듬뿍
부모님의 사랑 받으며
나도 자란다.

말! 말! 말!

행남초등학교 6학년 2반

조 성 은

요즘 친구들은 비속어를 잘 사용한다. 기분이 안 좋을 때 욕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도 비속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언어는 그사람의 인격이라고 생각하는 나는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 친구들이 나를 멀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

나는 순수하던 옛날이 그립다. 예전에는 친구들끼리 서로 돕고, 웃으며 서로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친구와 함께 숙제를 하기도 했고 지금 유행하고 있는 총 쏘기 게임보다는 운동장에서 게임을 하며 어울려 놀았다. 학교에서 같이 밥을 먹고 호수공원에 놀러가기도 하고 친구네 집에 놀러가 아주머니께서 해 주시는 맛있는 간식을 함께 먹기도 하였다. 지금 처럼 친한 친구들끼리 어울려 거리에 나가거나 노래방을 가고, 비속어를 아무렇지 않게 사용한다거나 다른 친구들을 욕하거나 싫어하는 일은 매우 드물었다.

나는 그 원인 중 하나는 TV속 언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때 부터인가 TV에서 개그맨들이 웃음을 주기 위해 비속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어린이들이 개그맨을 따라 비속어를 사용하게 되었고, 그것은 어느 사이 우리 일상생활에 쓰이는 말이 되어버렸다. 어른들이 사용하니까 아이들도 사용하게 된 것이다. 그 후 선생님께서는 비속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이미 아이들은 입에 베어버린 비속어를 선생님의 눈을 피해 끊임없이 사용하고 있다. 사소한 일만 생겨도 쉽게 거친 말을 함부로 내 뱉어 버린다. 심지어는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던 친구들조차 비속어를 쉽게 배워 버리고 만다. 나는 그 모습을 볼 때 마다 제발 친구들이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던 순수했던 시절로 돌아갔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말을 곱게 해야 얼굴도 마음도 고운 사람이 된다고 한다. 요즘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비속어에 노출되는 시대라서 나보다 어린 아이들이 비속어를 배울까봐 걱정이 된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바르고 고운 말을 쓰고 다함께 웃으며 어울릴 수 있는 청소년으로 자라고 싶다. 나의 친구들도 어서 빨리 예전의 순수함을 되찾고 바른 말을 사용하였으면 좋겠다.

가을, 그리고 할아버지

대곡초등학교 6학년 1반

이 유 민

가을은 참 예쁘다. 은행잎은 노랗게, 단풍잎은 빨갭게 물들었다. 산은 울긋불긋 화려하다. 논에는 벼들이 노랗게 익어간다. 살랑살랑 바람이 불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새파랗다. 고추잠자리들이 날아다니고 밤이면 귀뚜라미가 노래한다.

하지만, 가을은 쓸쓸하기도 하다. 나뭇잎들이 모두 땅에 떨어지고 나무는 가지만 앙상하게 서 있다. 떨어진 나뭇잎들은 바람에 휩쓸려 날아간다. 아침이면 하얗게 서리가 내린 잎들이 뽀뽀이 굳어있다.

바람이 심하게 불고 이런 날은 기분도 가라앉는다. 집에 오자마자 ‘언니---!’ 하며 동생이 달려온다. 가뜩이나 힘든데 짜증이 절로 난다. 여덟살이나 터울이 저서 처음에는 귀여웠는데 크고 나니 애물단지가 되었다. 눈치도 빠르고, 애교도 잘 부리는데 힘들 땐 그저 귀찮기만 하다. 옷 갈아입고 좀 쉬려는데 와서 애기 목소리로 ‘언니, 언니’ 해가면서 다리에

찰싹 달라붙는다.

가득한 목소리로 ‘아, 왜-!’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조금
기가 죽은 목소리로 ‘언니 예쁘게 말해.’ 하며 눈치를 살살
살핀다. 말하는게 하도 우스워서 ‘알았어. 근데 왜?’ 그랬
더니 ‘나 책 딱 한권만 읽어 줘.’ 라고 그런다. 소리 지른 게
미안해서 책을 갖고 오라고 했다.

기분이 좋은지 폴짝폴짝 책꽂이로 뛰어가서 냉큼 책 한 권
을 뺐는데 <오른발, 왼발>이었다. 나는 몇 번 봤지만 유림이
(동생)에게는 처음 읽어주는 책이다. 내 생각엔 삼학년쯤
되어야 책 내용을 이해할 것 같은데 다섯 살짜리 유림이한테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책을 펼친다.

‘보비하고 할아버지는 아주 사이가 좋았다. 할아버지는
보비에게 걷는 것도 가르쳐주시고, 같이 블록을 쌓으며 놀아
주기도 하셨다. 그런데 보비가 다섯 살이 되던 해에 할아버지
가 뇌졸중에 걸리셔서 아무도 못 알아보게 되었다. 이제는
보비가 할아버지에게 말도 가르치고 오른발, 왼발 걸음마
연습도 하게 한다. 엄마, 아빠는 할아버지가 낫지 못할 거란
생각도 했지만 보비는 처음부터 할아버지가 자기를 알아보
고 나오시리라는 걸 알았다. 보비의 생각대로 할아버지는

완전히 나오셨다.’

다섯 살짜리 유림이는 가끔 엉뚱한 질문을 해서 엄마를 난처하게, 아빠를 당황스럽게 한다. 방금 전까지 맛있게 밥을 먹다가도 갑자기 아빠한테 ‘아빠, 할아버지는 왜 돌아가셨어?’ 하고 물어본다. 그러면 아빠는 잠시 얼굴이 굳어지면서 ‘아프셔서’ 라고 짤막하게 대답한다. 또 어떤 때는 자려고 준비를 하는데 졸려서 눈을 비비면서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 라고 한다.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유림이를 꼭 안아준다.

가을이 되면 두 할아버지 생각이 더 많이 난다. 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큰엄마, 큰아빠, 고모, 우리 가족 모두 다같이 식당에 가서 칠순 잔치를 했던 기억도 난다. 과천 현대미술관, 관악산 계곡에 놀러갔던 일도 생각나고 또, 어린이날, 생일 때마다 할아버지가 사주셨던 장난감기타와 전화기는, 지금 유림이가 갖고 논다. 할아버지가 회사 다니실 때, 그림 그리라고 갖다 주신 종이는 아직도 있는데 할아버지는 삼 년 전에 돌아가셨다.

외할아버지는 항상 우리 집에 오시거나 내가 놀러 가면 같이 슈퍼에 가서 군것질거리를 사주셨다. 난 그 때 먹었던 과자 이름이 아직도 기억난다. 예전에 우리 집에 놀러 오셨을 때는

같이 관악산에 등산도 하고, 단풍구경도 했었다. 또 미국에 갔다 오셨을 때에는 작은 배지, 미국 동전 같은 것들을 주셨다. 과천현대미술관에서는 사촌과 나한테 하나씩 예쁜 보석함을 사주셨다. 울산에 가서는 사촌들, 이모, 이모부랑 맛있는 것도 차려 먹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했었다. 할아버지가 사주신 보석함이랑 미국동전, 배지는 내 보물 상자에 잘 있는데 외할아버지는 친할아버지보다 한달 먼저 돌아가셨다.

〈오른발, 왼발〉을 유림이한테 읽어주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다.

‘이 책에 나오는 보비 할아버지는 병이 나서 다시 보비와 재미있게 지낼 수 있었는데 그 때, 우리 할아버지들도 다시 병이 나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지금도 살아 계신다면 유림이가 귀엽게 재롱 부리는 것도 보실 수 있으셨을 텐데, 그러면 참 좋아하실 텐데.....’

엄마도 유림이가 귀여운 짓 할 때마다 할아버지들 생각이 더 난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할아버지들을 추억할 게 참 많은데 유림이는 너무 어렸을 때라 할아버지와 함께한 시간들이 없어서 안타깝다. 유림이에게 할아버지들 이야기를 자주 해 줘야겠다.

아버지

이 세상의 많은 아버지 중에
한 분인 우리 아버지

오늘도 고를 곁머
주무십니다.

오늘 일하신 게
힘이 들었나 봅니다.

매일 힘들게
일하시다가
다치셔서

병원을 자주 들락날락 하는 아버지
난

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용돈을 받고 받은 용돈으로
놀러다니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번 돈으로 난 생일 때
케이크를 먹습니다.

성석초등학교 6학년 금낭화반
박 수 현

하지만 난 아버지의 생일 때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조차도
쑥스러워서 하지 못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어깨를 주물러 드립니다.

나의 작은 손으로

아버지의 피로가 풀리기를 빌며……

깨달음을 아는 친구

문촌초등학교 3학년 4반

손 보 경

제가 6살 때 어린이집에서 동준, 진현 그리고 헤림이와 이누야샤라는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재미있게 놀았고 크면서도 똑같이 재미있게 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준이와 진현이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에 다닐때에는 성장이라는 말을 잘 몰랐고 느낄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6살 때 꼬마 아이가 3학년이 되었고 친구들도 저처럼 성장해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서로 이름을 부르는 순간 예전처럼 친근한 느낌이 드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순간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은 아무 느낌도 없다고 할 뿐만 아니라

욕도 했습니다. 저는 친구들이 그렇게 냉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울부짖으면서 터벅터벅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른 척 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도저히 친구와 함께 얘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예전처럼 친구들과 좋은 느낌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면 친구들의 마음을 되돌려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친구들처럼 마음을 돌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고민을 해야 친구가 된다.’

제 머릿속에 그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인생은 길어도 마음은 길게 남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지금은 어색하게 만나고 있지만 우리에게겐 소중한 우정이 남아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저는 저의 이 마음을 친구들도 깨달아줬으면 하고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깨닫는 친구야말로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봉사는 즐거워

행신초등학교 3학년 2반

이 아 영

어느 책에서 보았는데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봉사 점수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숙제라고 생각하고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거짓으로 도장을 받는 학생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마음은 이해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봉사는 아무도 보지 않았을 때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TV에서 보았는데 버림받은 소년 소녀 가장을 돕고, 연락할 가족도 없고 도움을 요청할 친척도 없는 병든 할아버지를 도우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린 나에게는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만약 내 주위에 아무도 없었다면 어떤 상황일지 궁금해졌어요. 또 학교에서 생각 주머니가 짧은 친구나 사랑받지 못하는 학생을 보면 계속 쳐다보거나 놀리는 친구들이 미워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짧은 시간이지만 다짐했습니다.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장애를 가지면 그런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기로 말

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보다 못하다고 해서 그런 편견은 갖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우리 학교에서 나보다 생각 주머니가 짧은 학생을 도와주거나 친구들을 위해 조금 일찍 학교에가 몇 명 학생들과 교실에 있는 휴지도 줍고 하였습니다. 그 때 내가 남을 위해 무엇인가를 한다는 게 얼마나 뿌듯한 것인가를 알았습니다. 이렇게 봉사란 남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서 나에 대해 깊이 생각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좀 더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쉬운 봉사부터 찾아보세요. 그때 느끼는 기분은 해 본 사람만이 알 것이고 얻는 기쁨은 함께 나누면 반드시 배가 될 것입니다.

남몰래 천사처럼 봉사하는 내용을 들을 때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내가 봉사를 하게 되는 여건이 된다면 주변에서부터 조용히 쓰레기도 줍고 불쌍한 사람도 돕고 나보다 남을 더 먼저 생각하는 훌륭한 봉사자가 되겠다고요. 그러면 행복이 저절로 찾아 올 것 같아요. 남몰래 숨어서 봉사하시는 천사님들 힘내세요. 여러분이 있어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 질 거예요.

이크발은 파키스탄에 사는 친구다

안곡초등학교 4학년 1반

김 혜 인

이크발은 파키스탄에 사는 친구다. 파키스탄은 어린이 노예가 많은 곳인데 이크발이 그들을 살려주는 이야기다. 이크발에겐 아빠, 엄마, 동생, 형들이 있다. 이크발은 형의 결혼식비로 빚을 저서 카펫공장에 팔려왔다. 이크발은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탈출 시도를 했다. 그런 이크발을 보고 나도 이렇게 용기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다행히도 탈출 3번째에 BLLF단원을 만나게 되어 BLLF에 갔다. 이크발은 그곳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BLLF의 학교에 다니며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한다. 그런데 아직 그곳에 있는 친구들을 생각하고 BLLF의 단원이 되어 친구들을 구했다.

나라면 그럴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고 공부도 귀찮다하고 자고, 놀기만 하는 게으름뱅이가 됐을 것이다. 나는 부지런하고 착한 이크발이 부럽다. 내가 천사라면 이크발은 하나님

이고 내가 닭이라면 이크발은 농부이다. 이크발은 정말 대단한 일을 했고 비록 나처럼 키가 작긴 했지만 속은 꼭 찬 사람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크발이 죽는 건 예상도 못했다. 하지만 끝에서 내 바람과는 달리 이크발은 누군가의 총에 맞아 죽는다. 내 생각은 총을 쏜 사람이 사장일 것 같다. 왜냐하면 사장이 이크발에 대해 잘 알고 있어서 이크발을 죽인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그게 실수였다 해도 너무했다. 또 그렇게 하는 건 실수가 없다. 친구들은 조금만 다치게 하고 이크발만 죽을 순 없다. 유일하게 이크발만.....

이크발이 용기가 많았던 것이 오히려 나쁘게 된 원인 같기도 하다. 그것 때문에 이크발이 죽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나친 용기도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적당하게 용기를 가진다면 그건 좋은 것 같다. 내가 이크발이라면 환경을 위해서는 일할거지만 다른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 할 것 같다. 공부도 열심히 하진 않지만 시험이나 숙제만 베풀치기로 할 것 같다. 그래도 어쩔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때도 있겠지?

나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생긴다면 이크발 같은 친구였으면 좋겠다. 나에게 잘못된 일도 짚어주고, 재밌는 놀이도 가르쳐 주고, 충고도 많이 해주고, 카펫 짜는 방법도 알려주고, 기계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그런 친구가 있다면 정말 행복 할

것 같다. 또 성실하고 부지런해서 같이 운동을 다니기도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이크발 같은 친구가 있다면 매일 매일 행복하고 즐겁고, 짜릿할 것 같다. 그리고 이크발에 대하여 BLLF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장례식은 거기서 치러야 한다.

비록 나와 비슷한 나이에 죽었지만 이크발은 마음씨만은 좋았다. 이크발은 정말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이크발을 존경해 할 것 같아서 행동으로 봐서도 얘기를 들어도 나도 이크발을 존경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이크발이 좋은 이야기로 끝이 났다면 얼마나 좋을까? 책표지에 있는 슬퍼 보이는 그림처럼 끝나지 않고 말이다.

이크발이 죽어서 상을 탄 것도 부럽고, 이크발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도 있어 부럽다. 하지만 그 시대에서 살아서 이크발과 친구가 되는 건 반갑지만, 그곳에서 힘들게 일하고 싶지는 않다. 용기 있는 이크발을 존경하지만, 이크발처럼 행동하지는 못할 것 같다.



아빠같은 형이 될래

화중초등학교 3학년 백합반

김 정 태

우리 가족은 세 명이다. 나, 엄마, 동생. 아빠는 올 봄에 암으로 돌아가셨다.

겨울 내내 나는 이모 댁에서 혼자 지냈는데, 아빠가 돌아가시고 그나마 세 가족이 함께 살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작년까지도 우리는 셋이었다. 아빠, 엄마, 그리고 나. 동생이 태어나자마자 아빠는 병원에 입원하셨고, 우리는 다시 셋이 된 것이다.

내 동생은 나랑 나이 차이가 많아서 같이 게임을 하거나 공차기를 할 수는 없지만 남동생이라서 같이 목욕도 할 수 있고, 같은 방에서 잘 수도 있어 참 좋다. 내 동생은 이제 한 돌이 지난 두 살이지만 아빠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서 동생이 참 불쌍하다. 나는 아주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는데.....

그래도 내 동생은 아빠와 꼭 닮아서 걱정이 없다. 아빠 얼굴이 자기 얼굴 일 테니까 말이다.

엄마는 동생과 내게 책도 읽어 주시고, 밥도 같이 먹는다. 아빠가 함께 계셨다면 더 신나게 놀 수도 있고 여행도 우리끼리 재밌게 다녀올 수 있을텐데, 그럴 수 없어 아쉽다. 아직은 동생이 어리기 때문에 엄마가 우리를 데리고 놀아주거나

여행을 간다는 것은 힘들다. 동생이 조금만 더 크면 내가 동생을 챙길 수 있을테니 그 때 가자고 해 볼 생각이다.

우리 엄마는 얼마 전까지 자주 우셨다. 엄마가 우시는 모습을 볼 때 나는 뭐라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같이 울 수는 없었다. 아빠가 안계신 게 나에게만 슬프고 허전한 일 일줄 알았는데 엄마도 그렇다는 걸 깨달았다.

우리 집은 동생 때문에 많이 웃는다. 내 동생은 이불 놀이를 좋아한다. 이불을 덮고 깍깍하기, 이불위에 엎어 띄워주기를 해주면 까르르 웃는다. 그래서 나는 매일 잘 때마다 동생에게 깍깍놀이와 나는 융단놀이를 해준다. 그러면 내 동생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웃음소리를 내는데 그 바람에 엄마도 나도 함께 실컷 웃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엄마와 함께 웃는 동생을 지켜 보면 나도 어렸을 때 아빠와 저렇게 놀았겠다. 는 생각을 한다.

내 동생은 요즘 '엄마' 라는 말을 할 줄 안다. 엄마가 그러시는데 나는 다섯 살까지 말을 잘 못했다고 한다. 그러면 내 동생은 나보다 푹푹한 모양이다. 그래도 나는 기저귀는 금방 뺐다고 한다. 아빠는 그래서 나를 아주 귀여워하셨다고 했다. 내 동생은 이런 나를 닮아 기저귀를 금방 빼고 엄마를 편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또, 나처럼 내 동생이 씹씹하고 엄마 말씀도 잘 들었으면 좋겠다.

나는 동생에게 아빠같은 형아가 되고 싶다. 많이 웃을 수 있게 놀아도 주고,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공부도 시켜주고, 씹씹해지도록 운동도 같이 해주는 그런 형 말이다. 그러면 우리 가족도 다른 가족처럼 행복해 질 수 있을 것이다.

중 등 부

■ 비오는 날	박예리	■ 정(情)	최사라
■ 행주열의 외침	나지원	■ 우리선생님	공민지
■ 시간의 여행	최사라	■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다솔
■ 한눈이 갔다	최준호	■ 질서의 생활화	김수환
■ 비오던 날	유수원	■ 대답 없는 아버지	류정아
■ 가족은 짐이 아니라 행복이다	배다은	■ 시계	민동민
■ 사랑합니다	정혜경	■ 엄마 마음	김채원
■ 질서, 우리의 미래	정다현	■ 마음을 옷게 하는 방법	이해니
■ 사랑하는 언니	이예은	■ 정선에서 찾은 가족 사랑	이다솔
■ 아빠 무엇을	김준수	■ 호박	임현준
■ 바둑	한근권	■ 더도말고 덜도말고 외갓집만 같아라	신해송
■ 전통놀이	박채린	■ 뿌듯,	정승원
■ 우리선생님 = 핑크공주	김예나	■ 자원봉사	최희진
■ 아버지께	강지애	■ 부모님의 사랑	김소진
■ 진정한 사랑의 손금	오서란	■ 자원봉사	박윤경
■ 오늘도 그렇게	김도연		
■ 든든한 형	박수형		
■ 효의식을 되살리자	권희은		
■ 친구	차주안에		
■ 가을을 닮은 사람	국주호		
■ 고양 향토유적	김홍식		
■ 가족	정현이		
■ 어버이	홍종호		

비 오는 날

행신중학교 1학년 6반

박 예 리

똑, 똑, 똑

혹시나 싶어 문을 열었더니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

빗방울이 점점 굵어질수록
보고 싶은 마음도 커져간다.

똑, 똑, 똑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창 밖의 저 노란 우산

지금 내리는 비보다

더 많이 보고 싶었던

내 친구.

행주열의 외침

지도중학교 2학년 11반

나 지원

우리고장의 호국의지가 살아있는 곳, 행주산성! 우리 조상들의 외침이 그대로 묻혀있는 행주산성! 그 행주산성을 얼마 전에 돌아보았다.

우리 고장 고양시의 자랑거리 중에 하나인 행주산성의 모습을 돌아보자면 조선시대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과의 전쟁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여러 장군들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를 썼고 그 중에서 권율 장군이 일궈낸 전쟁은 행주산성과 관계가 있다. 권율 장군이 군사들을 이끌고 한강을 건너 행주산성에 이르렀을 무렵, 일본군과 맞서게 되었다. 이때의 상황은 조선군대에게 매우 불리했었다. 하지만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모든 관군과 승병, 의병과 고양주민들이 몸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 왜군에 맞섰고 결국 이 전쟁에서 조선은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두고 승리에 대한 기쁨을 논하려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 전쟁에서의 승리도 우리 민족들에게는 큰 자랑거리지만 이 점에 앞서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어려운 역경을 호국의지 하나로 이겨내려 했던 우리 조상들의 굳은 의지와 강한 애국심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의지 하나로 똘똘 뭉쳐서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개인의 욕심은 접어두고 우리, 또는 우리고장, 또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았던 우리 조상들의 얼을 본 받아야 한다.

요즘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통해서 본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모습을 볼 때 마다 내가 정말 부끄러워진다. 일반 국민들을 대표해서 나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정치가의 모습들 중의 대부분이 서로 분쟁하는 모습이다. 서로서로 합쳐지지 못하고 하나의 집단 안에서도 매번 싸움을 일으키고 분열을 하는 요즘 정치가들의 세태를 볼 때 마다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과연 저 사람들은 정말 국가를 위해 저러한 논쟁을 벌이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내전을 일으키는가?' 라는 의문이 떠오른다. 무엇보다도 나라를 먼저 걱정하고 이 나라의 위상을 위해 단결심을 보여야 할 사람들인데 국민들 앞에서 도저히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 같다.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을 막으려면 옛날

행주산성을 지켜냈던 조상들의 정신을 다시 복원시켜야 한다. 아낙네들까지 스스로 동참해서 행주치마에 돌을 담아 싸웠던 그 모습을 우린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그 돌맹이 하나하나는 비록 작았지만 그 돌맹이들이 모여서 결국은 이 나라를 지켜 내지 않았던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바로 그 후손이라는 것이다.

눈을 감고 임진왜란 당시의 행주산성에서의 그 싸움을 떠올려 보노라니 그때의 그 함성과 불굴의 모습들이 너무도 생생하게 그려진다. 세계 강국과의 경쟁과 협력 속에 살아나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을 텔레비전이나 신문지상을 통해 보면서 우리에게 는 더욱더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농민들과 산업현장의 일꾼들의 어려움을 보았다. 그들의 절절한 외침 속에는 분명 우리의 부족한, 아니 앞으로 더 키워 나가야 할 우리의 과제들이 보였다. 그 과제들을 풀어나가야 할 우리의 몫이 그만큼 큰 것이다.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우리의 고장과 우리의 나라를 지켜 내기 위해서 피 흘리며 쏟아냈던 그 애국심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되겠기에 지금의 우리도 조상들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 이 나라를 더욱 강대하고 튼튼하게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시간의 여행

원당중학교 3학년 13반

최 사 라

‘똑딱똑딱.’ 규칙적인 시계소리를 시간이 귀 기울여 듣고 있다.
 “음, 이정도면 됐어.” 시간이 말했다. 그리고는 쪽 기지개를
 펴며 주위를 둘러봤다. 주변에는 수많은 시계들이 제각각
 움직이고 있었다. 그것들은 각기 다른 세계로 이루어졌다.
 그중 시간은 회색빛 시계를 집어들고는 시계안으로 사라졌다.

‘위이잉.’ 기계적인 소리가 나는 세상. 이 곳은 지금, 무표정한
 얼굴로 시간에 쫓겨 바쁘게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 이것을
 바라보던 시간은 문득 건딜 수 없는 외로움에 훌쩍 하늘위로,
 세상위로 날아올랐다.

“왜 모두들 나에게 쫓겨 저렇게 무표정한 얼굴로 살아가는
 걸까? 대체 왜?”

절망에 빠져있던 그 순간 시간은 보았다.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너무나 반가워 재빨리 그 희망이 있는 곳으로 달려간 시간은
 너무나도 해맑게 웃고있는 어린아이를 보았다. 시간은 마음

속에 따스하게 퍼지는 사랑을 느끼며 아이에게 다가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마다 퍼지는 따뜻함에 편한 미소를
지으며 시간은 그 아이에게 다가갔다.

“어? 아줌마는 누구예요?”

‘아줌마? 내가 아줌마라니, 이 아이는 내가 보이는걸까?’

“꼬마야, 내가 보이지?”

“당연하죠, 근데 아줌마는 누구세요?”

“나는 시간이라네. 너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알 수
있는 존재이지.”

“와, 정말요? 그럼 다 아시겠네요?”

“그러럼, 난 다 알고 있단다. 그런데 꼬마야 난 아줌마가
아니란다.”

“그래도 아줌마라고 할래요. 아줌마는 우리 엄마같아서 그
랬어요. 그러니까 아줌마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면 안돼요?”

“뭘데 그러니?”

“사실은요, 우리 엄마가 하늘나라에서 살고계세요. 그런데
편지를 아무리 보내도 답장이 오지 않아서, 걱정되니 아줌마
한테 엄마 잘계시는지 물어보려고요. 아줌마는 다 안다고
그러셨잖아요.”

이 말을 들은 시간은 가슴이 미어져 오는것 같았다. 이렇게
순수하고 맑기만 한 아이에게서 어두운 그늘을 보았기 때문

인지도 몰랐다.

“꼬마야, 엄마는 하늘나라에서 항상 너를 지켜보고 계신단다. 혹시나 네가 넘어져서 올진 않을까. 다치진 않았을까 하면서 항상 널 지켜보고 계신단다. 하늘나라는 너무 멀어서 편지가 도착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네가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가만히 엄마에게 말을 걸면 분명 엄마도 대답해 주실거야. 널 항상 지켜보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힘내렴.”

“정말요? 정말 엄마가 지켜보고 있어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는데..... . 아줌마. 고마워요. 아줌마 덕분에 엄마가 어 떠신지 알았어요. 이젠 엄마 못봐도 괜찮아요. 언제나 날 바라보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시간은 깨달았다. 이 아이는 지금 한층더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것을 말이다.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드는 아이를 보며 시간은 생각했다. 아이의 엄마도 분명 지금 웃고 있을 것이라는 걸.

“그래, 이제 알겠어. 끝이 없어 보이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누군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 내가 그들에게 소중한 가치가 되어주는 것이라는 걸.”

이제 시간도 활짝 웃으며 희미해져 가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인다.

“꼬마야 고마워. 네 덕분에 나의 진정한 가치와 삶의 의미

를 알 수 있었어.”

점차 밝은 빛이 시간에게서 퍼져 나오고 있었다. 그 빛은 세상 곳곳에 퍼져 나가 사람들에게 웃음과 여유를 선물하며 더욱 더 멀리 퍼져나갔다. 그리고 멀어지는 꼬마를 향해 말했다.

“꼬마야 안녕.”

이 여행 이후 시간의 삶엔 큰 변화가 생겼다. 바로 자신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이었다. 예전의 그늘진 모습이 아닌 삶에 의욕을 가지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루 24시간을 충실히 보내고 있었다. 그 아이와의 만남으로 새로운 길을 찾게된 것이었다.

시간은 그렇게 지금도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한 놈이 갔다

지도중학교 1학년 12반

최 준 호

한 놈이 갔다.
한 자리가 비어있다.
내 친구가 머물던 그 자리.
이름 지운 자국만이 남아 있는
쭈뼌한 빈자리가 된 그 자리.
창문 너머 서늘한 그들이 드
리운다.
웬지 쓸쓸하게
웬지 슬프게
그렇게 내 친구
한 놈이 갔다.

한 놈이 갔다.
그 자리가 비어있다.
내 친구의 낙서로 가득한 그
자리.
장난기 어린 웃음이 배어있는
흔적만이 남은 그 자리.
오늘 따라 그놈 생각이 난다.
마냥 보고 싶고
마냥 그리운
그렇게 내 친구
한 놈이 갔다.

추억 한 장 남긴 채……

비 오던 날

행신중학교 1학년 7반

유수원

우르릉쾅 바람 불고
 주룩주룩 비 오던 날
 혹시라도 비 맞을까
 남 모르게 걱정했습니다.



혹시라도 여린 마음
 빗가락에 상처 날까
 우산 하나 주고 싶어
 남 모르게 걱정했습니다.



가족은 집이 아니라 행복이다

저동중학교 1학년 2반

배 다 은

황금빛으로 곱게 물든 은행잎에 늦가을 정취가 물씬 피어나는 계절입니다.

눈이 부시게 따스한 햇살아래 노랗게 물든 은행잎을 해맑은 어린이들 표정으로 좋아하시는 우리 어머니의 미소가 허공을 날아다닙니다.

찬 기운이 감도는 평화로운 어느 일요일 한 편의 영화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보는 앞에서 가냘픈 어머니가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 처럼 힘없이 쓰러지셨습니다.

너무도 갑작스런 일이어서 동생과 나는 부들부들 떨며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의 연락을 받고 우리집엔 처음으로 119 소방대원들이 달려오셨습니다.

순식간에 어머니는 앰블런스에 실려 어디론가 사라지고 집에 남겨진 동생과 나는 무섭게 밀려오는 정적에 충격을 받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숨 막히도록 초조한 몇 시간이 흐른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일산병원 중환자실에 어머니가 입원하셨다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꿈을 꾸듯 아련하게 들려왔습니다.

호흡곤란으로 산소마스크가 씌워지고 이름 모를 온갖 기계
줄들이 어머니를 감싼 모습은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었습니다.

분주한 간호사들의 움직임에 어수선했던 분위기 안에서 아침
저녁으로 30분간만 면회가 가능하여 외롭게 누워 계시는
어머니가 가슴이 아프도록 안쓰러웠습니다.

면회시간외에 운명하셔도 볼 수 없고 사망소식만 알려 준다는
간호사 언니의 말에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 앞이 보이질 않았
습니다.

두고봐야 한다는 의사선생님 말씀에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
는 기약없는 중환자실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다니시던 회사는 어머니의 갑작스런 부재로 업무가
마비되어 곤란한 상태라는 전화가 집과 핸드폰으로 빗발쳤습
니다.

그리고 줄을 잇는 직원들의 병문안을 보며 어머니는 회사에
서도 중요한 사람이었다는걸 알았습니다.

하루하루 엉망이 되어가는 우리집 모습은 어머니의 존재를
더 크게 부각시켜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초철헌신 모습으로 연거푸 담배를 피우시는 아버지의 쓸쓸

배다른 | 가족은 집이 아니라 행복이다

한 뒷모습, 개구쟁이로 유명한 아이가 뉘나간듯 말없이 앉아 있는 동생 얼굴은 예전의 화목했던 우리집 분위기가 아니어서 너무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잘 지내야 어머니도 빨리 기운 차리실거야. 엉망인 우리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 아파 하시겠니?”

동생을 다독이며 시간은 흘렀고 정신력 강한 어머니는 병원에서 놀랄만큼 기적처럼 회복되었습니다.

야원얼굴, 군데군데 주사바늘로 부어오른 피멍든 팔, 다리를 보니 가슴 깊은곳에서 복받쳐 오르는 몽클함과 반가움이 교차되어 어찌해야 할지 몸둘바를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등장으로 언제 그랬냐는 듯 우리집은 생기를 되찾았고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창밖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다들 말은 안하지만 이번일을 계기로 우리는 가족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기침소리만 들려도 화들짝 놀라 모두 달려들어 팔다리를 주무르는 소동이 벌어지는 광경조차 예쁘게 스케치합니다.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창가에서 커피향을 음미하며 소녀처럼 미소짓는 어머니와 이 아름다운 가을을 함께 느낄수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가람중학교 1학년 7반

정 해 경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쏟아집니다. 생각해보면 참 우울한 하루인 것 같습니다. 이 날씨에 학교를 가야하니 참 막막했습니다. 그것도 학교에서 가져오라는 준비물도 참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4절 하드보드지, 책과 교과서가 들어있는 가방에다가 크레파스와 수채화 도구를 넣는 2개의 쇼핑백부터 실내화주머니까지 들고 가야 되었기 때문에 너무 짜증났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와 학교로 갑니다. 우산을 어깨에 걸치고 준비물과 가방을 걸치고 가는데 약간씩 튀기는 빗물이 그리고 습한 기온이 정말 내 기분을 나쁘게 만들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 가면서 준비물을 가지고 오라 했던 선생님을 원망하고 비를 마구 욕했습니다. 그러니 금세 가까워진 학교. 정문으로 들어와 친하지 않지만 그래도 같은 반인 친구들에게 친하게 인사를 하고 실내화를 신기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내 손에 있어야 할 실내화 주머니가 없었습니다.

“어! 나 실내화 주머니를 두고 왔나보다!”

그제서야 나는 생각이 났습니다. 가지고 갈려고 문 앞에 놓았던 나의 검은색 실내화 주머니가 나를 찾고 있는 듯 눈앞에 아른거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애들아, 지금 집에 갔다오면 지각이겠지?”

“당연하지! 으이구! 덜렁이 정혜경! 지금 못 갔다 와. 그냥 1층 공중전화에서 부모님께 가지고 와 달라고 해.”

친구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실내화를 신고 나는 신발을 신은 채 들어갈 수 없어서 신발을 벗고 양말만 신은 채로 축축한 복도와 계단을 밟아야 되었습니다.

우산의 물기를 털어서 복도와 계단이 축축해 졌는데 그것을 밟아야 된다니, 생각만 해도 찝찝했습니다.

교실로 오자 내 짝이 빗물 때문에 검고 축축해진 하얗던 양말을 보며 놀리는 것 이였습니다. 그런 짝꿍을 난 흘려보고는 얼른 1층으로 달려갔습니다.

한번 걸을 때마다 축축해지고 찝찝한 내 발이였고 시렸지만 나의 발을 보는 시선 때문에 뛰어서 1층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우리학교 1층의 공중전화는 1541이라는 수신자 부담 서비스 전화기였습니다. 얼른 수화기를 들고 031로 시작하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들리는 것은 낯선 여자의 목소리. 그래서 다시 수화기를 내려놨다가

다시 들어서 번호를 눌렀습니다. 3번의 신호음이 가자 들리는 내 엄마의 목소리.

“여보세요?”

듣기만 해도 내 엄마의 목소리는 금방 잠에서 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서 서운했습니다.

“엄마, 나 혜경이야.”

“응, 왜 전화 했니?”

“지금 일어났어?”

“아니, 아까 일어났는데? ... 아 참, 너 실내화 주머니 두고 갔더라.”

알고 있었다는 듯 말하는 내 엄마의 목소리가 나에게서는 너무 얄미운지, 큰소리를 쳤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딸한테 그거 가지고 와주는 것도 못해?!”

“네가 해야 할 것이잖아! 왜 엄마한테 그러는데!”

어쩌면 내가 엄마한테 화풀이 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몰라! 엄마, 나뻤어!”

나는 얼른 수화기를 내려놓고 쿵쾅거리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축축하게 젖어있는 내 발이 너무도 시렸지만 무관심한 엄마의 말에 서운했는지 느끼지 못했습니다.

서운한 마음으로 반으로 왔는데, 1교시가 미술이라서 애들이 준비하고 있는걸 보았습니다. 그래도 엄마 나를 사랑할 것이

라며 마음을 되 새기고, 의자에 앉아서 나도 준비를 했습니다. 미술시간에 주제는 가족사랑 이었습니다. 나는 하드보드지에 크게 화목한 가정을 그렸습니다. 이걸 보고 좋아하실 엄마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렸습니다.

손 에 묻은 크레파스와 물감으로 나는 잠시 선생님께 말해서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그 사이에 내 짝꿍이 제 그림에 물통을 넘어뜨려서 검은 물이 묻어 흠뻑 젖은 거였습니다. 몇 번이나 짝은 나에게 사과했지만 너무 서운한 마음에 냉정하게 되었다며 화를 냈습니다.

‘엄마가 이걸 보시면 얼마나 실망하실까...’

서운한 마음으로 4교시를 마쳤습니다. 집에 가야 되는데 폭풍우처럼 쏟아지는 비에 나는 한번 더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난 친구들한테 인사를 하고 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정문에서 보이는 얼굴. 하얗게 창백해지고 추운지 약간 파랗게 물들어 있는 입술. 우리 엄마였습니다. 보기만 해도 오래 기다렸는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 엄마!”

나는 엄마한테 달려가 안겼습니다. 엄마를 안았을 때 나의 코를 찌르는 차가운 비 냄새. 미안했습니다.

“엄마, 왜 여기 서있어요?”

“... 우리 딸 실내화 주머니”

질서, 우리의 미래

신능중학교 2학년 10반

정 다 현

4년 전, 일본에서 생소한 경험을 했다. 꽤 늦은 시각 우리 가족은 일본 전철을 타러 가까운 역으로 갔다. 역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었는데, 그 에스컬레이터에서 일본인들이 한 줄로 나란히 서서 탑승을 하는 것이었다. 생경한 광경이었기에 왜 저사람들은 저렇게 서서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걸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고, 문화의 차이이겠거니 하고 넘겨버리고 그들을 따라서 한 줄로 맞추어 탔다. 그런데 더욱 신기한 것은, 다급해 보이는 사람들은 우리가 비워 놓은 쪽으로 걸어서 오르내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모두들 당연히 여기는 분위기였다. 그제야 이것이 바쁜 이들을 위한 배려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은 이국에서 내게 배려의 감동을 준 일화가 되었다.

이 감동은 4년 후 고스란히 대한민국으로 전해져 왔다. 어느새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를 탑승할 때에 오른쪽으로 맞추어 타는 것을 느꼈다. 일본에서 본 이 광경이 한국에서도 자연

스럽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 뿌듯했다. 한줄 서기는 시간에 쫓기는 바쁜 사람들을 위한 배려이자 우리 자신을 잠깐이나마 여유롭게 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배려의 미덕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배려를 우리는 언제부터 이웃나라인 일본에게서 배워 오게 된 것일까?

흔히 한국은 ‘찌개’에 비유되고는 한다. 조그마한 반도국이지만 국민성만은 뜨겁다. 이러한 뜨거움은 장점일수도, 단점일수도 있다. 또한 한국은 ‘빠른’ 나라다. 외국인이 처음 한국에 왔을 때에 배우는 단어가 ‘빨리’라는 농담이 있듯, 우리나라는 빠른 것을 중요시 여긴다. 다른 나라가 100년을 걸쳐 성장시킨 경제를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어야 했고, 그러한 경제성장의 밑받침은 단순공업이었다. 단순공업에서의 생명은 신속함이라고 해도 과언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빠름을 중시하게 되자 배려나 느긋함은 빛이 바랜, 혹은 시대에 걸맞지 않다고 느끼게 된 것이다. 뜨거운 국민성에, 빠름을 중시하는 시대사상이 결합되니 더욱이 질서는 뒷전에 밀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이 예의를 중요시 했고, 또 그 질서에 따라 행했다. 오륜에서 ‘장유유서’는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질서가 존재한다.’는 뜻으로 요즈음에도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노약자석을 볼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질서에 대한 배려가 아닐까. 이러한 노약자석에 마음대로 앉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서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좋지 않았다. 친구들이 노약자석에 앉을 때마다 눈을 흘기며 말리던것도 다 그러한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던 질서의식이 나에게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러한 질서의식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질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넓은 의미의 질서, 좁은 의미의 질서. 넓은 의미의 질서는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포함한다. 만물의 질서와 사회속의 질서. 어떤 의미의 질서이던지 질서는 우리 생활에서 중요하다. 질서란 것은 사회를 이루는 받침돌이요, 법보다 우선하는 사람들 간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하물며 하늘을 나는 날짐승들에게도 질서는 있어서, 그들이 나는 모습을 보면 지도자가 처음에 서고 그 다음에 부딪히지 않도록 V자 모양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질서를 우리는 쉽게 여기고 무시하고는 한다. 질서는 생활 곳곳에 배어 있어야 하는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사람들 간의 약속을 어긴다.

자그마한 동물들도 질서가 있다. 커다란 우주도 질서가 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 또한 나름의 사회속에서 질서를 가지고 살아간다. 출서기 같은 작은 질서부터 노인과 약자를 공경하는 윤리적인 질서까지, 우리는 질서라는 약속으로 사회를 이루고 있다. 법보다 지켜져야 하는 것이 질서인 셈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질서를 쉽게 무시하고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작은 약속들부터 실천이 될 때야 비로소 바람직한 민주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화장실을 가면 한줄서기를 실천하자는 문구가 여기저기에 붙어있다. 처음에는 생소하게 여겼던 사람들도 이제는 익숙하게 받아들인다. 이러한 모습에서 나는 앞으로 민주 사회의 밝은 미래를 본다. 또한 익숙하게 한줄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노약자석이 비어 있음에도 앉지 않는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희망찬 앞날을 그린다. 이렇게 한 사회의 중춷돌인 질서가 제대로 잡혀 있다면 다른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밝은 사회가 될 것이다.

질서는 우리의 미래이다. ‘도덕적이지 않은 나라는 성공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만큼 도덕적 성장을 이루어 내야 한다. 그것이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이며 실천 과제인 것이다. 이러한 사회를 이루려면 먼저 민주 시민은 주어진 권리만큼의 책임을 이행해야 하고, 가장 작고도 중요한 약속인 질서를 지켜야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희망찬 한국, 희망찬 내일의 사회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아빠, 무엇을

능곡중학교 2학년 7반

김 준 수

아빠,
울적한 얼굴로
무엇을 생각하시나

얼마 전 돌아가신 할아버지
끝내 병환을 이기지 못하신
할아버지
아빠의 아빠 생각하시나

이제는 혼자되신 할머니
우울과 슬픔으로 힘드실 할머니
아빠의 엄마 생각하시나

아빠,
뒤돌아 나를 보신다.
나를 보시곤 웃으신다
옛 노래 부르시면서

아빠,
울적했던 얼굴로
무엇을 생각하셨나

사랑하는 언니

가람중학교 1학년 13반

이 예 은

유난히 잠 못 드는 밤이 있다. 추적추적인 비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내 생각들을 크게 때리는 때가 있다. 눈을 감기도 불을 끄기도 무서운 날이 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다. 지금은 새벽 2시30분. 난 너무 피곤하면 잠을 잘 못 잔다. 오늘은 파김치가 무엇인지를 실감하는 날이었다. 7교시 체육 시간에 피구를 한데다 지하철을 타고 낙원상가를 가서 몇 바퀴를 돌며 바이올린을 샀다. 다시 지하철을 타고, 언니와 엄마와 저녁을 먹고, 아빠 점퍼를 구입을 위해 쇼핑을 하고난 지금, 너무나 많이 피곤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곤하면 잠을 잘 자는데 나는 반대다. 잠을 자려고 청했지만 정신은 말뚱말뚱하다. 옆방에서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면서 곤히 주무시는 아빠가 야속하다. 같은 침대를 쓰는 언니의 췌근췌근 자는 모습이 부럽다.

가장 소중한고 편한 사람은 가족인 것 같다. 자는 언니 곁에

조용히 다가가 언니 옆에 꼭 붙어 누워 언니의 손을 가만히 잡는다. 따뜻한 온기가 내 손바닥 가득 전해진다. 사르르 눈을 감고 얼마 있으면 난 곧 잠이 든다. 서로의 사랑으로 길고 긴 밤을 녹인다. 지루한 시간이 녹는다.

가족이라 해서 모든 것에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경쟁도 있다. 아침시간이 그렇다. 침대에 누워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자자’ 하며 뺨당기고 있을 때 언니의 쇠쇠 샤워하는 소리는 정신이 번쩍 나게 한다. 벌떡 일어나 후다닥 샤워를 하러 간다. 머리를 감고 샤워하고 이 닦고 하는데 무언의 경쟁이 있다. 예를 들자면 ‘냄새가 좋은 샴푸가 다 써가는데 언니는 왜 저렇게 많이 쓸까’, ‘헤어 트리트먼트는 나만 쓰려고 했는데 왜 언니도 쓸까’ 등등 다소 유치하지만 우리들에겐 꽤나 중요한 일들로 서로 흘깃흘깃 흘겨본다.

언니와 나는 연년생이라 고민이나 좋은 소식 등을 부모님께 보다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좋다. 언니는 학교를 1년 일찍 들어가서 내가 5학년 때 언니는 중학교 1학년이었다. 그 당시 나에게는 환상의 세계였던 중학교에 대해 새내기 중학생이었던 언니는 흥분해가며 얘기를 들려주었었다. 지금은 내가 중1이 되면서 서로 아는게 너무 많아 할 얘기가 별로 없어졌다. 대신 ‘몇 반의 누구누구는 잘 생기긴 했는데

성격이 별로더라’라는 식으로 둘 중 한 명이 말하면, 같이 보러 가거나, ‘○○선생님은 애들을 너무 세게 때린다’라고 불평하면, ‘아, 그 선생님 우리 반도 들어오시는데 그 때 진짜 아파.’ 등등 공통점에서 애기 거리를 찾았다.

몇 개월 후면 중3인 언니가 벌써 고1이 된다. 그러면 나에게 해줄 애기가 얼마나 많을까. 가끔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기도 하지만, ‘엄마는 언니만 좋아해’라는 식의 유치한 께리로 빠치기도 하고, 먹을 것 더 많이 먹었으니 사 내놓으라고 짜증도 내지만, 아주 착하고 예쁜 언니를 낳아 준 부모님께 감사하다. 우리 가족은 너무 행복한 것 같다.

이건 비밀이지만, 어쨌면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서 ‘뽕’ 하고 터져버릴 지도 모른다.

행복의 심장 박동수가 너무너무 빨라서.....

바 둑

원당중학교 1학년 4반

한 근 권

바둑판에 맑고 청아한 소리가 울려퍼진다.

19줄 넓은 대지에 외로운 돌들이
한수 한수 놓여질때 마다 저마다 자신의 모양을 갖춘다.

바둑판에 낮고 둔탁한 소리가 울려퍼진다.

19줄 넓은 대지에 여러 돌들이
한수 한수 놓여질때 마다 서로의 숨통을 조인다.

바둑판에 조용하고 은은한 소리가 울려퍼진다.

19줄 넓은 대지에 많은 돌들이
한수 한수 놓여질때 마다 서로의 땅을 지킨다.

바둑판에 서로의 인생을 그려간다.

19줄이라는 운명앞에서 인생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둑이다.

전 통 놀 이

가람중학교 1학년 10반

박 채 린

여엇차 여엇차
대문은 활짝 열고
모두모두 모시옵게
우리 전통 놀이 모두모두 모시옵게

네 마을이 이기나
내 마을이 이기나
줄다리기 한판 하옵세고

춘향이 되 볼라
그네 뛰며 이 도령 찾아보고
창포에 머리 감아
얼레빗 참빛으로 곱게곱게 빗어보세

네 땅 크다
내 땅 크다
땅 따먹기 한판하고

말일세
걸일세
오순도순 모여 윷놀이 합세

작은 손 잡고 잡아
강강술래 돌리고

제기가 춤을 춘다
에헤야 제기한판 차 볼까나

속바지 보일라
조심조심 널뛰기 한번 해볼까

여엇차 여엇차
대문은 활짝 열고

모두모두 모시웁게
우리 전통 놀이 모두모두 모시웁게

우리 선생님 = 핑크 공주

현산중학교 1학년 2반

김 예 나

핑크빛 립스틱, 눈 화장, 볼 터치, 우리 선생님의 화장이다. 또, 핑크색 자켓, 블라우스, 원피스 까지..... 우리 선생님은 핑크공주입니다.

중학교에 처음 들어와 선생님을 뵈었을 때, 갈색의 아름다운 웨이브 머리와 함께 입으신 정장. 굉장히 우아하고 세련돼 보였습니다. 말씀하시는 문장 하나, 하나에 뭔가 부드러움과 박력이 섞인 듯 하였고, 맡으신 과목이 국어라고 하니, 더욱 멋있어 보였습니다.

처음 학기 초에 좋아하는 우리 선생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 발표시간에는 손도 번쩍번쩍 들고 했던 기억이 난다. 그 때에는 어찌나 열심히 하고 싶었는지 작은 것 하나라도 잊으면 큰 죄를 짓는 듯 하였다. 지금 생각해 보니, 그렇게 열심히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에도 우스운 일을 했던 것 같은데, 담임선생님의 그 날, 그 날 패션이라든지 입고 오신 옷들을 매일 눈 여겨 보았던 것이다. 선생님의 첫 인상

에서부터 느낀 것이 달라 그런지 몰라도, 거의 매일 선생님께서 입고 오신 옷들을 마음속으로 체크했다고나 할까. 일주일 정도 지난 관찰 결과, 선생님은 어떤 한 색상의 톤으로 맞추어 입고 오셨으며, 그 색상에 맞는 귀걸이와 목걸이, 머리핀과 기타 악세서리도 매일매일 옷에 맞추어 바뀌었다. 그렇게 매일 바뀌는 악세서리들은 선생님이 그 날 입으신 옷과 너무 잘 어울렸다.

하지만 선생님의 옷 색상은 거의 핑크빛이었다. 그리고 수련회를 가는 날, 선생님을 보고, 딱! ‘우리 선생님=핑크공주’라는 일종의 ‘공식’이 떠올랐다. 내가 친구들에게 이 얘기를 하자, 모두들 공감하였다. 이렇게 공식도 생기고 나니, 더욱 선생님이 공주님 같이 느껴졌다. 내 마음대로 ‘핑크왕국’도 상상해보고, ‘핑크왕자’도 생각이 났다. 선생님의 아들, 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선생님을 ‘핑크왕비’로 바꿀까도 생각했지만 그건 좀 아닌 듯 싶어 역시 선생님은 ‘핑크공주’가 딱! 이라고 다시 느꼈다. 핑크왕국을 상상하고, 선생님이 핑크빛 드레스를 입으신 모습은, 화사하고 아름다운 진달래 꽃이었다. 이렇게 내 멋대로 왕국을 상상하다보니, ‘오렌지 소녀’에서 게오르그의 아빠가 오렌지 소녀에 관하여 오렌지 왕국과 오렌지 왕국의 규칙을 상상하는 것이 생각나서 웃음이 나온다. 우리 선생님 방도 궁금해지고, 선생님께서 사용하시는 앞치마, 국자, 행주, 이불 따위의 물건이 가지고 있는 색상이 궁금해

졌다.

‘핑크공주’라고 해서 예쁜 척, 잘난 척, 공주병의 이미지가 아니라, 정말 우리 선생님 자체를 봤을 때 생각나는 딱! 좋은 애칭인 것이다. 나의 왕국이 아닌 선생님의 ‘핑크왕국’을 상상해 보는 것도 은근히 재미있는 일이다.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들 사이에서 통하는 선생님의 애칭을 아시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우리끼리만 알고 있으면서, ‘핑크왕국’을 상상하는 일이 더 즐겁고 좋다.

선생님의 외모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핑크공주’와 너무나 잘 어울린다. 어른이 되어서도 아이처럼 앳되시고 귀여움과 아름다움을 함께 간직하시는 우리 선생님은 나에게 영원히 화사한 ‘핑크공주님’이다.

아! 생각해보니 이 글을 쓰게 되면 선생님께 ‘핑크공주’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된다!!



아버지께

가람중학교 2학년 7반

강지애

아버이날 말 안 듣는

딸의 편지에는

‘엄마, 아버지께.’

아침저녁으로만 보는

나의 아버지는

어쩔지 낯설었다.

아버지는 기억속에서

매일매일 엄하셨고

어쩌다 같이 걷는 밤길은

왜 그리 चु기만 한지

달도 잠들어 버린

어느 겨울

새까맣게 늦은 밤

피곤을 등에 업은 아버지의

손에는

새하얀 봉지가 빨갭게

들려있었다.

무뚝뚝한 얼굴에

애써 피우신 웃음꽃이

세상에서 제일 멋지다.

가족들과 둘러앉은

야밤의 간식시간

쑥스러워 빨갭게

손에 눈물이라도 나는지

담고기 간식은

어쩔지 눈물 맛 이었다.

진정한 사랑의 손금

행신중학교 1학년 5반

오 서 란

모질게 눈이 내리는 추운 겨울날, 나와 몇몇 친구들은 한 친구의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았었다. 우리는 그 친구가 가르쳐준 길을 따라 바쁘게 발걸음을 옮겼다. 얼마나 걸었을까. 우리의 눈 앞에는 거의 쓰러져 가는 건물이 바람을 견디며 힘겹게 서 있었다. 그리고 그 건물을 멍하게 보며 서 있는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그 친구. 그 친구는 우리가 실망했다는 것을 눈치채고는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리고 조용히 우리를 그 건물 안으로 데리고 갔다. 널그려져 있는 쓰레기들, 한 번도 닦지 않은 것 같은 계단들 그리고 꽤패한 냄새까지. 나와 친구들은 놀랐다는 듯이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그리고 서로 귓속말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다. 나는 귓속말을 하는 친구에게 뭐라 한 마디 해주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내가 보아도 그 건물은 쓰레기통과 다름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우리는 길게 느껴졌던 3층 계단을 지나 드디어 친구의 집에 도착했다. 땡땡땡 소리에 맞춰 그 친구의 집 문이 열리는 순간, 또 우리는 놀라고 말았다. 친구의 집안도 바깥의 풍경과 별반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친구 어머니께서는 우리가 인사를 해도 건성으로 들으셨다. 실망할대로 실망한 우리를 그 친구는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도 다른 곳에 비해 그 친구의 방은 깨끗한 편이었다. 그렇게 친구의 방에 있는 지 15분 정도가 흐르자 피자 2판과 스파게티 하나가 도착했다. 음식은 그것뿐. 그 밖의 음식은 기대할 수 없었다. 그렇게 피자를 꾸역꾸역 넣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여는 소리와 신발을 벗는 소리, 그리고 친구의 방 쪽으로 가까워지는 발소리. 그리고 드디어 친구 방문이 열렸다. 검은색 작업복 차림의 어떤 아저씨. 머리는 새 하얗고 얼굴에는 주름이 저 있었지만 그 아저씨의 입만은 밝은 웃음을 띄고 있었다. 아저씨는 자리에 앉으시며 와줘서 고맙다고 잘 놀다가라고 하셨다. 그리고 외투 속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셨다. 그 봉투 안에 있던 것은 군고구마였다. 아저씨는 고구마 껍질을 벗겨 우리들에게 나눠주셨다. 아이들은 더러워 보인다는 이유로 아저씨의 고구마를 받아들기를 꺼려했다. 드디어 내 차례

나는 고구마를 받으며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 했다. 아저씨는 친구랑 사이 좋게 지내라 하시면서 나머지 고구마도 껍질을 까서 주셨다.

사람들은 손금이라고 하면 돈줄, 생명줄 정도만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손금은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돈줄과 생명줄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듯이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손금이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손금이 아닐까? 친구 아버지의 진정한 손금 덕분에 그 친구와 변함없는 우정을 나누고 있다.

오늘도 그렇게

행신중학교 1학년 5반

김도연

오늘도 그렇게 우리는 웃었다.
 항상 이렇듯 나의 옆에는
 활짝 핀 꽃이 있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는 울었다.
 항상 이렇듯 나의 옆에는
 조그마한 먹장 구름이 있었다.

서로를 정답게 즐겁게 부르고
 비 온 뒤 하늘에 핀 무지개 꽃같이
 울고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우리는 친구이다.
 서로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든든한 형

백신중학교 1학년 1반

박 수 형

내가 태어나기 전
엄마 아빠 사랑
듬뿍 받았던 형

그러나
내가 태어나고 사랑도 뺏기고
심부름만 다녔지.
그토록 하고 싶어했던
보이스카웃 회장도 못해보고
항상 내 기저귀 사러
이리저리 뛰어다니느라
바빴던 형.

내가 맞고 들어가면
가장 속상해 하는
믿음직한 나의 형
이런 형의 은혜를 어떻게
잊을까.

‘효’ 의식을 되살리자

호곡중학교 3학년 11반

권 희 은

옛부터 우리나라는 유교사상 중심으로 ‘효’를 중시해왔다. 그 증거로도 전해 내려오는 속담이나, 격언, 이야기 등이 ‘효’를 중심으로 한 내용이 많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는 우리가 잘 아는 ‘심청전’을 들 수 있다.

공양미 300석이면 자신의 아버지의 눈이 나올 수 있다는 말에 공양미 300석을 얻기 위해 인당수에 자신의 몸을 던지는 대단한 효심을 배울 수 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효심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다. 시대가 변하면서 사회도 바뀌고 많은 환경이 바뀌듯 의식과 관습 또한 바뀌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바뀌는 것들 중에서도 기본적인 가치관은 쉽사리 바뀌지 않는 법이다.

현재도 웃어른을 존경하는 공경심이나 조국을 위하는 충성심, 부모님께 효를 다해야 한다는 효심 등의 생각은 우리들의 가치관 속에 존재한다. 바뀐 점이 있다면 옛날엔

권희은 | '효' 의식을 되살리자

이것들을 행동에 옮기고 소중히 여겨왔다면 현재는 생각만 하고 그 생각조차도 잃어버리는 삭막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들은 TV뉴스를 보다보면 가끔씩 '보험금 노린 아들 부모 살해', '자식에게 맞아 숨진 노부부' 등의 끔찍하고 가슴 아픈 기삿거리들을 볼 수 있다.

어떻게 가치관이 어긋나는 행동들이 버젓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안타까웠다.

그 가치관에 반하는 이유에는 무엇이 있을까.

첫째로 배금주의로 인한 가치관 상실이다.

배금주의란 돈을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 모든 것을 돈과 연관시켜 생각하고,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돈 제일주의를 일컫는다.

돈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 부모와 맞바꿀 정도의 배금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 현상은 현 사회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 빠르게 해결되고 뭐든지 할 수 있게 되니, 돈만 있으면 인간의 가치관 따윈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에 빠지기 쉽다. 그러다보니 위와 같이 부모님의 보험금을 노리고 부모님을 살해까지 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박상률 작가가 지은 '밥이 끓는 시간'에서 순지의 외삼촌을 들 수가 있는데, 순지네 가족에게 돈을 받을 기회나 기미가 보이면 친근하게 다가와 아는 척을 하고 걱정하는

척을 하지만 결국엔 돈만 가지고 모른 척 사라져 버리는 이기적인 사람이다. 혈연이어도 자기가 먼저 편해야 된다는 생각과 돈 밖에 안 보이는 배금주의에 빠진 사람이다.

이처럼 배금주의에 빠진 사람이라면 기본적인 가치관이 사라져 버린 사람이라고 생각된다.

둘째로는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자세에 있다고 생각한다.

실용주의란 인간에게 실질적인 쓸모 있는 것만이 좋다는 생각으로 자칫 본능 감각적 쾌락에 빠지기 쉽다. 그 예로 독거노인을 들 수 있는데, 연로하신 부모님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더 이상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짐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자신들이 먹고 살기 편하자고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는다.

이런 점들을 고려 해 봤을 때 자신에게 이득이 되고, 쓸모가 있는 것만을 생각하여 부모님을 저버린다는 것은 기본가치관 효심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난 자신들을 평생 사랑하고 보살피 주신 고마우신 부모님 들께 연로하셨다고, 도움이 안된다는 핑계로 부모자식간의 연을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난 이 문제점들을 고쳐나가 더는 후손들이 이런 불효를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점들의 해결 방안으로 첫째로 유아 때부터 다양한 독서활동으로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돕자는 것이다. 활발한

독서활동은 아이들에게 풍부한 지식과 상상력을 선사하고 책은 과거, 현재의 사회상이나 문화가 잘 반영되어있는 사회책 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릴 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커 갈수록 도움이 되는 좋은 책들을 많이 읽게 된다면 아이에게도 후에 사회의 정세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 없이 이해하는 등의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실제로 독서로 많은 아이들의 심리 개선에 도움을 주는 '독서치료'도 있다.

독서치료란 책을 통해 사람의 정서적 사회적 정신적 부정적 문제를 치료하고자 하는 임상 상담의 한 분야이다.

사람들의 감정, 생각들을 글로 맛깔스럽게 표현해놓은 책을 읽게 된다면 그 누구도 빠지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마음은 마음으로 와 닿듯이 말이다. 나도 마음이 심란하거나 우울하고 외로울 때면 웬지 읽을거리의 책이 생각이 난다. 내가 아직 많은 책을 접해보진 않았지만 내가 읽은 여러 좋은 책 중에서 박상률 작가가 지은 '밥이 끓는 시간'이라는 책을 권하고 싶다. 위에서도 한번 언급하였는데, 이 책의 주인공 순지는 어린나이에 아버지의 횡포,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 새어머니의 가출,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어른도 견디기 힘든 어려운 상황을 겪었지만 끝에 사소한 밥이 끓는 냄새 하나만으로도 행복을 느낄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닥쳐온다

해도 그 시련이 끝난 후엔 더 큰 행복이 따라오게 마련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는가.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다. 무엇을 당신이 먹게 될 지 당신은 결코 알지 못한다.” 이 뜻은 초콜릿 상자안의 여러 가지 맛의 초콜릿이 들어있을 것이다. 당신이 방금 먹은 것이 쓴 맛의 초콜릿 일지라도 다음에 집을 초콜릿은 달콤한 것이 더 많이 남아 있을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고로 그 시련을 어떻게 헤쳐 나가냐에 따라 자신의 인생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자신은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지 아니면 나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 하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즉, 독서활동을 활발히 한다면 가치관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여 위와 같이 부모님을 살해한다거나, 독거노인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로 모든 것이 성적순인 사회적 풍토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학업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사실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모두가 겪어본 사실일 것이다. 그 원인에는 학력만 중요시 따지는 현대 사회에 있다고 생각한다.

개개인의 특질과 능력을 보지 아니하고 어느 대학교를 나왔는지 성적은 어떠했는지 만을 보고 판단하여 진정한 그 분야의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모두들 일단 학력이 높아야만 자신의 끼를 발산

권희은 | '효' 의식을 되살리자

할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공부에 열을 올리고 친구와 우애를 다지기 전에 경쟁상대로 인식하게 되는 그런 삭막함이 더해가는 시대가 되어 버렸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절교육에 힘쓰기 보다는 영어 한 글자 더 가르치는 시대가 되어 버린 것이다. 길을 걷다보면 어른들께서 하시는 말을 한번쯤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요즘 어린 것들은 버릇이 없어'. 그렇다. 원래 가정에서 예절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가정에 별로 머무르는 시간도 없고 지금의 부모들은 예절을 더 중요시하는 부모도 없어 보이거나 유치원 또한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 아이들이 예절을 접하는 부분이 줄었다고 생각된다. 어릴 때 부터 그렇게 자라와 사회에 나간다면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불어 우리 전통의 얼을 이어나갈 젊은이도 줄어드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에서부터 예절을 가르쳐 나가고 더불어 가정에선 항상 예절을 행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배울 것이다. 예를 들어 이웃나라 '일본'을 본다면 일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의 바른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유치원 때부터 철저한 예절교육의 결과이기도 하다.

(출처 : http://cafe.naver.com/chose.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76)

일본에서는 아이들에게 “예의 바른 사람”이 되라고 가르친

다. 그만큼 예절을 중요시하는 국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이를 본받아 어릴 적부터 가정 내의 '예절교육 시간'을 마련하여 부모와 혹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아이들이 마주 앉아 예절의 자세에 대해 배우는 방법 또한 좋다.

아니면 일본처럼 유치원 때는 학습의 배움에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본 가치관에 대하여 배우는 쪽으로 관심을 더 둔다면 바람직한 사회인이 늘어 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전엔 우리나라가 '효'와 '예'의 나라였지만 현재는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붕괴 되어 가고 있다. 이기주의적 사람이 되어가 결국엔 자신의 부모조차도 나몰라라 하는 그런 사회는 더 이상 있어선 안 된다. 부모라는 두 단어는 옛날 하늘을 우리러 보게 했던 시절에서 어떻게 이렇게 까지 변했는가에 대해 슬픔을 감출 수가 없다.

우리가 빠르게 변화되고 발전되는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인간의 도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시간이 적다.

그러므로 난 다시 한번 더 진정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고쳐나간다면 후에 후손들에게도 공경심이나 충성심, 그리고 효심이란 훌륭한 가치관을 선사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럼 우리나라는 부끄럽지 않은 '동방예의지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친 구

원당중학교 1학년 3반

차 주 안 에

I : 나 류재희, 한유린을 만난 날.

잠에서 깨었다. 무언가 이상한 꿈을 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질 않았다. 시계를 보았다. 늦었다. 시침은 8을 향해, 분침은 2를 향해. 그런데도 무슨 배짱인지 내 몸은 일어나 지질 않는다. 잠이 쏟아진다. 어느새 잠에 빠져있다. 다시 일어난 시간은 8시 30분. 오래 더 잔것은 아니지만 내가 잠 든 시간이 천년은 족히 된 듯한 이상한 기분이 든다.

그러나 그런 것을 따질 여유는 없었다. 나는 잠옷을 후다닥 교복으로 갈아입었다. 초침을 바라보는 내 눈엔 시간이 평소보다 10배 즈음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았다.

엄마는? 여전히 주무시고 계시다. 오늘 약속이 있으시다고 했으면서 엄마도 참 태평하시다. 그리고 보면 난 엄마를 닮은 걸까.

가을을 채 느끼지도 못한 채로 겨울이 다가와서 그랬을까. 아무래도 추위를 많이 타건만 이번 겨울은 작년보다 훨씬 더 춥게 느껴졌다. 나는 내복까지 껴입은 채로 가방을 들고 서둘러 집을 나섰다. 이미 지각한 주제에 무슨 심보로 여유를 부리는가 묻는다면 당당히 대답할 수 있다. 지각이 오리걸음인데 그럼 어찌란 말인가. 그 찬바람이 뽕뽕도는 차디찬 운동장 바닥을 이런 미약한 준비조차 없이 쪼그러 걸을 수야 없지. 나는 후들후들 떨며 정말 그 모습 한 번 보기 힘들 정도로 가끔가끔 다니는 버스를 기다리지 않기로 과감히 결정하고는 한동안 갈 길이 먼 등굣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잠이 깨지 않는다.

이윽고 정신이 퍼득 든 나는 학교를 향해 걷는다. 걸을 경우 소요 시간 15분. 걷는 것이 싫은 내겐 이만한 거리조차 결코 바람직한 거리가 아니다.

학교 가는 길에 교복바람 아이들이 하나도 보지 않는다. 많이 늦은 걸까 싶어서 조급해진다. 뛰었다. 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때리고 지나간다. 설마, 경희보다 늦는 것은 아니겠지 하는 다급한 심정으로...

학교 교문에 도착해 숨을 몰아쉬며 차라리 담을 넘을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을때 내 옆으로 조그마한 남자아이가 스스스 지나간다. 우리 학교 학생인데 사복 차림이다. 의아

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더니 고개를 돌리면서 씨익 웃는다. 그 애가 A4용지를 교문 앞에 붙이더니 싸인펜을 들어 비뚤비뚤한 글씨를 큼직하게 적는다.

[오느른 쉽니다]

그 아이는 그 나름대로 모음이 꽤나 복잡한 ‘쉽’ 자를 스스로 적은 것이 자못 자랑스럽다는 표정으로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나를 돌아본다. 칭찬해 달라는 눈빛이다. 저건.

나는 그 아이에게 어색한 웃음을 띄워준 후 얼른 발걸음을 돌렸다. 떨떠름하다. 오늘이 개교 기념일인 것을 잊다니, 세상에.

그러나 이왕 나온 거, 집으로 들어가기는 억울했다. 내가 어떻게 추위를 참아가며 달콤한 잠을 깨고 일어나 내복까지 완전무장한 채로 온 학교인데...!!! 허무한 마음이 들어 김이 다 새었다. 차라리 지각을 했더라면 이토록 억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터덜터덜 공원으로 들어갔다. 아직 채 노랗게 물들지도 못한 은행잎이 안쓰럽다. 한참을 은행나무에 기대어 섰는데, 인기척이 났다. 그러나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여전히 가만히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감상에 젖어 있었다. 저게 누구인줄 알고 아는 척을 한다는 말인가. 그 인기척의 주인공인 자그마한 소녀가 곧 내 바로 앞에 있는 벤치에

와 앉았다. 흘끔 쳐다보았다. 눈이 마주쳐 버렸다.

“안녕.”

한참 간 아무 말이 없기에 먼저 말을 걸었다. 자세히 보니 낮이 익은 얼굴이다. 다시 보니 같은 반이다. 한유린, 유난히 말도 없고 체력도 약해 눈에 잘 띄지 않는 아이다. 표정 없던 아이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떠오른다.

“아... 안녕.”

잠시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인사를 하지 말 것을 그랬나보다. 인사를 하기 전 보다 훨씬 더 어색한 침묵이다. 나는 이런 침묵이 싫었다. 그 아이가 가만히 입을 열었다.

“오늘 개교 기념일인데, 교복 입었네.”

말투가 그리 다정하지도 딱딱하지도 않은 어중간한 말투다. 그러나 나는 이 아이의 조용한 한 마디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른다. 나는 어색한 침묵을 싫어했으므로, 나는 내가 내복까지 차려입고 비장의 준비를 마친 뒤 오리걸음을 각오하며 내 다리의 고통을 감수하고 광속의 스피드로 어떻게 학교를 도착했는가를 나 자신도 놀랄 만큼의 풍부한 표현력을 발휘해 아주 자세히 설명해주었다. 웃음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애써 누르는 듯한 모습이 우습다. 말을 하던 도중에 멈추고 그 아이를 뻔히 쳐다보니 아이가 시선을 피한다.

“야, 좀 웃어봐. 그래야 나도 얘기하는 보람이 있지 않겠어?”

입을 열지 않는다. 표정은 굳어있다. 내가 무얼 잘못 말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 괜스레 무언가가 미안해 졌다.

“뭐, 싫으면 말고...”

유린이가 가만히 나를 바라보았다. 눈동자가 깊다. 이번엔 내가 그 아이의 시선을 피해 버렸다. 쿡 하고 웃는다. 의외다.

“네가 교문에서 만난 남자애, 내 동생이야.”

동생? 유린이 이 아이에게 동생이 있을 줄은 모르고 있었다. 말없는 조용한 모습은 꼭 부모님의 그늘에서 혼자 자라난 외동 아이 같아만 보였다. 동생이라. 그 저능아가...

“아, 그런 표정 짓지 마. 착한 애야. 글은 못써도 이야기는 할 수 있다고.”

보통 소설이나 만화에서 본다면 장애인 동생을 둔 여자아이는 씩씩한 웃음을 띄며 무드있게 이야기를 마치는 법이다만 평소와 어울리지 않게 이 아이는 장난스러웠다.

“저기...”

“뭐?”

머뭇거리며 그 아이를 부르자 그 아이는 여전히 장난스런 표정을 지우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렸다. 저기... 장애인 동생 있으면... 안 불편해...? 아니...뭐... 좀 그렇지 않아? 라고 묻고 싶었으나 혹여나 또 이 아이의 표정이 무표정으로 돌아올 까봐서 그저 말을 흐렸다. 아니라고.

“뭐야, 시시해.”

처음이다. 이런 장난스러운 표정을 본 것도, 이렇게 스스로 없이 말하는 것을 본 것도. 학교에서 유린이는 조용했다. 아무하고도 말하려 하지 않았으며 표정은 언제나 굳어있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앞에서 웃고 있다. 어색하다.

“나 웃으니까 이상해?”

응 많이 이상해. 라는 말이 목구멍 끝까지 올라오려는 것을 애써 누른 후 나는 그저 어색하게 생긱 웃어보였을 뿐이었다.

“너 표정 진짜 웃겼어.”

그러니까 웃은 게 나 때문이란 말이지. 나는 얼굴이 잘 익은 사과처럼 빨개지는 것을 감추려 급히 떨어진 낙엽에 시선을 쫓고 지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깔깔댄다. 계집애. 뭐가 그리 재밌느냐고!!!

유린이는 웃다가 사래 들린 데에다가 더 웃기에도 완전하지친 터라 웃기를 그만 두었다. 자못 빠진 척을 해 보았더니 눈치를 슬슬 본다.

“학교에서도 이렇게 많이 웃어.”

나는 고개를 나무를 향해 돌린 채로 말했다.

“애들하고도 자주 어울리고.”

대답이 없다. 또 다시 짧지만 긴 침묵.

“뭐, 우리는 친구잖아. 그렇게 표정을 숨길 필요는 없다고.”

고개를 돌렸다. 유린이는 생긱 웃고 있었다. 여전히 말은 없다. 대답하기 싫어서 그저 웃는 것일까.

“이렇게 잘 웃으면서.”

나도 생긋 웃어보였다. 그리고 뛰었다. 소리쳤다.

“학교까지 누가 먼저 가나 내기하기다!”

“으엑, 반칙이야!”

우리는 그렇게 [오느른 쉽니다]라는 글자가 토박토박 눌러 쓰인 교문 앞에서 발아래 엄청난 먼지를 일으키며 후다닥 뛰어갔다. 물론 걷기를 싫어하는 내 다리가 전력 질주 후에 겪은 수난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개교기념일, 나 류재희가 한유린을 만난 날.

Ⅱ. 나 한유린, 류재희를 만난 날.

날이 추웠다. 동생은 이미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아마도 학교에 간 것이리라. 나 역시 집 안에 틀어박혀 빗자루를 들고 거미와 씨름을 벌이고픈 마음 따위 추호도 없었으므로 온 몸이 달달 떨리는 것을 감수하고 외투를 두 벌 껴입은 채 얼른 공원으로 발길을 돌렸다. 내복을 입을 걸 그랬나, 아니면 바지 안에 스타킹이라도 신을 걸 그랬나.

아침이라 그런가. 아침 운동을 나오신 어르신 두어분을 제외하고는 공원은 무서우리만큼 한적하다. 그 몇 안되는 어르신의 산책 길 가장자리에 자리한 은행나무 아래, 내 또래

여자아이가 우리 학교 교복을 입은 채로 우두커니 서 있다. 나름대로 나무에 기댄 품 하며 눈을 지그시 감고 손을 앞으로 편 것 하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아마도 소설을 너무 많이 보아 가을에 로맨스에서 헤어나지 못한 아이이리라. 그 아일 무시한 채로 그 아이 바로 앞 벤치에 가 앉았다. 너는 거기 앉아라. 나는 낙엽구경이나 할 테니 식의 표정을 짓고 있던 그 아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내 따가운 시선을 받은 거였는지 아니었는지 나를 흘끔 쳐다보았다. 눈이 마주쳤다.

“안녕.”

응? 아는 애였던가? 나는 예상하지도 못한 갑작스런 인사를 받게 된 턱에 당황하여 고개를 돌렸다. 아, 같은 반이었지. 이름이, 이름이...

“아... 안녕.”

학교 친구들과는 워낙 잘 어울리지 않는지라 이름조차 헛갈린다. 하지만 기억해 낼 수야 있을 듯 싶다. 하기야 저 애가 좀 시끄러운가? 가만있자, 저 애가... 류재희였었던가.

“오늘 개교기념일인데, 교복 입었네.”

툭 한마디를 던져보았더니 어색한 표정을 띄고 있던 그 애의 얼굴에 화색이 돈다. 어색했었나보다, 그 애도. 설명하려는 것을 듣자니 웃음이 터져 나오려 한다. 그런데 말을 하던 도중에 갑자기 나를 뻔히 바라본다. 그리고 말하더라.

“야, 좀 웃어봐. 그래야 나도 얘기하는 보람이 있지 않겠어?”

입을 열지 않았다. 표정을 굳혔다. 그러니 그 애가 얼굴에 무언가 미안한 빛을 띤다.

“뭐, 싫으면 말고...”

이번엔 내가 그 아이를 뻘뻘 바라보아 주었다. 그러니 이젠 그 애가 내 눈을 피한다. 우습다. 평소에 알던 류재희와는 다른 모습이다.

웃어보라는 주문, 받아들여주기로 했다. 쿡 웃어보았다. 눈이 커진다. 더 우습다.

“네가 교문에서 만난 남자애, 내 동생이야.”

말해주었다. 역시 학교에 가 있었구나. 그런데 내 이야기를 듣는 재희의 표정이 이상하다. 왜? 내 동생이 장애인이니까? 기분이 별로 유쾌하지 않았으나 재희의 얼굴에 떠오른 우스운 빛을 보자 화를 낼 수가 없었다.

“아, 그런 표정 짓지 마. 착한 애야. 글은 못써도 이야기는 할 수 있다고.”

아이의 표정은 계속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고 나는 픽 웃는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저기...”

“뭐?”

뭔가를 물어보려는 것 같기에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그 아이는 잠시 입술을 오물거리더니 말 끝을 흐린다.

“뭐야, 시시해.”

장난스레 답하자 한층 더 우스꽝스러운 표정이 된다. 웃으니까 이상하다는 건가.

“나 웃으니까 이상해?”

물어보았다. 당장 그렇다고 대답할 기세를 보였다. 그러나 그 아이는 다시 잠시간 입술을 오물거리더니만 아니라고 말한다. 자꾸 웃음이 나온다.

“너 표정 진짜 웃겼어.”

아이의 얼굴이 빨개진다. 큼큼 헛기침을 두어 번 한 후에 자기 발 밑에 지나친 관심을 보이며 한참 간 고개를 숙이고 있다. 도저히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한참을 웃다가 사례에 들렸다. 더 웃으라고 해도 절대 더 웃을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만큼 많이 웃은 것 같다. 아이가 짐짓 빼진 체 한다. 나도 짐짓 당황한 척 하다가 진짜로 당황해 버렸다. 이 아이, 정말 빼진 것 같다.

“학교에서도 이렇게 많이 웃어.”

고개를 돌린 채로 말하더라. 나는 이 아이가 정말로 화가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목소리 마디마디에 장난기가 묻어 있어서일까.

“애들하고도 자주 어울리고.”

가만히 미소를 지었다. 글썄. 지금 와서야 끼어든다고 끼워줄러나 몰라...

“뭐, 우리는 친구잖아. 그렇게 표정을 숨길 필요는 없다고.”

아이가 고개를 돌렸다. 생긱 웃어 보였다.

“이렇게 잘 웃으면서.”

재희도 생긱 웃어보였다. 무언가 귀여운 아이를 가볍게 꾸짖는 유치원 선생님의 말투다. 그 말투에 뭐라고 반박하거나 기분 나빠 할 틈새도 없이 그 아이가 갑자기 뛰었다. 뭐, 뭐야? 그리고 내가 채 당황한 소리조차 입밖으로 내뱉지 못했음에도 먼저 소리쳤다.

“학교까지 누가 먼저 가나 내기하기다!”

뭐야, 달리는거야? 먼저 시작하는게 어딴어!!!

“으엑, 반칙이야!”

어느새 나조차 텅달아 달리고 있었다. 저기 저 먼 학교까지.

물론 발 밑에서 먼지가 뽀얗게 일어나고 남도록 열심히 달린 덕에 다리가 사알짝 뺨어주실 뻔했다는 이야기는 가벼운 여담으로 남기는 것이 좋을까 싶다.

개교기념일, 나 한유린이 류재희를 만난 날.

가을을 닮은 사람

신일중학교 1학년 3반

국 주 호

파릇한 봄의 새싹 더위 장마 곳곳하여
고개를 숙이는 가을의 벼처럼,
모두를 채워주는 가을의 벼처럼,
여럿을 도울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은
가을 닮은 사람 아닐까

여리던 봄의 앞사귀 여름내 싱싱하여
어느새 빨강고 노란 울긋불긋 가을 단풍처럼,
보는 이의 얼굴에 웃음을 선사하는 가을 단풍처럼,
남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가을 닮은 사람 아닐까

아장아장 봄의 걸음마 무럭무럭 여름 지나
성숙한 가을엔 주변을 따뜻하게 하는 사람이
가을 닮은 사람 아닐까

지금 우리 열심히 배우고 자라는 이유가
나중에 가을을 닮기 위해서가 아닐까

고양 향토유적

현신중학교 3학년 1반

김 홍 식

예로부터 고양 땅 유서가 서렸으니
조상들 맘과 열 여기저기 베어있네
역사는 흘러흘러 이들을 전해주네

흥건적 왜적들 모조리 무찔렀던
최영 장군 그 높은 뜻 오얏 깃발에 짓밟히니
풀한줌 안 지라는 그 속에서 통분하네

통일로 언저리에 표석이 세워진 곳
명나라 사신들이 조선 올 때 쉬던 곳
그곳이 시대의 땅 조선의 벽제관

한강물 비라보는 덕양산 꼭대기는
이천군사 이낙네들이 삼만 왜군 몰아낸 곳
권장군 호통소리 행주땅에 울려퍼지네

고봉산 뒤 문봉평야 저 위쪽의 고양동
조선의 유생들이 공자 맹자 읊던 곳
그곳은 문봉서원 저곳은 고양향교

이름답고 높은 산 휘휘두른 북한산성
진흥왕의 순수비석 조선 행궁 있던 곳
백운대 그 테극기 최고봉을 자랑하네

정발산 끝자락 밤기시마을의 초기집
이스팔트 고층건물 즐비한 신도시에
조상들 농촌생활 생생하게 증언하네

개화기 들어와서 일제침략 시작되니
대륙으로 나아가는 경의철도 들어서네
백년된 철도에 칠십년 된 일산역사

동쪽상잔 육이오는 일산땅도 파괴하니
공산군 치하에서 살아가던 많은 농민
수복후 충살되니 문인 그곳 긍정굴

공산군에 맞서싸운 일산의 학생들
세달동안 나라 위해 수십명이 죽어가네
예국지 문인 곳 덕이동의 테극단

예로부터 고양 땅 유서가 서렸으니
조상들 땀과 열 여기저기 베어있네
역사는 흘러흘러 이들을 전해주네

가 족

화수중학교 2학년 14반

정 현 이

우리 가족은

온몸으로 세상을 감싸 안고,
빛을 내어 환한 세상을 만들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토록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는
태양은 아빠.

태양 뒤에서
항상 푸르른 모습으로 지켜주고,
그 무엇도 안을 수 있는
넓고 따스한 품으로,
새하얀 이를 드러내는 미소로
세상을 바라보는
하늘은 엄마.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의 생명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지나가는 길에 나무의 말동무도 되어주고,
 강물을 이루는
 비는 언니, 오빠.

가끔은 못된 심술이
 나무를 휘청거리게도 하지만
 간간이 시원함을 선사하고,
 나무에게 그간 있었던 일 듣고
 얘기하러 다시 길을 떠나는
 바람은 동생.

그렇게
 태양, 하늘, 비, 바람 속에서
 따듯하고 포근하고,
 촉촉하고 시원한
 세상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나무는 나.

이렇게
 우리 가족이 모이면
 하나의 자연



어 버 이

신능중학교 1학년 7반

홍 종 호

어머니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나에게,
모든 것을 주는 태양 같은 존재이시기에
선물 하나 해 드린 것 없는 나에게,
사랑이란 큰 선물을 주시는 하늘같은 존재이시기에
잘한 것 하나 없는 나에게,
언제나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아버지

어둠 속을 헤매는 나에게,
 희망과 이상을 심어주는 등불 같은 존재이시기에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나에게,
 또 다른 목표를 안겨 주시는 스승이시기에
 자유를 찾아 방황하려는 나에게,
 또 다른 자유의 의미를 일깨워 주시는 분이시기에

어버이

아무리 불러도 다시 생각나기에,
 내가 표현하기엔 너무나 높으시기에,
 수많은 글로도 설명 할 수 없기에,

사랑합니다

정(情)

원당중학교 3학년 1반

최 사 라

봉숭아가 흐드러지게 핀 길을 걸으니 흰 건물이 보였다.
건물안으로 들어서니 나와 친구를 쳐다보는 눈길이 느껴졌다.

주위를 둘러보니 평범하지만 어딘가 명한 듯한 느낌이 드는
아저씨들이 있었다. 이곳에 처음 발을 들인 것이 작년 여름방학
중이었다. 이곳은 노숙자 재활을 위한 곳으로 ‘비전트레이닝
센터’라고 하는데 갈 곳 없는 노숙자들을 모아 돌보는 기관
이었다.

자원봉사 신청을 하고 간 곳은 어딘가 무거운 분위기를
지워버리려는듯 발랄한 음악이 흐르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여러 노숙자 아저씨들이 재생비누를 포장하고 종이가방을
조립하고 있었다.

평소 노숙자에 대한 생각은 불쌍하지만 어딘가 지저분하고
괴리감이 느껴졌는데 그 사람들이 뭔가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
을 보니 꼭 그런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곳에선 재생비누를 포장하고 종이가방을 조립해서 그들의 생활비에 보태는 것이었다. 그곳에는 이미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었다.

이 작업은 특히 비누포장은 협동심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 번거롭기 때문이다. 처음엔 적응도 잘 안되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도 되고 주위를 보니 노숙자 아저씨들을 독려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사회복지사' 였다. 알고 챙겨주며 노숙자들을 독려하고 그들과 여가 생활을 하는 등 여러 가지로 노숙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저 무섭기만 하고 불쌍하기만 했던 노숙자들에게 먼저 다가가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는 것은 나에게 작은 놀람을 주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노숙자 아저씨들의 얼굴이 펴지고 보는 이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이 생소했기 때문일까?

이곳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이해해 주며 배려하는 이런 마음씨 하나하나로 우리 사회는 열배, 백배 더 따뜻해 지는것 같다.

이 비전트레이닝 센터에서의 경험은 나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고 그 곳의 마음 따뜻한 사회복지사 분들과 노숙자 아저씨들도 내 마음 한켠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이 남아있을 동안에...

우리 선생님

현산중학교 1학년 4반

공민지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민지입니다. 선생님을 알게 된지도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가네요.... 처음 만나던 날이 또렷이 기억납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죠... 가장 끝자리에 앉아 선생님 얼굴도 제대로 못 봤던 때였죠.

"안녕?! 나는 1년동안 너희 담임을 맡게 된 O O O 이란다."가 아니라, "난 너희 담임이다!"라는 말로 당황하면서도 친근케 하셨던 말투가 생생하네요. 첫 인상때부터 딱! 꽂혔던 선생님은 무섭다. 큰일났다. 하는 생각을 연상케 하셨죠... 그 뒤로 친구들을 사귀고, 수련회도 갔다 오고, 중간 중간 갈등도 일어나며 하루 하루를 즐겁게 보냈습니다. 저는 의외로 내성적이지만 더 친해지면 수줍음도 사라져 오히려 적극적이 될 때가 있어요. 선생님과 더 친해지고 싶고, 또 제가 좋아하는 과목 선생님이셨기에, 선생님 과목의 부장이 되었어요. 선생님과 둘이 있는 시간이 다른 아이들 보다 더 늘어났고, 전 좋았어요. 그래서인지,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애들 혼내셔도 어쩐지

속으론 스마일이 되었었지요... 전... 알았으니까요... 선생님은 제2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셔야 한다는 것ですよ... 곧, 또다른 사실도 알았어요. 선생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챙기시고 생각하시는지... 저에게는 선생님이 처음이었어요. 지금까지 저의 선생님들 중 그 누구도 선생님만큼은 안하셨거든요... 그 덕인지 선생님이 더 친근하고 어느 새 제 마음 속 선생님들 중 NO.1이 되셨어요. 전 선생님 마음에 들려고 집중도 열심히 하고, 약간의 수줍음도 타고, 좋은 성적을 내고 싶었지요. 하루는 부장이라서 선생님께 갔더니, 선생님은 장난으로 지난 성적으로 슬픔이 쌓인 제 마음을 풀어주셨고 덤으로 위로와 애정의 초콜릿도 주셨죠... 그럴수록 선생님에 대한 존경은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모두와 헤어져야 해요. 시간을 붙잡고 싶지만, 2학년이 되기 싫지만, 선생님은 보낼거라 결심하셨겠죠... 선생님을 계속 알아가고 싶은데, 선생님반 하고 싶은데, 하는 욕망이 계속 저를 붙잡네요. 선생님과 함께 게임도 하고, 퍼즐도 맞추고, 먹고, 마셨던 때는 지금의 저에게 아주아주 재미있고 소중한 추억이 되었답니다. 내년이 되어 언제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색해도 인사 받아주시고 제 생각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정말 선생님 기쁘게 하드리고 싶고요, 더욱 즐거운 시간 보내고 싶어요. 비록 수줍어서 말로는 못하지만 선생님은 저의 최고의 선생님이세요.

사랑합니다.

2007년 10월 26일 금요일

제자 공민지 올림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벽제중학교 1학년 1반

이 다 슬

“쟁그럼 켜쟁--”

거실은 유리병이 깨져 바닥에 널려 빛을 내고 있고 엄마는 어디에 가셨는지 보이지 않는 오후, 아빠만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다. 나는 피인지 눈물인지 내 눈에서 나오는 액체를 닦으며 동시에 내 이마에서도 흘러나오는 피를 막기 위해 수건으로 이마를 감싸고 있었다. 그 때 오빠는 잠에서 깨어 방에서 나오다 멈추었다. 무슨 일인지 모른채 어리둥절한 표정, 그리고 곧 오빠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울상을 지으려는 표정이다.

이혼이란 것은 조그만 갈등과 오해로부터도 생겨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불행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오기 때문에 나의 부모님도 단 하루만에 이혼을 한 것이라고 믿고 싶다.

어제까지만 해도 같은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으며 즐겁게 이야기 하던 우리 가족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가족 사진의 산산 조각난 액자의 유리처럼 파편으로 날아가 각자의 마음

에 비수로 꽃혀 있다.

초등학교 2학년 그 때는 이혼이 그리 흔치 않았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니 나는 우리 가족은 저렇게 이혼할 리 없다는 착각에 빠져있었다.

그러나 갑자기 찾아 온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혼, 이 사건 이후 오빠와 나는 학교에 나가지 않았고, 아빠는 아무것도 안 하시며 그냥 술만 드시고 잠만 주무셨다. 하루 하루 황폐해 지는 시간들...

어느날,

할머니께서 오셔서 오빠와 나만 데리고 섬인 할머니 집으로 가서 살게 되었다. 아빠와는 일년에 두 세 번 정도만 만났다. 아빠와 만날 때마다 엄마는 일이 있어서 못 왔다고 하시며 우릴 다독이시고, 맛있는 음식과 좋아하는 것을 사주셨다. 엄마는 왜 이렇게 안 오실까 궁금증은 나날이 커졌지만 할머니와 있다 보면 그런 것은 잊어버리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다.

그 날도 아빠가 오셔서 오빠와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셨다. 그런데 아빠의 차안 황색 봉투에 들어 있던 이혼서류! 드라마나 소설에서나 보는 이혼서류, 그것을 보고 나니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항상 아빠만 이 곳에 오시는 이유, 엄마와의 소식이 끊긴 이유, 할머니께서 엄마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색이 변하시면서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시곤 했던 이유들...

모든 것은 어린 우리가 혹시 상처받아 어둡게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었던 것이다. 이제야 모든 궁금증이 풀렸지만 나는 왠지 모를 배신감에 휩싸이며 이 모든 것이 귀찮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싫어지고, 죽고 싶어졌다. 마침 그 곳은 섬이었기에 나는 자전거를 타고 다리로 갔다. 차가운 바다를 바라보며 한참을 있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왜 나일까? 그냥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싶다. 왜 자기들끼리 모든 것을 정해 놓고 우리는 그 아픔을 당해야만 할까? 모두가 다 싫고 밉다. 정말 이 세상이 밉다. 그 때 동시에 또 하나의 생각도 들었다. '이런 내가 두고 보란 듯이 성공해서 나는 그들처럼 살지 말자' 라는 생각! 나는 다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씩씩하게 페달을 밟으며 들어갔다. 그리고 아빠에게는 말을 하지 않고 나만의 비밀로 감추었다. 나 혼자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가슴에 꺾꾹 눌러 담았다.

초등학교 4학년 여름, 할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쓰러지셨다. 깨어나지 못하시는 할아버지는 결국 돌아가시고 우리는 이제 아빠와 살게 되었다. 아빠는 그 때도 엄마는 직장이 멀어서 탄 데로 가셨다고만 하셨다. 아빠는 엄마의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 풍요로운 용돈을 주셨고, 그럭저럭 아빠와만도 살만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내가 초등학교 6학년 오빠는 중학교에 진학했을 때, 아빠가 술에 취해 모든 사실을 우리에게 털어놓았다. 오빠는 사춘기

때문이었고 갑작스런 충격으로 조금씩 비둘게 나가기 시작했다. 급기야 오빠는 집을 나갔고 학교에도 가지 않았다. 그리고 일주일만에 돌아온 오빠!

그 무렵 이혼 후 더욱 친해진 삼촌이 등산하다가 떨어져 죽을 고비를 넘나들었기에 아빠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날카로워진 아빠에게 오빠는 많이 혼나고 서로를 향해 소리 지르고... 정말 어린 나이의 내가 겪어야 할 일은 아니었다. 엄마만 지금 이 자리에 있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텐데 하는 생각만 들었다. 그렇게 증오하던 엄마! 하지만 역시 엄마는 엄마인가 보다. 엄마가 그림다.

요즘 세태는 이혼을 서슴치 않게 하곤 한다. 심지어 재혼해서 새엄마와 새아빠와 살고 있는 친구도 내 주변에 많이 있다. 나는 내가 한 일도 아닌 일에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래도 이혼이란 불행에 얽매여 있지 않기로 했다. 나는 나이다. 부모님이 이혼한 것은 부모님의 일이고 나는 나의 삶을 개척해 나갈 것이다. 나의 꿈은 언젠가는 가족이 함께 사는 것이다. 그 꿈을 위해 엄마가 다시 돌아오면 어색하지 않게 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엄마가 다시 돌아와 나의 삶을 보면서 후회하지 않도록 노력중이다. 열심히 공부하고, 나의 주변을 정리정돈하며 끼니를 잘 챙겨먹고.....

언젠가는 꼭 이루어질 그 꿈을 향해 전진해 나간다.

질서의 생활화

현산중학교 1학년 4반

김 수 환

공공장소에서의 질서는 어느 곳 중에서도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생각되는 것 만큼 공공장소에서나 어느 곳에서도 질서는 생활화 되어 있지가 않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곳 인 만큼 공공장소에서의 질서는 생활화 돼 있어야 하는데 너무나도 혼할 정도로 정류장, 화장실 등에서는 새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담배를 피면서 남에게까지 고통을 주는 나쁜 사람들도 있다. 아무거리에도 쓰레기를 버리기도 한다. 안타까운 것은 거리의 쓰레기를 줍는 사람을 대단하게 바라보기만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다. 누구 하나 먼저 질서를 지키려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질서를 지키는 것이 발가벗는 것처럼 창피스런 일도 아닌데 아무도 나서려는 사람들은 없다.

나와 다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서 질서는 꼭 필요하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도 내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도 질서는 필요하다.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이기주의

적인 생각은 질서 있는 생활을 바랄 수 없을 것이다. 자신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남인들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을까? 내가 혼자있는 나만의 공간에서도 질서는 필요하다. 자동차 안에서의 안전 벨트 매기도 하나의 질서이다. 이웃과 하는 사소한 인사도 하나의 질서이다. 생각해 보면은 이 세상에 질서가 없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 그만큼 질서는 생활화 되어야 한다.

나는 얼마나 질서를 잘 지키고 있을까? 혹시 백원짜리 불량 식품을 하고 그 껍데기를 길바닥에 버려 내동맹이 친 건 아닌지 반성된다. 그리고 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질서 좀 지키세요”라고 말 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것도 한심한 것 같아 반성하게 된다.

남이 먼저 내게 질서있게 대해 주기를 바라지만 말고 내가 먼저 남에게 질서있게 대해 주면 최소한 열 명중 아홉 명은 내게 질서있게 대해 줄 것이다. ‘도덕’이라는 과목이 주요 과목이 아니라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남과 함께하는 이 사회에서는 주요 과목이 된다. 나중에는 의사, 검사, 판사 같은 돈 쪽으로만 치우쳐진 꿈들보다는 배려 깊은 사람, 사랑 받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 질서가 생활화된 사람처럼 마음이 맑아질 수 있는 장래 희망을 갖게 되면 좋겠다.

나보다 남이 더, 남보다는 우리가 더 많이 질서있는 생활에서 살아갈 수 있게되면 좋겠다.

대답 없는 아버지

원당중학교 3학년 5반

류 정 아

지난 2005년 9월 우리 아빠는 하늘이라는 먼 나라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긴 여행을 떠나셨다. 우리 아빠는 간암이셨다. 아빠의 일이 어려워지고 아빠는 갖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아빠는 혼자서 안 해본 장사가 없으셨다. 추운겨울날 밤에 군고구마장사를 하셨다. 나는 이때까지만 해도 아빠의 아픔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 아빠는 아는 분의 소개로 다른 일 자리를 얻게 되셨다. 아빠는 출근한지 얼마 되지 않아 많이 피곤해 하셨다. 그리고 많이 아프셨다. 그때는 그냥 가벼운 감기 몸살이려니 하고 아무 생각없이 넘겨 버렸다. 그러나 몸이 더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선생님은 거짓말을 하시듯 아빠가 간암이라고 하셨다. 빨리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루가 급하다고 하지만 우리집은 큰 병원에 가서 비싼 검사를 받을 만큼 넉넉하지 못하였다. 하루 이틀 늦추던 중 의사선생님께서는 일산병원에 가 보라고 말씀하셨다. 다른 병원에 비해 진료비가 싸다는 말씀을 해 주셨다.

아빠는 그 다음날로 병원에 가셨다. 그리고 엄마는 나에게

항암치료 받으면 아빠는 나을 수 있으니 걱정 말라고 그러나 난 내가 들은 말이 거짓이란 걸 알게 되었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난 우연찮게도 엄마의 통화내용을 들었다. 아빠가 길면 1년 짧으면 4개월 밖에 살지 못한다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머리를 돌로 얻어맞은 기분이였다. 그 감정을 말로 표현 할 수가 없다. 난 아빠가 병원에 입원한 첫날 병원에 가보지 못하였다. 아빠가 입원한지 둘째날 엄마가 택시타고 학교 앞으로 데리러 올테니 나오라고 아빠가 날 보고 싶어 한다고 난 그저 아무 생각없이 엄마를 따라 병원으로 향했다. 순간 난 돌처럼 굳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엄마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중환자 대기실이었다. 난 걱정을 안고 중환자 대기실에 들어가서 아빠를 찾았다. 그곳은 어린 나에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곳이었다. 모두가 인공호흡기에 의지 한 채 간간히 목숨을 부지해 나가는 말 그대로 중환자들이 있었다. 그런 곳에 아빠가 있다는 생각에 난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허나 내가 본 아빠의 모습은 밝은 웃음과 변함없는 아빠의 모습이였다. 그렇게 아빠의 병원생활은 시작되었다. 난 매번 아빠의 병원에 갔다 오는 날 저녁엔 아빠를 혼자 병실에 두고 왔다는 생각에 가슴 아파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9월이 되었다. 아빠는 퇴원을 하고 집에 오셨는데 갑자기 아빠의 몸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다시 병원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었다. 아빠는 응급실에서 빈 병실이 날 때 까지 기다리셨다. 그러다 엄마가 잠시 바람을 쐬러 나가시고 난 아빠와 단 둘이 있게 되었다. 아빠는 언제나

강하셨다. 내 앞에선 절대 눈물 따위는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셨다. 그러나 난 이날 아빠의 눈물을 볼 수 있었다. 아빠는 나에게 아빠의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해주시다가 나의 손을 잡고 착하게 자라주어서 너무 고맙다고 앞으로도 엄마 말 잘 들어야 한다며 엄마를 힘들게 하지 말라고 부탁하며 눈물을 흘리셨다.

난 태어나서 처음으로 본 아빠의 눈물이었다. 난 그 눈물을 보며 내 눈물을 애써 속으로 삼켰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내 옷자락으로 아빠의 눈물을 닦아 드렸다. 그렇게 어느덧 일주일이란 시간이 흐르고 아빠의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아빠는 물조차 제대로 마실 수 없으셨다. 난 토요일날 아빠의 병원에 가서 잠을 자야했다. 상황이 너무 심해서 아빠는 모르핀 치료제 까지 맞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난 가슴이 찢어질듯이 아팠다. 난 아무말 없이 아빠의 옆에 앉아 아빠를 보았다. 아빠는 나에게 물으셨다.

“정아야 아빠 불쌍해?”

난 아픈 마음으로 입을 열었다.

“응. 그러니까 빨리 나아서 집에 가.”

허나 아빠는 참 나쁘게도 다음날 집이 아닌 저 먼 하늘로 여행을 떠나 버리셨다. 난 아빠가 떠나는 날 아침 아빠가 같이 먹자던 밥도 먹기 싫다며 그냥 혼자 먹으라고 짜증내고 뽀뽀 해달라던 아빠에게 귀찮다며 눈 한번 마주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다. 그날밤 내가 잠을 청하고 있을 시간 아빠는 사경을 헤매며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통에 시달렸을 것이다. 다음날 아침 난 엄마의 급한 발소리에 잠을 깨고 울다 지친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빨리 준비하라고 마음에 준비를 하라고 엄마의 이 말을 듣는 순간 난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만 같았다.

난 울면서 옷을 입고 애써 내 자신을 달래려 내 자신에게 말했다.
“류정아 너희 아빠는 니가 잠깐만 안보여도 불안해 하는 사람인데 나만 두고 어딜 가겠어”

라고 말이다. 난 또 중환자실을 봐야만 했다. 엄마와 내가 초조해하는 사이 의사들은 무슨 일이라도 터진것 마냥 중환자실로 뛰어 들어갔다. 얼마후 한 의사가 나오더니 엄마를 찾기 시작했다. 그 의사들이 온 이유는 우리 아빠의 심장이 멎었기 때문이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더 이상은 힘들다고 환자분 몸이 많이 상하실거라며 더 이상의 심폐 소생술은 안된다고 하였다.

난 울며불며 매달리고 싶었지만 이미 늦었던 것쯤은 알고 있었다. 그 후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난 아빠 옆에서 차갑게 식어버린 손을 부여잡고 말없이 울며 마음속으로 빌고 빌었다. 제발 데려가지 말라고. 안된다고. 이 세상에 나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착한 우리 아빠냐고 하루를 구걸해서 살더라도 좋으니 아빠만은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하지만 하늘은 내 말 따위는 들어주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빠는 더 악화되었다. 그렇게 데려가지 말라고 빌던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올 때 까지만 이라도 버텨 달라고 속으로 빌고 또 빌었다. 얼마후 할머니 할아버지가 도착하고 아빠를 본 후 아빠는 내 약속이라도 지키려는 듯이 숨을 멈추셨다.

난 아빠의 그 따뜻한 손을 잡고 싶었고 난 아빠의 그 따스한 웃음이 보고 싶었다.

허나 가슴 아프게도 이젠 다시 잡을수도 볼 수도 없게 되었다. 아빠는 엄마에게 추석도 다가오는데 정아 먹을것도 제대로 못해 주겠다며 걱정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일반병실에 있던 아빠의 심장이 멎어 중환자실로 옮겨졌을 때 엄마가 아빠에게 ‘정아 집에 혼자 있는데 집에 가야지 여기 이려고 있음 어떡해’라는 말에 아빠는 몸을 벌떡 하시더니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셨다. 날 이렇게 아끼던 아빠는 지금 하늘을 여행중이다.

난 아빠의 상을 치루는 3일 내내 한시도 아빠의 상에 올라있는 향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밤이고 낮이고 불을 켜다. 난 삼일 내내 한끼도 제대로 먹을수가 없었다. 병원 여기저기 있는 아빠의 흔적 때문에 가슴이 찢길 듯이 아팠다. 난 잠조차 제대로 잘 수가 없었다. 잠을 자면 차마 이생에서 하지 못한 인사를 아빠가 하러 올까봐, 정말 아빠와 마지막이 될까봐...

난 요즘 들어 아빠의 빈자리가 더 크기만 하다. 난 지금도 아빠의 납골당에 가면 지금도 서럽게 울다 온다. 어른들은 항상 그러신다. 이제 그만 올라고, 내가 자꾸 올면 아빠가 좋은데 못 간다고, 이제 그만 놓아주라고... 하지만 난 매일 하루에도 열두번은 보고 싶고 부르고 싶고 그리워하는 우리 아빠를 놓아줄 자신이 없다. 난 오늘도 불러도 대답없는 아빠를 부르고 그리워한다.

시 계

능곡중학교
민 동 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를 부지런하게 만드는
우리집 시계

수업 시간에
지루해하는 친구들에게
희망을 주는
우리반 시계

그리고 나를 매일
지각하게 만드는
내 친구의
오 분 늦은
손목시계



엄마 마음

가람중학교 1학년 7반

김 채 원

‘쉴크덕’

문이 열렸다.

나보다 한 살 어린
작지도, 크지도 않은
동생이 날 반긴다.

“누나다-아!”

동생의 반감을 무시한 채
하얀 쪽지를 본다.

‘국은 데워서 먹고,

밥은 새밥이야.

오늘 엄마 늙으니까
일찍 자.’

혼자 먹기 싫다고,

나를 기다리던

내 동생은

밥상을

다 차리기도 전에
무섭게 먹는다.

가슴 한 구석이
아려온다.

이게 과연
엄마 마음일까?

밥 먹다 만 동생이
커다란 눈망울로
나에게 묻는다.

“누나 엄마 언제 올까?”

엄마 닮은 노을이
붉게 타오르고 있다.

두 남매를 닮은
붉은 노을이
더욱 붉게 타오르고 있다.

마음을 웃게 하는 방법

행신중학교 2학년 4반

이 해 니

책꽂이에 꽂혀있는 앨범들을 바라보면 즐겁다. 뭐랄까, 기분이 좋아진다고나 할까. 지금은 많이 바빠서 서로 시간을 낼 수 없지만 모두 모여 어릴때 사진을 넘겨보면서 웃었던 적이 생각난다. “아, 맞다. 내가 이랬어! 아하하!”라며 기억을 회상시키는 사진, 지금은 볼에 살이 많지 않지만 어렸을 때는 볼 안 가득 사탕을 물고 있는 것처럼 볼이 터질 것 같은 사진, 동생과 나 둘 다 재밌는 자세로 찍혀서 웃기게 했던 사진들. 가족끼리 앉아 사진을 넘겨보았을 때를 생각하면 그런 게 가족이고 가정이었구나 새삼 느끼게 된다. 가정은 엄마 아빠가 만나 나와 내 동생을 낳았을 때 만들어졌다. 그 가정 안에서 서로를 가족이라 부른다. 난 가정을 하나의 공간이라 생각한다. 이 공간안에서 생활하고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로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가정은 마치 도서관과 같다. 이 도서관은 책이 유난히 많이 꽂혀있는 곳이라 생각하면 더 좋다.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고 싶을 때 찾고 싶은걸 알게 해주는 또한 여러 가지 상식과 지식을 알아갈 수 있는 곳이 도서관이다. 그런 도서관과 가정이라는 공간의

공통점은 내가 찾고 싶은 걸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행복을 찾을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이라는 말이다. 난 이 공간에서 정말 행복을 찾았고 느껴 본 적이 있다. 엄마와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할 때였다. 엄마는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 기억하지 못하는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셨다.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내가 어렸을 때 내가 3살인가 4살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동생과 나는 자고 있었다. 늦은 밤 아빠가 돌아오셨다. 아빠는 술을 드시고 오셨는데 술기운이 약간 있으셨다. 아빠는 나와 동생이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와서 잘 자나 얼굴을 보려고 내 엉덩이를 톡톡거리면서 “우리 해니 잘 자냐?”라고 말하셨다. 그런데 자고 있어야 할 동생이 옆에서 “네.”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분명히 애는 자고 있는데 대답소리가 들리니까 아빠는 장난스럽게 “잘 자냐?”라고 다시 말하셨다. 그러자 자고 있던 동생이 옆에서 또 “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내 동생은 잠귀가 밝아서 엄마가 어디 나갔다고도 금방 깨서 울고 있지만 나는 한번 자면 누가 데려가도 모를 정도로 잤다고 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엉덩이를 톡톡거리는 아빠와 자면서 대답하는 동생을 상상하니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 내가 느낀 행복은 웃을 때 느끼는 행복이었다. 웃을 때 느끼는 즐겁고 기분 좋은 느낌. 함께 느끼고, 즐기고 웃을 수 있을 때 난 행복이란 걸 알 수 있었다.

토요일이면 가족끼리 외식을 한다. 저녁 외식을 아구찜을

먹었는데 아빠는 술을 하셨다. 집으로 가는 길에 쇼핑한 장바구니를 아빠한테 들어달라고 하고 걸어가는데 아빠가 “아, 이거 내가 왜 들고 가. 빨리 재덕이 들어.”라고 하셨다. 동생은 듣기 싫다고 하니까 내가 든다고 들었다. 아빠는 “아니야. 빨리 누나들으라고 해.”라고 하셨다. 나는 “누나가 들고 있는데요.”라고 대답했다. 아빠는 동생이라고 얘기해야 할 것을 누나라고 잘못 얘기했다. 어찌나 웃겼는지. 사실 안 웃길 수도 있지만 이때도 마찬가지였다. 티격태격하면서 웃으면서 가니까 즐겁게 집에 돌아갈 수 있었다.

난 쉽게 행복을 알아차리고 그 상황을 즐길 수 있었다. 하지만 행복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가정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분명히 이 공간에서 행복은 자라나고 있는데도 알지 못한다. 그런 가족을 보면 참 안타까울 따름이다.

나만의 행복을 찾는 방법이 있다면 그건 마음을 웃게 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웃음 짓는 것이다. 항상 불행할 수도 없고 항상 행복할 수는 없다. 하지만 웃음 지을수 있는 그 때를 만끽하고 즐길 수 있다면 그게 행복인 것이다. 난 항상 자신을 즐겁게 해서 많이 웃으려고 하고 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 가족처럼 해도 좋을 것 같다. 재밌는 이야기를 해본다던지, 앨범을 펼쳐보면서 어릴때 사진을 넘겨본다던지, 엽기 사진을 찍으면서 웃어본다던지. 엽기사진 찍는 건 동생과 내가 하는 일 중 하나이다. 그냥 카메라만 옆에 있으면 하는데 카메라를 돌려서 두 명다 나오도록 사진을 찍는다. 조금만

흔들려도 웃긴 사진이 나오니 안 웃을 수가 없다.

엽기 사진 이야기를 하니깐 이번에 국화꽃 축제를 갔던 일이 생각난다. 김포 매립지에 드림파크라는 곳엘 갔다. 조그만 공원이었는데 국화꽃 축제를 하였다. 사람들도 많고 모처럼의 사진 찍을 기회이니깐 디카로 사진도 많이 찍었다. 잠시 쉬는 중, 사진이 잘 나왔나 확인 하고 있었는데 정말 너무나도 신기하고 웃긴 사진이 찍혔다. 오리(국화꽃을 오리모양으로 해 둔 것)가 나오게끔 그 뒤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뒤에도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다. 사진에는 늪지 않고 안경 쓴 남자가 옆에서 같이 사진 찍은 것처럼 보였다. “에? 이사람 누구야!!” 처음에 이렇게 말했다. 사실 지나가는 중이었고 그게 찍힌 것이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여서 더 황당하고 엽기적이었다. 뭐, 이런 일이 다 있을까 기분이 짹짹 돼서 웃음을 터트렸다. 직접 보여주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실제로 그런 사진이 찍힌다면 웃지 않을 수 없다. 웃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행복을 찾게 될지도 모른다. 마치 도서관과 같이 행복을 찾는 공간, 가정에서 나는 많은 걸 느꼈다.

앞으로도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 더 많은 행복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고 또 여태 느껴왔던 행복을 잊어버리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다. 행복의 씨앗은 항상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난 가족이 필요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웃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행복을 찾아 갈 수 있는 공간, 앞으로도 함께 할 가정이라는 공간이 있기에 우리 가족은 웃는다.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 한다.

정선에서 되찾은 가족사랑

지도중학교 2학년 9반

이 다 숨

10월 26일 엄마가 뜻밖의 제안을 하셨다. 10월 28일인 엄마 아빠의 결혼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다 같이 가족여행을 가자고 하셨다. 여행을 많이 안간 건 아니지만 항상 다른 가족과 같이 가곤 했다. 평소 가족끼리 사이가 나빴던 건 아니지만 가족끼리만 간다니 뭔가 재미없을것 같고 기분이 묘했다. 그래도 일단 동참하기로 했다. 근데 생각해보니 가족끼리의 여행은 정말 오랜만이였다. 어린 동생은 엄마 아빠와 잘 다녔지만 고등학생인 언니와 중학생인 나는 학원이다 시험이다 친구랑 논다며 온갖 핑계(?)를 하며 가족여행을 빠졌다. 그러니 가족과의 여행이 새로우면서도 걱정이 되었다. 기대 반 걱정 반 하며 여행을 떠났다. 여행갈 곳은 정선이라고 했다. 정선?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이름이였다. 정선은 시골마을로 공기도 맑고 가을이어서 단풍이 예쁘게 들었을 거라고 하셨다. 하지만 정선까지는 4시간 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처음에는 언니와

나는 MP를 들고 있고 다들 제각기 다른 것을 하고 있어서 멀미가 나고 심심하고 짜증이 났다. 심심해 지쳐 잠들었을 때 엄마 아빠가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셨다. 처음에는 잠을 깨워서 짜증이 났지만 내 MP를 크게 틀고 언니와 내가 노래를 부르며 가니 심심하지도 멀미도 나지 않았다. 다른가족과 같이 갔으면 상상도 못 할 일이다. 이렇게 노래실력이 없는 내가 큰소리로 노래를 부를 수 있는건 가족앞이라서 그렇겠지?

나는 이때 가족의 편안함을 느낀것 같다. 그렇게 신나게 왔다. 이제 묵을 곳을 찾아야 하는데 가을이라 묵는 곳이 거의 다 찼다. 그리고 시골이라 그런지 어둡고 차도 없고 집들도 불이 다 꺼져있었다. 불안감과 멀미가 다가온 나와 언니는 짜증을 냈다. 그래서 “다시는 안 따라올거야!!”라고 엄마 아빠에게 화를 냈다.

지금 생각하면 오랜 시간동안 운전을 하셔서 피곤하셨을 아빠와 우리에게 예쁜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신 엄마께 죄송한 일이었다. 그렇게 묵을 곳을 찾아 헤매다가 드디어 묵을 곳을 찾았다. 이 동네에 사시는 어떤 분이 예약하신 콘도가 비었다고 그곳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였다.

역시 시골분들은 정이 많은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잘 곳을 찾은 우리가족은 오랜 시간 차에 있어서 그런지 모두 지쳐 잠들었다. 다음날 일어나서 밖에 나가보니 시골의 맑은 공기가 나를 기분 좋게 했다. 콘도에서 나와 아빠차를 타고 나오니

어제는 무섭게만 보였던 산들이 울긋불긋 꼭 물감을 칠해 놓은듯 제각기 예쁜색을 뽐내며 우리를 향해 활짝 웃어 주는 듯 했다. 이때 나는 사람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라는 말이 떠올랐다. 무섭게 보였던 산들과 집들이 지금은 예쁘게 보인다는 것에 대해 '나도 이제부터 좋은 마음을 가지고 모든일을 시작하는거야!!' 라는 생각을 했다. 정선에서만 난다는 나물 '곤드레'로 아침을 먹었다. 신선한 나물과 구수한 된장찌개가 도시에서 먹는 밥보다 맛있게 느껴졌다. 아침을 배불리 먹은 우리는 레일바이킹을 타러 갔다. 레일바이킹은 열차가 다니지 않는 철로를 이용하여 자전거와 비슷한 것으로 철로를 달리며 보는 것이었다.

레일바이킹 정류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아직 레일바이킹을 탈 시간이 되지 않아서 나와 동생은 철로에서 놀았다. 철로에 나가자 신기한 것을 발견했다. 여치모양의 카페였다. 신기해서 동생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동생과 철로위에서 놀면서 언니와는 나이가 비슷해서 친했지만 나이 어린 동생을 왕따(?)시킨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철로위에서 사진도 많이 찍고 그러면서 어린시절로 돌아간듯 해서 즐거웠다. 드디어 레일바이킹을 탔다. 언니와 엄마가 2인용을 타고 아빠와 나, 동생이 4인용을 탔다. 앞뒤로 탄 우리가족은 치고 박으며 장난을 쳤다. 가족 모두 애들같이 즐거워 했다. 나는 이때 진정으로 행복한 웃음을 지었던것 같다.

가족과 함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나는 오늘에야 알았다. 레일바이킹을 즐겁게 타고 우리는 ‘콧등치기’를 먹었다. 콧등치기란 국수인데 국수가락이 길어서 먹을때 콧등을 친다고 ‘콧등치기’라고 부른다고 했다. 우리는 그 이름의 뜻을 알고 또 한번 웃었다.

정선에 와서는 정말 많이 웃은것 같다. 이제 우리는 온천에 갔다. 온천에서 시원하게 하고 나와 우리 가족은 저녁을 먹었다. 저녁은 이천 쌀밥!! 이천은 쌀이 유명해서 쌀밥을 먹으러 왔다. 여기는 밥에다 반찬이 많이 나오는데도 우리를 위해 불고기를 시켜주시는 아빠를 보며 우리에게 대한 아빠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다. 저녁을 맛있게 먹고 우리 가족은 집으로 돌아왔다. 이것으로 우리가족 정선여행 이야기는 끝이다.

나는 이번 여행에서 많은 것을 느꼈다. 가족의 사랑은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가족의 사랑은 함께 있으면서 즐겁게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것이 가족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시간이 흘러서 가족간에 서운한 일이 있을때 다시 한번 정선에 오고 싶다. 가족사랑을 알려준 ‘정선아!’ 고맙다!!

호 박

능곡중학교
임 현 준

시골집에 가면
시골집에 있는
큼지막한 호박

이건 누가 봐도
누가 와서 봐도
큼지막한 호박

호박이 있으니
시골집이
참
작아보인다.

더도말고 덜도말고 외갓집만 갈아라

무원중학교 2학년 6반

신 해 송

더도말고 덜도말고 한가위만 갈아라

멀고먼 아빠 고향길 올해도 간다
아빠 운전 엄마 운전 서로서로 도와가네

반나절 더 걸려 드디어 할머니댁
아빠 땀 범벅 엄마도 땀 범벅
그래도 모두모두 웃음꽃 피네

아빠, 오빠, 할머니
모두모두 보름달 보고 웃음꽃 활짝
아니지, 엄마 웃음꽃만 시들시들

엄마 고향길 올해도 간다
엄마 고향길 예전엔 엄마 운전 엄마만 힘들었네

이번엔 아빠 운전 엄마 운전 서로서로 도와가네

반나절도 안걸려 드디어 외할머니댁
아빠 땀 범벅 엄마도 땀 범벅
그래도 모두모두 웃음꽃 피네

아빠, 오빠, 나, 외할머니
모두
설거지하는 외삼촌도 웃음꽃 활짝
엄마는? 엄마 웃음꽃도 활짝!

멀고먼 우리집 드디어 간다
아빠 운전 엄마 운전 서로서로 도와가네

하루 걸려 드디어 우리집
아빠 땀 범벅 엄마도 땀 범벅
그래도 모두모두 웃음꽃 피네

땀방울을 서로 나누면 웃음꽃 모두 활짝
더도말고 덜도말고 외갓집만 갈아라

뿌듯, 따듯, 아름답게 해 주는 것

신능중학교 2학년 5반

정 승 원

체험학습의 토요일의 아침이 밝았다. 나는 반쯤 감겨진 눈으로 봉사 활동을 가기 위해 준비를 했다. 봉사 활동은 길거리의 쓰레기 및 불법 전단지 줍기이다. 다들 추운 날씨에도 장갑을 끼고 열심히 쓰레기를 줍느라 추운 날 땀이 날 정도였다.

솔직히 내가 하는 봉사 활동은 순수한 봉사보다는 내신 점수의 일부인 봉사 활동의 점수를 채우기 위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한 단체에 소속되어 여러 가지의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봉사라는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다. 그 단체의 봉사 활동은 봉사 점수를 위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자발적으로 모두 참여를 하게 함으로써 봉사를 하고 싶어지게 하는 오묘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었다.

봉사란,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애쓰는 것을 말한다. 봉사의 참된 의미를 느낄 수 있게 해준 일반인 봉사 단체에 소속되어 봉사했던 일은 길거리에서 시각장애인 체험을 통해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몸소 느끼게 해주었고, 문화답사를 통해 우리 문화도 바로 알고, 그 주변을 청소하면서 가슴도 뿌듯했다. 직접 그 단체의 회원

끼리 모든 물건을 가지고 길거리 바자회를 열어 모은 돈으로 불우이웃을 돕는 활동을 통해 진정한 봉사를 체험했던 기회였다. 무척 많이 고생 했었지만, ‘정말 좋은 기회였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자원봉사를 생각할 때 장애인은 그 봉사를 받기만 하는 수혜자 또는 대상자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그러나 비장애인인 우리들이 장애인이 되어 직접 눈을 가리고, 친구들이 가라는 대로 믿고 길거리를 다닌 적이 있었다. ‘정말 답답하고, 시각 장애인 뿐만 아니라, 여러 장애인 분들은 우리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다. 주변의 도움없이 걷기란 정말 무서웠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장애인을 멀리하지 말고, 같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좀 더 도와주어야겠다고 절실히 느꼈다. 그리고 장애인 분들이 사시는 곳에 가서 이불도 빨아드리고, 청소를 하는 등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다. 봉사의 주고객이 장애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장애인에 대한 봉사 활동이 넓은 범위를 차지했었다.

그만큼 우리는 장애인들만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나 또한 그렇다. 하지만, 주변에는 장애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의 계획을 세우고 활동을 추진하면서 공동체의 진정한 의미인 사회를 배울 수 있도록 실천 중심의 인성 교육 차원에서 도입하여

봉사 활동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봉사를 통하여 삶의 보람과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는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 하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봉사기관 부족 등으로 봉사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아쉽다.

봉사활동에는 정말 많은 종류가 있다. 의료봉사, 해외자원봉사, 청소봉사, 장애인동도우미, 노인복지봉사활동 등 여러 봉사활동중에 내가 해본 것이 몇가지나 있을까? 이밖에 여러 많은 봉사 활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쫓겨서 살아, 남을 도와줄 만큼 여유가 없는 것 같다. 이젠 물질적으로도 풍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생각하고 남을 위한 시간의 투자는 절대 없는 것 같다.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남을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한다면 사회는 정말 아름다운 사회로 물들 것 같다.

예전에는 봉사라는 것과 나와의 거리가 무척 멀게만 느껴졌었다.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자신보다는 남을 위하는 자세가 있어야만 하는 것인 줄 알았었다. 하지만, 봉사라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을 알았다. 중학교에 올라와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해본 결과, 정말 봉사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봉사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봉사를 하는 데에는 여러 제약이 따르는 것 같다. 하지만, 그 제약보다 얻을 수 있는게 더 많다고 생각된다. 기쁨, 즐거움, 뿌듯함 등 자기만족, 나의 가치도 느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된다.

현재 우리 사회는 자원봉사의 개념을 중요시 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저 막연한 개념으로 자원봉사를 이해, 그 이해 부족에 따라 봉사의 사회적 참여, 확대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봉사의 개념에 대해 정확히 알고, 서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나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도움을 주고, 내가 도움이 필요로 할 때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회는 더욱 따듯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어머니께서는 노인복지 시설에서 노인분들을 씻기는 봉사를 한 적이 있으시다. 버스안 공간에서 이동 가능한 목욕 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씻기는 봉사였다. 깨끗이 씻기고 나면 어머니께서는 매우 기뻐다고 하셨다. 나중에 집에 와서는 힘들지만, 노인분들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 하나도 힘들지 않다는 것이었다. 봉사라는 것은 정말 좋은 것 같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도움을 받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득이 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활동이라고 생각된다.

흔히 사람들은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의 작은 봉사활동으로 이웃들과 기쁨을 같이 할 수 있다면 나에게는 정말 값진 것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봉사활동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할 수 있고, 내가 해야 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다. 이웃과 함께 서로를 도우며 사는 아름다운 세상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러한 일에 기꺼이 동참할 것이다.

자원 봉사

현산중학교 2학년 11반

최 희 진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학교들은 봉사활동시간 60시간을 채워서 내신에 반영합니다. 나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자원봉사는 무엇일까?’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억지로 시켜서, 또는 내신성적 때문에……. 이런 이유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원봉사는 시간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자원봉사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아는 사람이 일하는 곳에 가서 봉사는 하지 않고, 확인서만 받아 오는, 그런 것은 절대 자원봉사가 아닙니다. 저는 진정한 자원봉사의 기쁨을 맛본 적이 있습니다.

작년 겨울 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캠프를 갔습니다. 아주 좋은 유스호스텔로 간다가에,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날은 유난히도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저는 한참동안 창 밖으로 눈 내리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은 그치질 않고, 쌓이고 쌓였습니다. 눈 때문에 찾길이 막히고, 버스는 멈췄습니다. 폭설로 인해 언덕에 있는 유스호스텔 입구가 막혀서 갈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때의 선생님의 미안해 하는 목소리와 아이들의 실망한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대로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근처에 묵을 곳을 찾아서, 그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던 순간, 나는 그 곳이 장애인들이 사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곳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건물이 2개 있고,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장애인들이 있는 곳에 갔습니다. 평범한 집 같았지만, 나는 들어가자마자 정말 깜작 놀랐습니다. 정신지체 장애인, 신체 장애인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장애인들을 돕게 되었습니다. 아주 작고, 귀여운 아이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손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 아이에게 나는 밥을 먹여 주었습니다. 아이에게 밥을 떠 주는데, 자꾸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불쌍한 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곳엔 내가 도울 일이 참 많았습니다.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내가 도와줄 일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또, 나는 정신지체장애인들에게 양치질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은 누워서 양치를 했으며, 치약을 뱉을 수 없어서 삼켜야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참 힘들게 살아가는 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떠드는지 모르는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장애인 아이들의 손발을 씻겨주는 것도, 그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것도……. 모두 내가 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일도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흘러내리는 눈물을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말을 못 하는 갓난 아기도, 허리가 굽은 장애인도 모두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때, 한 아이가 나에게 다가와 활짝 웃으며 “사진 찍어주세요!”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족 아닌, 그 장애인 가족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많이 아픈 아이들이었지만, 사진 속의 아이들은 너무나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들에게 별 도움을 주지 못했지만, 순수하고 착한 아이들은 나에게 너무 고마워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 캠프의 하루가 지났습니다. 다음날 새벽 5시. 한참 단잠을 자고 있던 나를 교회선생님이 살짝 깨웠습니다. 나는 영문도 모른 채, 선생님과 몇몇의 친구들과 장애인의 집에 갑니다. 우리는 장애인의 아침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들을 세수시켜 줬습니다. 나는 너무 피곤했지만, 졸린 모습으로 눈을 부비는 아이가 너무 귀여워, 웃음이 났습니다. 한참

아이들과 정이 들어 놀다보니, 벌써 집에 가야 했습니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장애인들과 작별 인사를 한 후에 우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아이들을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나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나와는 다르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도왔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기뻛고, 어렸던 나에게도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내 한 몸으로 돕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원봉사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현산중학교 1학년 1반

김 소 진

여러 사람들이 내게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면 난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인 부모님입니다” 라고 답할 것이다. 왜냐고 묻는다면 이유는 “내 자신을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며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로 키워주신 은혜가 가장 깊기 때문입니다” 라고 또 대답할 것이다. 난 13년간을 살면서 때로는 슬픔과 행복을 맛보며 살았다.

그렇지만 이중에서 슬픔을 물어버릴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의 적극적인 사랑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5년전 나는 큰 슬픔을 받아야만 했다. 병원에선 내 병명이 ‘틱’ 장애라는 진단을 내렸다. 내가 생각하기엔 그땐 너무 어렸던 것 같았다. 너무 어려서 그런지 엄마가 그저 습관이라고 말하는 것을 믿었다. 지금 ‘틱’을 생각하면 별로 쇼크가 크진 않다. 하지만 옛날엔 몇시간을 울고 고민하던 일이었던 것 같다. 2학년 1학기 때 부터 ‘틱’ 증상이 나타났고, 그때부터 난 백병원에 다니며 아침약과 저녁약을 번갈아 먹었다. 병원에

갈때마다 ‘정신과’라는 간판이 붙여져 있어 어린 나에겐 궁금증이 너무나 많았다. 그치만 사람들은 ‘정신과’라면 정신지체같은 병명을 떠올린다. 그렇지만 내 병명은 ‘뇌’에서 관련된 병일 뿐,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일반사람이나 다름없다. 그렇지만 지금 생각하면 엄마 마음 고생이 심했을 것 같아 정말 죄송스러울 뿐이다. 그래서 일부러 요즘 설거지나 청소등의 역할을 맡아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있다. 곧 있으면 엄마아빠가 국수집을 운영하게 되어 늦게 들어오실 것 같다. 난 학교에선 활발하고 적극적인 아이지만 집에 돌아오면 조그만 아이가 되는 것 같다. 엄마가 밖에 나가 있으면 우울하고 마음이 텅 빈것 같아 불편하다. 난 엄마가 옛날에 해주신 아주 아름다운 명언이 생각난다. “소진아 사람은 때론 슬픔과 절망, 그리고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는거야. 그치만, 엄마 네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하고 잘 어울리고 그러는게 엄마가 바라는거야. 알았지?” 난 아직도 이말을 생각하고 있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명언이 어디에도 없을것이다. 지금 곰곰히 생각하면 나같은 조그만 병명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 세상에서 심장병·백혈병·대장암·불치병이 생겨도 마음속에 행복과 사랑이 담겨 있다면 아무리 큰 불치병이라도 고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365일이 계속 넘도록 외치고 싶은 말은 “부모님, 사랑합니다”라고 조건 없이 외치고 싶다.

자원 봉사

현산중학교 1학년 6반

박 윤 경

우리 집에는 텔레비전이 있다. 방으로 들어가면 컴퓨터도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책도 필기도구도 한가득이다. 그 뿐만이 아니라 옷장에는 입을 수 있는 옷도 많다. 매일 저녁 학교에서 돌아오면 소파에 누워 쉬다가 따뜻한 이불을 덮고 잠이 든다.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가 차려놓은 밥을 먹는다. 아주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난 정말 가진 것이 많은 아이라는 생각이 든다. 먹고 자고 내맘대로 할 수 있는 집도, 매일 먹어야 하는 하루 세 끼 식사도 내게는 모두 당연한 일이니까 말이다. 그건 당연한 일이잖아, 하고 말할 수 있지만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 세계 모든 사람들 중 절반이상은 굶주리고 있고 주위를 바라보면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기 때문이다. 언제인가, <토토의 눈물>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다. 더운

햇볕아래 먹을 것은 커녕 물도 제대로 못 마셔 죽어가는 아이들, 어려운 집안 형편때문에 나와 비슷한 또래인데도 매춘부가 되어야 하는 소녀, 전쟁때문에 끝없는 빈곤에 시달리는 아이들.... 내가 모르는 새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엄청난 일들에 나는 적잖이 놀랐다. 그 책은 나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고 많은 것을 돌아보게 하였다.

그렇게 나는 정말 슬퍼했다. 그런데, 정말 어이없게도, 나는 그것을 며칠도 지나지 않아 까맣게 잊어버렸다. 지구 반대편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도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많다. 그 사람들이 내게 도움을 청한 적은 많다. 길거리를 지나가다가도 모금을 해달라는 적은 많았지만 난 돈 한푼 내기 아까워했을 뿐이다. 꽃동네, 고아원 가보겠다 가보겠다 말만 늘어놓았을 뿐이지 난 텔레비전 앞에 드러누워 진정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내버려둔 채 드라마나 보며 훌쩍이고 있는 것이었다. 그렇게 나는 계속 위선을 했다. 형식적으로만 남들 보는 앞에서 남을 도왔다. 마음 속에선 귀찮다는 마음만 가득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당에 갔다. 강론 시간에 신부님의 말씀을 듣는데, 한 구절이 내 가슴 깊은 곳 까지 전해져오는 것이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갖추고 태어난 것은

갖추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주라는 것이었다. 종교적인 것을 떠나서, 하느님이든 부처님이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주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같은 지구촌 사람들로서 모든 것을 공평히 나누어가져야 한다. 즉, 나누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바로 자원봉사이다. 사실 자원봉사는 위대하고 착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하루를 돌아보자.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많겠지만 다른 이들에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소원이고 꿈에도 상상하지 못 하는 일 일수도 있다. 그런 점을 생각해보아 봉사는 우리에게 하나의 의무인 셈이다. 이제 우리에게 자원봉사는 더 이상 귀찮고 어려운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갖추지 못한 자, 나와는 다른 자가 있어도 이상한 눈길로 쳐다보지 말자.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 만으로도 하나의 봉사가 될 수 있다. 자원봉사를 함으로서 한 울타리 안에 서로 조화를 이루는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하자.

고 등 부

■ 어머니의 기도	장은지
■ 동생의 편지	조경원
■ 자장면과 보리건빵	백승현
■ 우리의 빛과 소금	김나영
■ 너와 나만이 알고 있는 조약돌	이하림
■ 아픔을 뒤로한 웃음	양주혜
■ 선생님의 수화	강해현
■ 찬란한 슬픔의 봄	장소영
■ 전통문화	김희경
■ 생명사랑 밤길걷기 그 특별한 밤	김지영
■ 단풍	장영준
■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안진영

어머니의 기도

백신고등학교 2학년 9반

장은지

“당신이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정리해요”

“그래, 좋아!! 이제 각자의 삶을 살자고!”

이 날의 악몽을 아직도 나는 잊을 수 없다. 내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을 때 크리스마스이브 날 어머니와 아버지는 헤어 지셨다. 음악을 전공하셔서 감수성이 풍부하고 완벽주의적인 어머니와 모든 일을 대충대충 하시고 술을 좋아하시는 아버지 두 분은 성격 차이로 인해 자주 싸우셨다. 그러더니 결국에는 일이 터지고야 만 것이다. 기쁘고 설레는 크리스마스이브에 난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경험을 하게 된 것이었다. 이 일이 있은 후, 어머니와 내가 지금 집에서 단 둘이 살게 된 지도 벌써 10년째다.

어머니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극복해야 할 어려움이 너무도 많았다. 엄청 추운 겨울날도 난방비 때문에 덜덜 떨면서 지내야 했고 무더운 여름날은 선풍기 한 대로 여름을 나야만 했다. 매번 TV를 통해서만 보던 가난의 모습이 나에게 찾아 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고 인정하기 싫었다. 하지만 내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어머니가 나를 두고 늦게 들어오신다는 것과 무서울 정도로 고요한 이집을 나 혼자 견뎌야 한다는 것이었다.

참다 참다 못해 결국 나는 친구들의 집에 번갈아 다니며 밤 늦게까지 놀러 다니기 시작했고 결국, 혼자 자는 것이 무서워 친구 집 아주머니께 “저희 어머니가 여기서 자고와도 된다고 하셨어요.”라고 거짓말까지 하게 되었다. 엄마를 원망하면서 말이다. 그러면 아주머니께서는 “그래? 그러렴.” 하시며 아무런 의심도 없이 받아주셨다.

한편 집에서는 어머니께서 나를 애타게 찾고 계셨다. 그 다음날 아침에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께서는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데 너가 나한테 이래도 되는거니?” 하시며 혼이 났다.

이때마다 나는 ‘어머니는 맨날 당신이 힘든 것만 생각하시고 나는 얼마나 힘든지 한 번도 생각 안하시더라. 그리고 어머니는 어른이니까 어린 나를 보듬어 주고 아버지의 빈자리까지 배로 채워 주어야 하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과 함께 혹시 어머니마저도 내가 당신의 인생에 짐이 되는 부담스런 존재로 여겨 나를 버리시는게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어 어머니에게 소외감 또한 느꼈다. 그래서 그 불안감으로 나는 점점 더 빗나가게 되었고 어머니에 대한 나의 마음은 점점 멀어만 갔다. 또한 그렇게 혼이 나고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명색이 아버지라면서 내 옆에 같이 있어주지도 않고 나 몰라라 하는 아버지

에 대한 원망은 더없이 커져갔다.

‘이 나이 또래의 다른 아이들은 어머니께 혼나면 아버지께 가서 위로도 받고 애교도 부리고 사랑도 많이 받으며 공주, 왕자 대접 받으면서 크다는데 나만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거지? 이 세상은 정말 불공평해.’ 하는 생각이 들어 세상까지도 원망스러워졌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라는 경구까지도 모두 무의미해졌다. 자연 공부에 손을 놓게 되었고, 성적은 바닥을 기었고, 어머니께 엄청 혼나고 집을 뛰쳐나왔다가 들어가게 되었다. 그 흔히 얘기하는 ‘방황’도 심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나는 어머니께 연락 한 번 없이 밤늦게 까지 친구들과 놀다가 집에 들어갔다.

그런데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질 않았다. 여느 때 같았으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마루에 계시던 어머니께 엄청 혼이 났을 텐데 그날은 달랐다. 조금 열린 안방 문틈 사이로 붉은 불빛과 함께 어떤 말소리가 들렸다. 나는 숨을 죽이고 문 가까이 가서 틈새로 어머니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보았다. 어머니께서는 다름 아닌 기도를 하고 계셨다. 처음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겨 그냥 지나치려 했다. 그러나 내 귀에 들려오는 기도내용이 나의 발목을 붙잡았다. “하느님, 저의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딸 은지를 지켜주세요, 언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느님께서 바른길로 인도하시어 은지가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해 주세요. 또한 제가 은지에게 준 마음의 상처를 모두 낫게 해주시어 제 딸만큼은 저처럼 슬프게 살지 않고 항상

밝고 행복하게 살게 도와주세요. 모든 것은 다 저의 잘못이니 은지에게 만큼은 복을 내려주세요.”

그 기도내용을 들으면서 나의 눈에서는 눈물이 설 새 없이 떨어졌다. 그리고는 문을 열고 어머니께 달려가 어머니를 꼭 끌어안았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해요. 저는 매번 혼내시는 것이 저를 미워하셔서 그러시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저를 위하고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을 왜 이제야 깨달았을까요. 앞으로는 어머니 속 썩이지 않는 착한 딸이 될게요.”

“그래, 나는 너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단다. 엄마는 네가 나처럼 불행하게 살지 않기를 원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라고 혼냈던 거였는데 내가 너무 지나쳤던 것 같다. 은지야, 엄마가 미안하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와 나는 한동안 서로를 부둥켜안고 한참을 평평 울었다.

나는 이날을 계기로 내 마음속에 있던 어머니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깨끗이 사라졌고 어머니와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어머니가 어머니로써가 아닌 여자로서 삶의 삶이 얼마나 슬프고 고되었는지 느낄 수 있게 되었다.

그날 이후로 끝이 날 줄 알았던 어머니와의 대립은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끊이지 않고 되풀이 되었다.

“으이구! 너 이 성적 가지고 뭐해 먹고 살 건데! ‘하나보면 열을 안다’고 공부 잘하면 다른 것도 다 잘하고 공부 못하면

다른 것도 다 못하는 거야!”

정기적으로 보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끝나고 성적표가 나올 때마다 어머니의 잔소리는 끊이질 않는다. 이렇게 어머니께 잔소리를 들을 때 마다 나는 “꼭 공부 잘 한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또 성적이 안 나오면 어머니가 잔소리 하시지 않아도 충분히 저는 속상하고 화가 난다구요! 그리고 성적이라는 것이 한 번에 오르는 힘든거잖아요”

라며 반발을 하곤 한다.

그러나 예전과는 하나 달라진 것이 있다. 어머니를 아직 완전히는 이해하지 못하여 반발을 하곤 하지만 그날을 계기로 나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내가 아직 어머니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은 내가 살아가면서 어머니의 입장이 되어 그것들을 이해 할 거라는 것이다.

또한 나의 어머니께서는 가장 역할까지 하시기 에는 체력적으로 많이 힘드셨다. 어리셨을 적부터 부잣집 큰딸이라며 설거지 하나 하시지 않고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보호 아래 공주처럼 크셨던 어머니였다. 그런데 이제는 ‘공주’에서 ‘무수리’와 같은 삶을 사셔야 할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아마 비참하고 죽을 맛이셨을 것이다. 그렇다고 딸이라고 달랑 하나 있는 것은 맨날 속만 썩이는 철부지이니.....

동생의 편지

능곡고등학교 1학년 11반

조 경 원

내 나이 열일곱, 나의 17년 인생의 14년을 함께 해오고 있는 아이가 있다.

나는 그 아이의 탄생 장면부터 (비록 지금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성장하는 모습을 함께 해오고 있다. 그 아이는 바로 나의 여동생이다. 동생과 나는 3살 차이이지만 덩치가 비슷해서 거의 친구처럼 지낸다. 점점 커가면서 우리는 우리가 함께 지내는 시간의 대부분을 서로의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 하며 보내게 되었다. 그 시간에 우리는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조언해주면서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준다. 그리고 작년에 내 동생은 나에게 정말 큰 힘이 되 주었다.

나는 작년에 (내가 중3이었을 때) 특목고에 입학하기 위해 특목고 입학 전문 학원을 다녔었다. 그 학원에는 대부분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만 있었기 때문에 모두들 열심히 했고, 그 속에서의 1등이 되기 위한 경쟁은 수능을 앞 둔 고3 못지 않은 긴장감 속에서 치열하게 이루어졌었다. 우리는 매달마다 외고 모의고사라는 시험을 보았었는데 그 시험을 보는 날이

면 아이들은 친구사이 이더라도 서로에게 거리를 두었고 시험이 끝난 뒤 시험결과에 대해서는 더더욱 말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아이들은 힘든 싸움을 혼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웃고 있지만 웃는 것 같지 않았고 목소리는 그들의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았다. 나는 그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이 너무 힘들었고 매일 밤 잠자기전에 누군가 나의 고통에 대해서 들어주고 나를 안아주기를 바라며 이불속에 서 혼자 울었다.

더 이상은 힘들어서 못 견디겠다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내 책상위에 펜 몇 개와 편지 한 장이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생각해보니 그 날은 바로 내 생일이었고, 그 펜과 편지는 내 동생이 나에게 준 생일선물이었다. 나는 갑작스러운 동생의 선물에 의아해하며 편지를 읽어보았다. 동생의 편지에는 요즘 언니가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자신이 더 슬프고 언니에게 꼭 도움이 되어주고 싶다며 자기는 언니를 믿고 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니까 힘을 내서 열심히 하라는 말들이 써어 있었다. 그리고 힘든 일이 있다면 자신에게 꼭 말해주어서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었다. 나는 그 순간 온 몸에 온기가 도는 것을 느꼈고 눈에서 따뜻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동안의 힘들었던 마음을 다 토해내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큰소리로 영영 울었다. 몇분 뒤 나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고 그 동안의 나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다. 그동안 나는 나의 힘들고 괴로운 마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려

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었고 그런 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러던 중 동생은 밤중에 내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나를 도와주고 싶어서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따뜻한 편지 한 장을 보냈던 것이다. 동생의 편지는 황량한 사막에서 건조한 모래바람과 먼지들에 쌓여 지쳐 쓰러져 가던 나에게 갑자기 쏟아진 소나기와 같은 것이었다. 편지의 내용은 내 마음속의 건조한 모래바람을 잠재워주었고 나를 덮고 있던 답답한 먼지들을 쓸어내려 버렸다. 그리고 건조하고 황량했던 나의 사막에 오아시스를 만들어 주었고 그로 인해 나는 곧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다.

메말라있던 나의 마음이 동생의 사랑으로 인해 한순간에 물기를 잔뜩 머금게 되었다. 동생에게 정말 고마웠다. 그리고 동생에게 보답을 하기위해 나는 예전의 나보다 더 활발하고 더 씩씩한 모습으로 돌아왔고 동생은 그런 나의 변화를 무척이나 반가워했다. 나 또한 동생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기분이 좋았다. 어린줄로만 알았던 내 동생이 이렇게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있었다니! 정말 뭐라 말할 수 없는 감동이었고 행복이었다.

언젠가 동생과 나의 즐거운 모습을 보고 외동인 친구가 부럽다고 한 적이 있었다. 그 친구는 나에게 동생이나 언니, 오빠가 없는 것은 정말 외롭다고 얘기했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친구에게 길으로는 “동생 너나 다 가져라!”라고 동생이

있다는 것이 귀찮은 일인 양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외동인 아이들이 형제, 자매와 함께하는 즐거움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외로워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리고 나와 동생의 행복한 관계를 다시금 생각해 보았다. 나는 동생과 늘 함께 했었고 그래서 동생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잘 모르고 있었다. 거의 매일 내 옷들을 꺼내 입고는 제대로 정리해서 주지도 않고, 내 물건들을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쓰는 동생이 얄미울 때도 있었고 앞에서 친구에게 말한 것처럼 늘 내 뒤만 졸졸 따라다니고 내 행동을 하나하나 따라하는 동생이 정말 귀찮을 때도 있었다. 또 동생을 아직도 코흘리개 어린아이라고만 생각해서 동생의 생각이나 말들을 무시했던 적도 많았다. 그러나 작년의 경험을 통해 나는 나에게 동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알게 되었고 동생의 소중함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비록 아직도 옷 문제라던가 음식 문제라던가 등등 사소한 일들로 하루에도 몇 번씩 싸웠다 화해했다 를 반복하는 사이이지만.....

그 일 이후 나는 그동안 동생에게 말을 꺼내기가 부끄러워서 내가 진심으로 느낀 고마운 마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글을 통해 동생에게 고마움의 말을 전하고 싶다.

“동생아! 언니가 많이 힘이 들 때 옆에서 큰 힘이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 언니가 너에게 가끔 화를 내기도 하지만 언니는 항상 널 아주 많이 사랑하고 있어. 동생아 사랑해!”

자장면과 보리건빵

고양외국어고등학교 1학년 4반

백 승 현

2001년 봄, 바람이 솔솔 불던 봄날에 유난히 더운 날이었다. 점심을 먹고 꾸벅꾸벅 졸던 나는 그 따스한 햇살을 충분히 느끼고 있었다. 학교 수업은 그렇게 물 흐르듯 지나가 버리고 학교 종이 치자마자 나는 학원으로 쏜살같이 달려갔다. 건물 맨 꼭대기에 있던 학원은 몇 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했는데 그 경사가 가파르고 계단 수도 많아 평소에 학원 한번 오르락 내리락 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날은 등에 날개를 단 듯 계단을 두 개씩 뛰어 올라갔다.

“엄마!”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 나는 힘차게 엄마를 불렀다. 원장실에 앉아있던 엄마는 창문으로 나를 힐끗 넘어보며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섰다. 엄마가 원장실에서 나오자마자 나는 엄마의 허리를 짝 안았다.

“엄마, 오늘은 엄마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진짜 많아요.”

엄마의 허리에 얼굴을 파묻고 어리광을 부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엄마는 엄마의 허리를 쥔 내 팔을 한동안 쓰다듬다

한참 뒤에서야 입을 열었다.

“그래, 학교에서 재미있었나 보네, 우리 딸.”

엄마는 작게 웃음 지었다. 하지만 엄마는 불안하고 초조해보였다. 내가 엄마 얼굴을 뻘히 쳐다보자 엄마는 불안함을 애써 감추려는 듯 활짝 웃으며 말했다.

“엄마도 오늘 우리 딸한테 할 얘기가 있는데, 우리 원장실로 들어가서 얘기하자.”

엄마가 평소와는 다르다는 걸 알면서도 난 신경 쓰지 않았다. 또 누군가가 학원비를 몇 달째 밀리고 있다거나 학교 시험에서 오십 점을 맞아온 거라고 생각했다.

원장실에 날 데리고 들어간 엄마는 아까와 같은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보며 말했다. 그리고는 얼른 휴지 몇장을 뽑아 코에 갖다 대었다. 입을 연 엄마는 울먹이고 있었다.

“삼촌이 곧 데리러 오실거야. 삼촌이 오시면...”

엄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고 나는 두려워졌다. 항상 강했던 우리 엄마가 울고 있었다.

“집에 가서... 그래, 집에 가 있어. 엄마도 곧 갈게.”

엄마는 눈을 휴지로 훔치며 나를 꼭 안아주었다. 엄마 품에 안긴 나는 어안이 병병했다. 학원 수업도 듣지 않고 집에 가라니.

삼촌은 곧 도착하셨고 난 삼촌과 집으로 향했다. 사실 나는 학원 수업을 빼먹고 집에 가서 뭘 할까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삼촌은 아무 말이 없었고 나는 어떤 말도 해서는 안될 것 같았다. 오늘따라 모두 이상하다고 생각하던 차 나는 아파트 입구

앞 앰블런스를 보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알아차렸다. 할머니, 치매를 앓고 계신 우리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 분명했다.

“삼촌,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한테 무슨 일 있죠?”

나는 어느새 눈에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지만 할머니가 돌아가실 거라는 생각에 나는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급히 층을 누르려고 했으나 어디에도 15층은 보이지 않았다. 15층이 없었다. 나는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삼촌에게 말했다.

“삼촌, 15층이 없어요, 어떡해요, 15층이 없어요.”

삼촌은 떨고 있는 내 손을 꼭 쥐 채 말없이 15층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1층, 2층, 3층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다.

할머니가 언제부터 정확히 치매를 앓으셨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할머니는 나를 자꾸 ‘아범’ 이라고 불렀다. 손녀딸이라고 하루에 수십 번을 말해도 할머니는 알아듣지 못하셨다.

“애, 아범아 이리 좀 와봐.”

할머니는 나를 향해 손짓하셨다.

“할머니, 저예요, 할머니 손녀딸이요.”

난 속상한 마음에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할머니는 날 감싸 주지 않았다. 예전의 할머니였다면 나에게 누룽지 사탕 하나를 쥐어주며 꼭 품에 안아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달라진 할머니

는 우는 나에게 알지 못할 말을 퍼부를 뿐이었다.

시간이 갈수록 할머니는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쇠약해져만 갔다. 할머니는 휠체어를 떠나 생활할 수 없었다. 혼자 어떻게든 드시던 식사도 이제는 나의 몫이었다. 자장면을 먹을 때면 내 것보다는 할머니 것을 먼저 챙겨야했다. 자칫 식도에 면발이 걸릴 수 있어 자장면 반 그릇을 8등분으로 잘라 숟갈로 떠먹여드려야 했다. 하지만 할머니의 식사가 끝나고 나면 이미 내 몫의 자장면은 남아있지 않았다. 설사 남아있다 하더라도 면이 우동 면발만큼 통통 붙어있었다.

“이제 그만 너도 먹으렴.”

“알았어요, 그런데요, 엄마, 자장면이 다 붙어서 안 집어줘요.”
가다가다 붙은 면발을 떠는 나를 보며 엄마는 할머니 몫의 자장면에 항상 좀 더 덜어주시곤 했는데 그것은 할머니의 식사를 도우며 간간히 내가 먹을 수 있도록 한 엄마의 배려였다.

하지만 난 할머니 자장면엔 입도 대지 않았다. 날 알지도 못하는 할머니가 미웠을 뿐더러 날이 갈수록 초췌해지는 할머니의 모습은 내 기억 속 인자한 할머니가 아니었다. 춘장 범벅이 된 할머니의 윗도리를 보며 난 웬지 모르게 할머니에게서 멀어져만 갔다. 할머니가 싫었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는 사이 엘리베이터는 이미 15층에 도착했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나는 돌처럼 굳어버렸다. 목에서 자꾸만 무언가가 조금씩 기어 올라왔다. 우리 집 현관 문은 열려있었다. 그리고 현관문으로 주황색 유니폼을 입은

119요원들이 바빠 들락날락거렸다. 빠져나오는 무언가를 참으며 나는 침을 꿀떡 삼켰다. 그리고 새벽녘 흐리게 낀 안개를 헤치듯 집안의 차가운 공기를 헤치고 나갔다. 하지만 결국 나는 하늘빛 어린 할머니의 얼굴을 보자 지금까지 꺾꺾 눌러왔던 그것을 참을 수 없었다. 정갈히 머리를 빗은 채로 반듯이 누워계신, 조용히 눈을 감고 계신 할머니. 그 위로 짧은 자장면 가락을 툇툇 흘리는, 내가 오늘 아침에 까지 본 할머니의 모습이 겹쳐졌다. 눈물은 볼을 타고 끝없이 흘렀다.

“할머니, 분명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야.”

삼촌이 떨리는 내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어린 가슴을 더욱 울리는 것은 할머니에 대한 후회였다. 이제껏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일들이 뜨거운 눈물이 되어 심장을 타고 흘렀다. 오늘 아침에 웃으며 인사하고 학교 갈걸, 할머니 손 한번 잡아드릴걸, 자장면 더 정성스레 먹여드릴걸,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아빠한테처럼 사랑한다고 수백 번 말해드릴걸. 후회는 내 심장을 터질 듯이 꽉 안고 있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었다. 그래서인지 나는 방바닥에 주저앉아 울면서도 식어버린 할머니의 손을 잡을 수 없었다. 후회는 날 놔주지 않았다. 그리고 난 그냥 무서웠다.

“엄마, 울지 마세요. 할머니는 이제 저 하늘에서 편안히 지내실거예요.”

“할머니는 널 정말 사랑하셨단다. 누구보다 널 아끼셨지.”

“알아요, 엄마. 저한테 만큼은 할머니 그 누구보다 밝게

빛나고 있어요.”

내 모든 것을 사랑했던 할머니는 그렇게 닿을 수 없는 별이 되었다.

2007년 가을이다.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먼저 보내신 뒤 조금씩 기력이 쇠하셨다. 그리고 11살, 어리기만 했던 나는 어느새 생각 많은 17살이 되었다. 시간은 흘렀지만 할머니 아직 우리 가족 맘속에 숨쉬고 계신다. 할머니가 별이 된 후 한동안 우리 가족은 모두 빈 휠체어를 볼 수 없었다. 가슴만 미어질 뿐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할머니의 죽음은 할머니와의 시간을 아픈 기억이 아닌, 가슴 속 추억으로 남게 했다. 난 생각한다. 할머니의 죽음은 단순한 슬픔보다 더 큰 무언가를 남겨주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느낄 수 없는 것, 손의 온기를 느끼고 뜨거운 눈물을 나눠야만 얻을 수 있는 것.

몸이 멀면 마음도 자연스레 멀어지듯, 함께 지내지 못하면 가족이 떠난 뒤에 공허함은 그냥 그렇게 흘러가버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항상 행복할 수 만은 없더라도 함께 지낸다면 그 공허함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더욱 더 깊은 것으로 와 닿는다. 6년 이 지난 지금도 자장면을 먹을 때면 나는 내 옆 빈자리를 새삼스레 깨닫는다. 춘장 범벅이 된 할머니의 윗도리를 볼 수 없는 나는 ‘할머니’란 존재의 빈자리를 가슴 깊이 느낀다. 할머니의 죽음은 견디기 힘든 슬픔을 안겨주었지만 나는 이로 인해 11살 어린나이에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다. 지금 이 순간 사랑하지 않으면 막상 사랑해야만할 때 사랑하지 못한다

는 것,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도 큰 후회로 남는다는 것.

“애 아범아, 이리 좀 와봐.”

할아버지가 날 향해 손짓하신다.

“슈퍼 가서 보리건빵 좀 사와.”

“할아버지, 지금 새벽 1시예요.”

요즘 할아버지는 하루 온 종일 보리건빵만 찾으신다. 낮과 밤 구분 없이 당신이 보리건빵을 드셔야 한다면 꼭 드셔야 한다. 새벽 1시 시험공부를 하다 지쳐 달려 가보면 보리건빵, 좀 쉬려하면 또 보리건빵. 이제는 할아버지가 보리건빵에 ‘보’자만 찾으셔도 보던 책을 담담히 내려놓는다. 어쩔 때는 방문 닫고 못 들은 척 하고 싶지만 그럴 때 마다 별은 유난히 밝게 빛난다. 낮에도 밤에도 별은 내 마음을 내려다보고 있다.

“애 아범아, 이리 좀 와봐.”

난 다시 보리건빵과 실랑이를 벌여야 할 게 분명하다. 그런데 이상하게 행복하다. 할머니에 대한 후회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마음보다는, 그냥 사랑하고 싶다.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그리고 행복한 일이다. 그래서 오늘도 보리건빵을 사러가는 나의 발걸음은 깃털보다도 가볍다.

우리의 빛과 소금

화정고등학교 2학년 5반

김 나 영

정보 통신의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세계 각국의 문화를 접할 수 있게되었다. 처음에는 외국의 음식, 의상, 영화 등의 문화를 접하면서 우리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켰지만, 최근에는 그 정도가 지나쳐 우리의 전통문화를 등한시 하고 있다. 실제 어렸을 때부터 패스트푸드와 같은 서양 음식에 길들여져 김치, 된장과 같은 우리의 전통음식을 먹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생겨나고 있고, 우리말도 채 구사하기 전에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부터 배우는 어린이들이 늘고 있다. 위기에 처한 우리의 전통문화를 왜, 우리가 어떻게 보존해야 할까?

어떤 사람들은 세계화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지구가 하나의 마을처럼 융화되고 있는 시점에 꼭 전통문화를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세계화의 일면만 보고 내리는 주장이다. 나라들 사이에서 자유로이 문화가 오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화가 통합되고 있지는

않다. 문화는 오랜 시간, 일정한 지역에서 만들어지므로 한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이다. 그러므로 문화를 잃어버릴 경우 나라를 잃게 된다. 가까운 예로 과거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문화의 대표인 언어, 즉 우리말의 사용을 금지했다. ‘나의 소원’에서 백범 김구 역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높은 문화의 힘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또한 현대의 문화는 첨단 과학 기술만큼의 경제적인 가치를 지닌다. 미국의 음식 문화를 대표하고 있는 맥도날드는 다국적 기업으로 발전하여, 지금은 세계 각지에서 맥도날드 지점을 세우고 엄청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한류 열풍으로 몇 년 사이 외국 관광객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드라마와 영화 산업도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경제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도 전통문화는 충분히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다.

그렇다면 전통문화를 어떻게 보존해야 할까? 우선,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한다.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중매체, 즉 텔레비전과 라디오에 전통문화를 소재로 한 공익 광고를 많이 만들고, 전통문화가 처한 위기와 실태 등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야 한다. 외국인들과 쉽게 교류가 가능한 인터넷을 활용하여,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홈페이지를 많이 만들고 이메일로 하는 펜팔을 통해 외국인과 문화를 공유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펜팔은 동시에 외국어 구사 능력을 길러주니 일석이조라 할 수 있다.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박람회 자주 개최하고,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박물관도 축제나 이벤트를 통하여 활성화 시켜야 한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문화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게 교과서 외에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배우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학생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가 배울 수 있게 마을 회관 같은 공공시설에 위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다. 또한 전통문화 중 무형문화재인 탈춤, 판소리, 태권도 등을 보존하기 위해 위와 같은 문화들을 지켜나갈 인재들을 많이 육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통문화를 가르치는 전문적인 교육기관을 여러 개 만들고, 그 기관에 대한 정부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전통문화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하나의 브랜드와 같으므로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보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외국의 문화를 수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전통문화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와 나만이 알고있는 조약돌

백신고등학교 2학년 8반

이 하 림

초등학교 2학년. 어른들은 말한다. “너는 아직 어려서 사랑이라는 걸 몰라!” 하지만 아홉 살 꼬마라고 해서 사랑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어릴 적 소꿉놀이를 통해 엄마 아빠가 하는 일을 알았고, 엄마 아빠에게 매일 ‘사랑해요’ 하며 입맞춤하는 것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러나 내가 누구보다도 ‘사랑’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던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아직 시집을 가지 않은 아빠의 여동생. 노처녀 옥화이모 때문이다.

2년 전 옥화이모는 우리 집 근처로 근무지 발령을 받으면서부터 함께 살게되었다. 그 당시 우리 집은 이모에게 방 한 칸을 따로 내어줄 만큼 살림이 넉넉하지 못했다. 당연히 이모는 내 방에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모로부터 그 아릿하고 묘한 사랑의 감정들을 정리할 수가 있었다. 옥화이모가 얼굴이 빨개져서 이상한 냄새를 풍기며 밤늦게 소리를 고래

고래 지르며 집으로 들어와 가슴을 뜯을 때 ‘아픈 사랑’을 보았고, 또 어떤 날은, 꽃을 한 아름 안고 “다운아!”하고 들어오는 이모를 보면서 ‘설레는 사랑’을 보았다. 요즘 옥화이모가 매일 밤늦도록 새로 생긴 남자친구랑 통화하며 깔깔 웃는 걸 보면 옥화이모는 행복한 사랑 중이다. 때문에 나는 이모의 행복한 사랑소리에 밤잠을 설쳐야만 했다. 하지만 밤늦도록 잠이 오지 않아 내가 옥화이모의 탓을 했던 것은 어쩌면 핑계 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 사랑은 지금으로부터 두 달 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6월은 내게 너무도 설레는 달이었다. 왜냐하면 아빠가 내게 공주 인형 선물을 해주시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변변한 인형 하나 없어 소꿉놀이를 할 때면 순이에게 항상 빌려야만 했던 나에게는 공주 인형은 너무도 특별했다. 순이 고 얄미운 계집애는 내게 못난이 인형만을 떠넘기거나 혹 자기 맘에 안 들면 그 인형마저 빼앗아가 나는 늘 혼자 사는 아줌마 역할을 해야만 했다. 순이의 횡포에 견딜 수 없었던 나는 내게 인형이 생기면 제일 먼저 순이에게 약 올릴 것을 생각하여 며칠 동안 순이네를 가지 않았다.

집에는 엄마, 아빠 모두 가게에 나가 없고, 옥화이모도 회사 핑계로 늦게 들어와 일찍 갈 필요가 없던 나는 학교가 파하고 지루한 시간을 혼자 보내야만 했다. 그 날도 여느 때처럼

나는 학교 운동장에서 그네를 타며 무료한 시간을 보냈다. 하늘도 대낮의 지루함을 떨치려는 듯 번지는 노을빛으로 집에 가야할 시간을 알려주었다. 나는 좀 더 붉어진 하늘을 박차듯 그네에서 뛰어내렸다. 멋지게 운동장에 착지하려 할 때 문득 수업 중 짝 민철이가 한 말이 떠올랐다.

“다운아 그거 알아? 아무도 없는 학교 운동장에 크게 이름을 쓰고 소원을 빌면 이뤄진대.”

“에이, 거짓말 어떻게 그래?”

“정말이야. 옆 반에 반장이 반장선거 전에 이름을 크게 쓰고 반장되게 해 주세요 그랬더니 진짜로 반장이 되었다는데.”

“그건 다 뻥일 뿐이야. 바보 민철아!!”

그 당시 내 소원은 잠을 자고 일어나면 내 생일이 되어서 공주인형 선물을 받는 것이었다. 민철이 앞에서는 어른인 척 그런 것은 거짓말이라며 무심하게 말 했지만, 나는 심심한 시간을 때우는 것을 핑계 삼아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운동장에 크게 ‘한.다.운.’ 이름 석 자를 써 보기로 마음먹었다.

‘민철아, 소원이 정말 이뤄지면 내가 너 소원도 빌어줄게.’ 나는 운동장에 이름을 쓰기 위해 큰 나뭇가지를 찾기 시작했다. 두리번두리번 운동장을 돌고 있을 때 나는 학교 정원 느티나무 그늘 아래에서 반짝 반짝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하곤 다가갔다. 그것은 꽃들이 몇 송이 심어져 있고, 주위는 조약돌로 꾸며져 있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듯한 것이었다. 하얗고 작은 돌이

엄마의 반지보다도 예뻐 보여서 그만 나도 모르게 주머니에 넣어 버렸다. 노을 아래서 더욱 예쁜 빛을 내는 조약돌을 순이에게 자랑하고픈 마음에 나는 일주일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한 개씩 집으로 가져왔다. 주말에 집안 청소를 하던 이모가 돌을 모을 수 있는 조그만 어항을 찾아 준 뒤부터 나는 돌을 더 많이 가져오기 시작했다. 이상한 것은 돌을 가져오면 가져올수록 돌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는 것이었다. 그때까지만해도 경비원 아저씨께서 정원을 꾸미는 일인 줄만 알던 나는 아저씨를 마주칠 때마다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쿵닥쿵닥 뛰어 도망 다녔다.

그것이 아저씨가 꾸며 놓은 것이 아님을 알게 된 것은 조약돌을 모은 지 2주일이 넘을 때쯤이었다. 그 날은 평소보다 늦게 조약돌이 있는 장소로 가게 되었다. 경비원 아저씨가 교실 앞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해가 저물기 전까지 집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나는 서둘러 조약돌이 있는 장소로 달려갔다. 그 때, 정원으로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한 남자 아이의 울음소리였다. 나는 도둑고양이 마냥 살금살금 그 소리의 정체를 알기 위하여 다가갔다. 소리의 정체는 우리 반 반장 동우의 울음소리였다. 동우는 발표도 잘하고 선생님의 귀여움을 독차지 하는 아이였다. 여학생들에게는 우상이었지만 남학생들에게는 시기의 대상이기도 했다. 친구들과도 잘 어울려 항상 밝게 웃으며 다니는 동우가 나만이 알고 있는

조약돌이 있는 장소에서 울고 있는 것은 나로서는 의아한 일이었다.

나는 동우에게 다가가 옆에 앉았다.

“동우야 여기서 왜 울고 있어?”

“형이.. 오지 않아.. 참새 떼 때문에 형이 오지 않아.”

‘형이 오지 않는다고?’ 동우의 형은 동우보다 4살 많은 6학년, 우리 학교에 같이 다니던 형이었다. 병을 앓고 있었던 형은 몇 달 전 결국 죽고 말았다는 소식을 아침조회 시간에 듣고 우리 학교아이들은 눈물바다가 되었었다. 그런데 동우의 형이 오지 않는다니. 나는 동우가 이모가 보는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처럼 미쳤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우야 형이 오지 않아? 형은 전에 죽었잖아.”

“여기 꽃을 심고 하얀 돌로 형을 지켜줘야 하는데 참새 떼들이 돌을 자꾸만 주워가... 그래서 형이 오지 않아..”

‘아! 동우가 조약돌의 주인이었구나.’. 나는 깜짝 놀라서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 순간 내방 창가에 놓인 조약돌들이, 동우에 대한 미안함으로 내 발을 푹푹 묶어 버렸다.

어떻게든 변명을 해야만 했다. 울고 있는 동우를 달래줘야 한다고 생각한 나는 엄마에게 거짓말을 하듯 유창하게 다른 생각을 동우를 위하여 생각했다는 듯이 우쭐대며 말하였다.

“동우야 조약돌을 다른 곳에 꾸미면 되지 않아?”

하고 말하자 동우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나에게 물었다.

“그렇지만 형은 조약돌이 여기 있는 줄 알고 있는 걸.”

“다른 곳에 꾸미고 거기까지 길을 갈 수 있는 안내판을 만들면 되잖아!”

나의 생각에 동우도 동의를 했는지 울음을 그친 동우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나 혼자 하긴 너무 힘이 드는걸. 다운아 도와줄래?”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동안 조약돌의 주인도 모르고 매일 가져와 동우를 울게 한 것이 미안했던 나는 동우의 부탁에 허락을 하였다. 하지만 울음을 그친 동우의 얼굴에 나타난 희미한 미소는 나에게서는 별 같이만 느껴졌다.

“다른 장소는 어디로 할까?”

“내가 아는 장소가 있어. 나만 따라와”

나는 그네 뒤편 은행나무 아래로 동우를 데리고 갔다.

“형이 여기를 찾아 올 수 있을까?”

“물론이지 그네를 타면서 하늘에 빌면 형이 이리로 찾아 올 수 있을 거야”

우리는 은행나무 아래에 꽃 두 송이를 꺾어다가 심어 놓고 조약돌로 주변을 꾸며 넣었다. 하얗고 작은 돌이 정원아래 있을 때 보다 더욱 빛났다. 그 뒤 조약돌을 가져오는 일은 없게 되었다. 대신, 학교가 끝나고 동우와 그네를 타면서 은행나무 아래 조약돌을 지키기 시작했다. 처음엔 동우와 같이 있는

시간이 미안함으로 어찌해야 할지 몰랐지만 점점 동우와 보내는 시간이 순이네서 노는 것보다 더 신나는 일이 되었음을 알았을 때는 이미 참새 떼가 나 라는 사실까지도 잊어버렸다.

“동우야 조약돌은 어디서 가져오는 거야?”

“형이 있는 곳으로부터..”

“형이 있는 곳?...하늘?”

“아니 바다. 형은 바다에 있어.”

“그럼 바다에 있는 조약돌을 주워 오는 거야?”

“응. 형이랑 같이 학교에 오고 싶어서. 다운아 너한테 고마워. 더 이상 참새 떼들이 조약돌을 가져가지 않아.”

“아, 아니야. 동우야 그거 알아? 학교 운동장에 아무도 없을 때 크게 이름을 쓰고 소원을 빌면 이뤄진대”

“정말? 다운이 너 소원은 뭐데?”

“음... 내소원은 어른이 되는 거야. 너는?”

“나는, 형을 만나는 거.”

“형을 만나는 거?”

조약돌에서 항상 좋은 냄새가 났다. 바다 냄새였나 보다. 창가에 있는 조약돌을 보면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나는 동우와 그네를 타는 일을 계속하였다.

학교가 끝나면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동우는 내게 필요한 친구였고 동우도 내가 필요한 친구였다. 그리고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 동우를 좋아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조약돌 때문에 미안한 마음으로 동우를 보면 떨리는 줄 알았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떨리는 마음은 더욱 커졌다. 처음과 다른 느낌으로... , 학교 가는 것이 즐겁고, 동우 얼굴만 떠올랐다. 동우만 생각하면 내 가슴에는 몸쓸 방망이질은 계속되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어느 날 잠이 오지 않아 이모한테 물어봤다.

“이모, 누굴 좋아하면 어때?”

“좋아하면? 그 사람하고 있으면 가슴이 떨리고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 다운이 너 좋아하는 사람 생겼구나?”

“아, 아니야 이모 나 잔다!!”

정말이지 그때 나는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가슴이 항상 떨렸다. 그래서 내 생일이 다가오는지도 잊은 채 지내고 있었다. 그렇게 월요일 짝을 바꾸는 날이 되었다. 선생님은 오늘은 특별하다며 우리에게 제안을 하였다.

“여러분 이제 여름방학도 다가오는데 이번에는 짝을 앉고 싶은 사람끼리 앉을까요?”

“네!! 좋아요!!”

“이번에는 좀 특별해요. 여학생들은 앉아 있고 남학생들이 좋아하는 여학생들 옆에 가서 앉으세요!!”

남학생들은 싫은 티를 내었지만 여학생들은 다들 설레는 얼굴들이었다. 나도 예외는 아니었다. 며칠 전부터 그네를 타며 함께 많은 시간을 가진 동우와 짝이 되고 싶었다.

“자!! 여학생들은 눈을 감고... 남학생들은 자리에 앉아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다. 엄마한테 혼날 때 보다 더욱 뛰었다. 그때, 누군가 내 주위에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여기 앉아도 돼?”

동우의 목소리였다. 나는 너무 기뻐 “응!!”하고 바로 대답했다.

동우와 짝이 된 나는 더욱 동우가 좋아지기 시작했다. 창가에 있는 조약돌도 베란다로 치워 버렸다. 그리고 형이 죽고 나서 발표도 없고 웃지 않던 동우가 나와 그네를 타기 시작하면서 웃기 시작하였다. 여느 때와 같이 그네를 타고 있을 때 동우가 말을 건네 왔다.

“다운아, 너랑 놀고 있으면 형 생각이 안나. 신기하지?”

“나랑 같이 조약돌을 지켜서 그래 동우야 며칠 뒤에 내 생일인데,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친구들 다 모여서 생일 파티 할 거야. 나 아빠한테 공주 인형도 선물 받아.”

“응 꼭 갈게. 뭐 갖고 싶은데?”

“선물 안 받아도 돼. 대신에 꼭!”

6월 14일. 사건은 거기서 시작되었다.

내 생일날 공주인형을 받을 생각에 무척이나 아침부터 긴장하고 있었다. 이모가 사준 예쁜 치마를 입고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3시가 되고 친구들이 한명씩 오기 시작하였다. 아이들의 생일 축하노래를 듣는 것, 케이크에 초를 끄는 것, 공주

인형을 받는 것, 특히 순이의 질투어린 눈빛에 나는 기뻐서 날아갈 지경이었다. 아이들이 다 모이고 우리는 숨바꼭질을 했다. 생일이라고 나는 술래가 되었고 재빨리 하나 둘씩 달아나 숨는 아이들의 모습이 재미나서 웃음이 나오려고 할 때, 베란다 뒤로 숨어 들어가는 동우의 뒷모습을 보고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아무것도 모르고 참새 떼인 아이를 친구라고 믿고 함께 웃었던 동우는 베란다에서 빛나고 있던 형에게 주었던 조약돌을 보고는 소리를 질러댔다.

한 소녀의 탄생을 축하해주는 생일파티 장소를 동우는 뛰쳐나가고 말았다. 아이들 모두 의아하다며 베란대로 달려갔지만 이유를 알고 있는 나만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미안함에 눈물만 흘려야 했다.

진작 말하면 좋았을 걸 하고 후회하며 몇 번이고 동우에게 말을 걸려고 하였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다. 그 이후 여름 방학식까지 동우와 그네를 타면서 조약돌을 지키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동우에게 편지를 써서 주머니에 넣고 다녔지만 건네 줄 수 없었다. 동우는 형이 죽은 날처럼 또 웃지 않는 날을 보냈다. 그렇게 방학이 시작되고 나는 조약돌을 창고에 치우고 거들 떠 보지 않았다. 하얀 빛을 내며 착한 웃음을 짓고 있는 조약돌이 그 무엇보다도 내게는 미워 보였다. 방학 동안 다시 공주인형을 가지고 순이네를 놀려가며 동우를 잊은 채 시간을 보냈다. 순이와 공주인형을 가지고

놀이 지내는 사이 방학은 끝나고 개학을 하게 되었다.

개학식 날 동우에게 편지를 주며 사과를 하려고 나는 전 날 연습도 했으므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학교에 향했다. 그런데 1교시가 지나도 동우가 오지 않았다. 2교시 선생님이 안타까운 얼굴로 들어오시더니

“여러분 오늘은 슬픈 소식이 있어요. 우리 반 반장이었던 동우가 전학을 가게 되었어요. 자 동우야 아이들에게 인사 하렴.” 그리고 교실 앞문이 열리더니 동우가 들어왔다. 벌써 반 아이들 중 몇은 눈에 눈물이 글썽이기 시작하였다.

“애들아 잘 지내 우리 어른이 되어서 꼭 만나자. 안녕”

“동우야.”

아이들 모두 동우에게 달려들어 올었다. 하지만 나는 동우에게 달려 갈 수 없었다. 주머니에 있는 사과 편지도 건네 줄 수 없었다. 그냥 나는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동우는 그렇게 나가고 우리들은 자리에 앉으라는 선생님의 말에 모두 자리에 앉았다. 그 때, 창가에 앉았던 성철이가 창문 밖을 보며 놀래서 말을 하였다.

“애들아 동우가 운동장에 뭐라고 쓰고 있어!”

“뭐라고??”

모두들 창문가에 하나 둘 자리를 잡고 동우가 쓰는 것을 내다 보았다. 키가 나보다 조금 컸던 동우는 자기보다 조금 작은 큰 나뭇가지로 운동장에 무언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다.

한.. 다..운

동우는 이름을 다 쓴 뒤 우리 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다.

“다운아 미안해! 우리 어른이 돼서 꼭 만나자 이게 내 소원
이야”

“동우야.”

반 아이들이 울고 있을 때 나의 눈에서도 뜨거운 무언가가
느껴지기 시작하였다. 동우를 속인 미안함과 좋아했던 감정
들이 섞인 눈물이 흘렀다.

동우가 없는 하루가 끝나고 나는 집으로 달려갔다. 창고에
있던 먼지 쌓여있는 어항 속 조약돌을 들고 학교로 달려갔다.
은행나무 아래 조약돌들은 예전처럼 빛나는 빛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동우가 형을 그리워했던 장소, 내가 동우를
좋아했던 장소에 조약돌과 전해 줄 수 없었던 편지를 놓았다.

아픔을 뒤로한 웃음

화정고등학교 2학년 6반

양 주 혜

내 인생 18년. 그동안 수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했다. 어릴 땐 마냥 선생님이 좋아서 나도 꼭 좋은 선생님이 되겠다는 다짐을 몇 번 한 기억이 난다. 그러한 다짐을 많이 했던 걸로 보아서 나는 정말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 뵈었던 것 같다. 지금 우리 담임선생님만 해도 그렇다. 처음 보는 분이었지만 금세 내 곁에 다가와 따스한 정을 느끼게 해주셨고, 선생님만 한 분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해주셨다. 반 아이들의 대화에 같이 웃어주시고, 우리에게 웃음을 선사하기도 하셔서 동질감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청소시간에는 청소도 열심히해서 가끔 선생님이 학생이라는 착각까지 들게 될 정도다. 이렇게나 좋은 분인데 요즘 예의 없는 아이들이 많아져서 굳어지는 얼굴이 늘어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될 때가슴이 많이 아프다. 하지만 평소 선생님의 모습에선 그런 힘든 점을 찾아보기 어렵다. 분명 선생님께서나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일, 시련이 있었을 것 같은데 겉으로 내보이지지 않는다. 오히려 밝은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시려고 한다. 그래서인지 선생님의 모습에서 나의 옛 중학교 선생님 두 분의 얼굴이 문득 떠올랐다.

내 나이 14살, 중학교에 갓 입학한 나는 한 여자 선생님을 중학교 첫 담임선생님으로 맞이하게 되었다. 아직도 그 분의 성함이 기억난다. ‘도정숙 선생님.’ 자그맣고 새하얀 얼굴을 가지신 도정숙 선생님은 수학 과목을 맡으셨는데 하나하나 조목조목 쉽게 설명해 주셔서 아이들이 참 좋아했던 분이었다. 지금은 수학을 싫어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좋아하는 과목 중 하나로 꼽았었다. 한번은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학생이었을 적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자신이 가난한 생활 속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것이다. 도서관에서 밥 한 끼를 초코렛 바 하나로 때워가며 공부를 하셨다고 했을 땐 의외였다. 잘 웃으시는 선생님의 얼굴에서 그런 시련을 겪었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난 생각했었다. 선생님은 그런 시련을 이겨냈으니 지금의 자리에서 밝게 웃고 계실 수 있는 것이라고.

그 다음 해에 난 또 다른 아픔을 가진 여자 선생님 한 분을 담임선생님으로 맞이하게 되었다. 과학 과목 담당이셨던 ‘김소희 선생님’은 키도 크시고 날씬한데다가 얼굴도 예쁘

셨다.

굉장히 유머러스하시고 아이들과도 금방 친해지셔서 선생님의 아픔은 생각할 겨를도 없었던 것 같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수업시간에 얘기해주신 가정사는 반 아이들 누구도 상상할 수도 없었으리라 생각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혼 이야기부터 새엄마 이야기 등등 선생님은 이야기를 하면서 눈시울을 붉히셨다.

내가 그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내기엔 지금도 너무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선생님은 내 기억 속에서 활짝 웃고 계신다. 수학여행 때 우리 방에 들어오셔서 신나게 놀아주시던 일, 수업시간에 자신의 에피소드를 얘기하며 같이 웃어주시던 선생님의 웃는 얼굴이 내 머리 속 한 구석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적어도 나를 맡아주셨던 담임선생님 중에서는 이렇게 아픔을 가지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웃음을 잃지 않으셨던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사춘기를 무사히 지나오고 시련이 닥쳤을 때 선생님을 떠올리며 나를 위로하고 마음을 바로 잡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진정한 ‘좋은 선생님’이란 수많은 우여곡절을 이겨내온 후에 되는 것이다.

지금 곁에 그런 선생님이 있다면 선생님을 맘 아프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나중에 후회스럽지 않을 것이다.

선생님의 수화

화정고등학교 2학년 6반

강 해 현

“너의 꿈은 뭐니?”

“사회복지사요~!”

어디서든 누가 물어보던 간에 나는 나의 꿈을 자랑스럽게 대답할 수 있다.

나의 아름답고 소중한 꿈 ‘사회복지사’ 나에겐 그 꿈을 갖게 해주신 선생님이 한 분 계신다.

세월은 거슬러 올라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담임선생님과 무척 친했던 나로서는 6학년이 된다는 것이 무척이나 아쉬웠다. 좋은 선생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6학년 교실에 들어섰을 때 피부가 까무잡잡하시고 약간 느끼하게 생긴 남자 한분이 투박투박 우리 교실을 향해 발걸음 하셨다. 푸근한 인상이 마치 아빠 같았던 그 분은 바로 나의 꿈의 첫걸음을 장식해주신 김한조 선생님이시다.

사회시간이 되면 선생님께선 지루한 사회이론 대신 흥미로운

우리 역사를 자주 말씀해주시곤 했다. 얼마나 열정적이셨으면 지금도 역사를 설명하실 때의 선생님의 말씀과 표정이 아른 거릴 정도이다. 급식시간 때에는 일일이 우리에게 밥을 담아 주시면서 잘 먹으라고 인사해주셨다. 아직도 제육볶음 같은 고기반찬이 나온 날이면 그걸 밥과 함께 주걱으로 비벼서 주신 기억이 생생하다. 그거 먹으려고 일부러 급식 늦게 먹는 아이도 있었는데……. 그렇게 급식이 끝나면 한두 명씩 선생님 곁에 붙어서 어깨 주무르고 이야기하고 같이 웃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셔도 선생님께선 무엇이든 학생들과 함께하셨다.

유치원생만 하는 줄 알았던 학예회가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때 열렸었다.

학예회가 열리기 몇 주 전 다른 반은 각자 준비해온 장기 자랑으로 연습을 하고 있을 무렵에 우리 반은 선생님께서 클래식 기타와 노래방 기계 비슷한 걸 들고 오셨다. 그리곤 기타를 어떻게 전선과 연결시키고 나니 웅장한 소리가 나면서 모든 아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아주 능숙하게 기타로 한 곡을 뽑으시더니 우리에게 ‘사랑으로’라는 곡의 악보를 나눠주셨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있지~’ 감미로운 선율이 일품이었던 그 노래에 우리 반 아이들은 모두 심취되어 힘껏 노래를 불렀다. 그렇게 얼마나 불렀을까?

이번엔 함께 들어만 보자며 기타를 내려놓으시곤 컴퓨터로 곡을 키셨다. 다들 약간씩 소리를 내가면서 따라 부르고 있었다. 그러자 선생님께선 손으로 울동을 하시기 시작했고 그건 소리없는 언어, 바로 수화였다.

수화는 내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내가 얼마나 수화에 관해 이야기 했으면 올 엄마도 그 때 내가했던 얘기를 지금도 잊지 못하신다고 했다. 이것을 계기로 중학교 때도 다른 클럽활동 다 제쳐두고 수화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 수화부는 나에게 봉사활동의 길을 열어주었다. 만약 내가 그 때 수화를 접하지 못했다면 지금 내 머릿속 한편에 자리하고 있는 봉사활동에 관한 아름다운 추억들은 없었을 것이고 지금 나와 같은 꿈을 꾸어 가는 친구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어쨌든 그렇게 우리 반은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학예회를 준비했다. 노래를 부르는 친구가 있으면 기껏 아이들은 백댄서가 돼 주었고 서로가 공연을 하겠다고 아우성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학예회는 진행되었다. 갖가지 아이들의 공연들로 선생님도 부모님도 모두 함박웃음을 지으셨다. 그리고 마지막 수화공연. 잔잔한 멜로디와 손과 눈 끝에서 전해져오는 수화로 우린 부모님을 인도했다. 다른 반은 다들 시끌벅적했지만 우리 반만은 진지했다. 수화가 끝난 후 쏟아지는 갈채는 지금도 잊지 못한다.

어느 샌가 초등학교 6학년이 다 끝나가고, 중학교에 올라갈 때, 그 때 나랑 같은 중학교를 가는 아이는 우리학교에 달랑 두 명이었을 때 선생님께선 날 위로해주셨다. 그 때 나에게 쏟아준 애정이 너무나 좋아서 난 내가 원해서 그 학교로 갔다고 차마 말하지 못했다. 졸업식이 되던 날, 선생님께선 칠판 가득히 우리 반을 사랑한다는 내용으로 편지를 쓰셨다. 쏟아져 나오는 슬픔을 잘 참고 있었는데 빨갛게 충혈 되어 있던 선생님의 눈을 본 순간 가슴 가득히 안고 있던 선생님에 대한 감사함과 사랑이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다.

고 2가 되어서도 난 그 선생님만 떠오르면 가슴 한편이 아려온다. 내 인생과 꿈에 있어 길을 열어주신 김한조 선생님. 그 분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꼭 대한민국 최고의 사회복지사가 되어 선생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줄 것이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찬란한 슬픔의 봄

화정고등학교 2학년 10반

장 소 영

아침 햇살이 나의 잠을 깨우고 병실 창문을 따스하게 비춘다. 오늘도 난 이곳에서 나만의 하루를 시작한다.

“주사 맞을 시간입니다~”

나의 담당 서진주 간호사가 들어온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녀가 묻는다. 매일 아침마다 묻는 그녀의 말에 나는 수 백 번, 아니 수 천 번을 대답했다. “네, 진주 씨네요?”라고 말이다. 나는 말도 할 줄 알고, 정신도 말짱하다. 하지만 그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모두 내 말을 듣지 못한다. 이곳에 온 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내 말과 행동에 반응해 주지 않는다. 그렇다. 나는 의식불명의 혼수상태에 빠져 심장만 뛰고 있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식물인간이다. 겉으로 보기에 그렇다는 것이다. 난 믿지 않았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나는 이렇게 멀쩡히 깨어 있는데 현실은 왜 그렇지 않은 것일까.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왜 나를 보지 못하고 외면하

는 것일까.

하루 종일 누워만 있는 난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지만 답은 나오지 않는다. 운이 좋으면 언젠간 나의 의식이 진짜 돌아와서 나를 이 상황에서 구제해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내 모습까지도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며 무언가 바라는 것조차도 내겐 과분하다. 왜냐면 난 어차피 죽을 목숨이었으니까 지금 이런 상태가 되지 않았더라면, 감옥에서 꼼짝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형수가 되었을 거다. 비록 정신만 온전하고, 그조차 나만 아는 사실이지만 난 지금 이렇게라도 살고 있는 것에 대해 매일 밤 하느님께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린다.

의사선생님이 오신다. 이번엔 어떤 말을 하일까. 내 몸도 내 정신처럼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

“서간호사, 주사는 매일매일 안 빠뜨리고 있지?”

“그럼요, 이 환자... 벌써 3개월째인데 언제쯤 의식이 돌아올까요?”

“그러게. 어제도 경찰청에서 전화 왔던데. 빨리 회복되어야 다시 감옥으로 보낼 수 있다면서…….”

“참, 사형수라고 했나요?”

“응, 원래 살인자였는데 경찰한테 쫓기다가 차에 치여서 이렇게 되었나봐.”

“그렇구나. 겉보기에는 항상 미소를 머금고 있어서 천사

같고, 선량해 보이는데. 안 믿어져요. 사형수라는 걸 알면서도 무섭다는 느낌보다는 포근하게 감싸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꼭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깨어나면 물어보고 싶어요. 어찌다가 살인자라는 이름표를 붙이게 되었는지….”

진주 씨의 말을 듣고 있던 의사선생님이 말한다.

“서간호사가 이 환자를 정성스럽게 간호했나 보네. 내가 볼 때보다 서간호사가 볼 때 항상 미소를 띠고 있는 것을 보니 말이야. 허허.”

그날 오후, 둘의 대화를 듣다보니 내가 왜 벼랑 끝까지 와서 떨어질 일만 남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지혁이라는 이름으로 고작 30년을 살면서 몇 번의 살인 끝에 사형 판정을 받고 쫓기다가 식물인간이 되기까지 내 인생이 파란만장하게 너무나도 비참하게만 느껴지는 지금 누굴 원망할 수도, 누구에게 하소연 할 수도 없다. 지금까지 참아온 내 분노의 눈물이 바다를 건너 저 멀리 태평양까지 넘쳐흐를 것 같기 때문이다.

“파르르릉~ 파르르릉~” 전화벨이 울린다. 지나가던 진주 씨가 전화를 받는 모습이 보인다.

“네, 하늘병원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보세요. 여기 서울 서부경찰청인데요. 강지혁 환자 상태가 어떤가 해서요. 벌써 3개월이나 지났고, 차도가 없으면…”

“그 환자분이 지금은 차도가 없어 보이지만 곧 일어나실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지도 벌써 세 달이나 지났습니다. 계속 안 깨어날 지도 모르는, 그것도 어차피 사형수감인 사람을 마냥 기다릴 수 없습니다. 가족도 찾을 수 없어 생사를 결정하기 곤란하네요. 일단 저희 경찰청에서 최종 통보를 내려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전화 드렸습니다.”

갑자기 진주씨의 얼굴이 굳는 것 같더니 내 병실 쪽을 쳐다본다.

“그건 맞는 말씀인 것 같네요. 강지혁 환자분의 생사 여부를 저희도 장담할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분의 심장은 지금 뛰고 있어요. 다시 회복될 가능성은 낮다고 해도 병원은 사람을 살리는 곳이지, 죽이는 곳이 아니라는 것만은 알아주세요.”

그녀의 표정이 담담해 보였다. 대체 어떤 사람과 무슨 얘기를 하는것일까. 나 때문인 것 같아 괜히 더 미안해지고, 걱정이 된다. 나라는 놈 때문에 여러 사람이 힘들어 하고, 몇 사람이 내 손에 의해 세상을 떠났다.

내가 살인자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은 어렸을 적 아버지가 살해당한 뒤 복수심과 증오심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사건으로 인해 내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다.

난 가난하지만 화목했던 우리집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경제적으로 힘들었지만 남부럽지 않게 키워주셨다.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존경스러웠다. 다른 친구들이 부러웠던 적은 단 한번, 다들 수학여행을 갈 때였다. 집을 떠나 먼 곳을 여행해 본 적이 없던 나는 정말 수학여행을 가고 싶었다. 하지만 나이에 비해 일찍 철이 들어 부모님 앞에서 절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고, 부모님이 수학여행은 언제 가냐고 물어보시면, “올해는 학교 사정으로 안 간대요.”라고 대답해 드렸다. 그것이 자식으로 서의 도리라 생각했고, 내가 부모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이라 여겼고 나에겐 마지막 위안이 되었기 때문이다. 두 분이 힘들게 일하시는 것으로 간신히 끼니를 이어가는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런 일자리마저 잃게 되신 아버지로 인해 당장 거리로 나앉아야 하는 상황이 닥쳤다. 그 때 아버지는 내게 말씀하셨다.

“지혁아, 누구보다도 넌 이 애비를 원망하지? 원망하는 것이 당연하겠지. 이렇게 고생만 시키고… 가진 건 쥐뿔도 없는 애비라서 정말 미안해. 그래도 너랑 수혁이를 낳은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나중에 커서라도 이것 하나만은 알아주길 바란다. 물질적으로 해준 것은 없지만, 너희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크다는 것을… 지금 상황이 안 좋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들 굶기진 않을 거다. 내 살과 피를 바쳐서라도 너희는 먹여 살릴 거야. 이 애비의 진심을 알아다오. 애비 말 무슨 말인지 알지?”

그 때 난 대답을 할 수도, 아버지를 쳐다볼 수도 없었다. 아버지가 너무나 안쓰러워 보였고 죄송하게만 생각되었다. 며칠 후 아버지는 돈뭉치를 들고 오셨다. 그 돈으로 한 달 동안은 풍족한 생활을 했고, 아버지는 또 여기저기 일을 다니시는 것 같았다. 난 너무 행복했다. 그 한 달이 아버지와 의 마지막 시간인 줄도 모르고... 한 달이 지나고 갑자기 검은색 양복을 입은 아저씨들이 우리집에 닥쳐와 가져갈 것도 없는 살림을 빼앗아 가고 부모님을 다그치며 행패를 부렸다. 나와 동생은 영문을 모른 채 무조건 구석에 숨어 있었다. 결국 아버지는 그 사람들 손에 끌려갔다.

그것이 내가 본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보름 쯤 지나 자 싸늘한 시체로 우리 곁에 돌아오셨다. 난 그렇게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안 갚으면 아니 못 갚으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런 이들에게 언젠간 복수하겠다는 굳은 일념으로 자라게 되었다. 난 복수를 꿈꾸며 20살이 되던 해에 집을 나왔다. 엄마와 동생은 아직도 나를 찾고 있을 것이다. 집을 나오자마자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아버지를 죽인 사람까지 알아냈다. 그리고 내 손으로 그들을 직접 심판한 것이다. 그러나 법 앞에서는 이유야 어찌됐든, 사람을 죽인 결과에 따라 판결하므로 난 당연히 “사형”을 선고 받았다. 아직도 “지혁아...”라고 부르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전에 맴돈다.

난 후회하지 않는다. 용서하지도 않는다. 사람으로서의 도를 저버린 사람에게는 어떤 말도 필요 없다. 자기가 한 짓을 똑같이 되돌려 받는 것만이 선처를 받을 길이다.

마음이 답답할 때면 나는 밖에 나간다. 보이지 않으니까 어디든 갈 수 있다. 자유롭다. 오늘은 내가 잠시 있었던 경찰서를 찾아갔다. 왜 발길이 그리로 향했을까. 죽을 날이 다가오면, 싫은 것도 좋아진다는데 나도 그런 것일까?

“김형사, 그...강지혁 어떻게 하기로 했나?” “그게 좀 곤란합니다. 병원 측에서도 확실한 답을 주지 않고... 생명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면서요.”

“그럼 언제까지 저렇게 둘거야, 지가 도망가다가 차에 치었는데 왜 우리가 그걸 책임지냐구? 위에선 빨리 처리하라고 난리지, 김형사는 곤란하다고만하지, 나 참 미치겠네. 어차피 죽을 목숨, 병원에서 좀 빨리 죽으면 안되나?”

역시나 나에 관해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나를 빨리 처리하라는. 그 말은 나를 그냥 병원에서 죽이라는 것인가? 누구 맘대로? 엄마와 동생이 하루 빨리 나를 찾았으면 좋겠다. 대신 누가 말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식물인간이라도 좋으니 목숨만이라도 살려주세요.”라고 말이다.

형사들끼리 하는 말을 듣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눈물이 났다. 그것도 아주 서럽게.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죽게 될 걸 잘 알면서도 왜 자꾸만 살고 싶어지는 것

일까. 이런 미련은 애초에 버렸어야 하는건데. 나쁜 짓을 저지르고도 살 줄 알았다면 시작도 하지않았을 것이다. 죽을 각오를 하고 넘쳐나는 복수심 하나로 일을 저질렀다. 자기 목숨이 중요하다면 남의 목숨도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악행을 하면 언젠간 똑같이 당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지만 그것은 결국 나에게도 적용이 되었다.

지금은 좀 후회가 든다. 막상 죽음이 닥쳐오는 것을 느끼니 왜 내가 그런 짓을 저질렀나 싶다. 단지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가 불쌍해서? 아마도 용서보다는 앙갚음의 마음이 앞섰나보다. 비가 온다. 천둥번개도 친다. 아마 아버지께서 나를 꾸짖나 보다.

“이 나쁜놈의 자식! 누가 복수해 달라 그랬냐? 그럼 너만 더 손해 보는 거 몰라? 애비가 없으면 니가 더 잘 해야 할 것 아니냐. 가족들 부양할 생각은 안하고 사람들이나 죽이려 다녀? 여긴 아직 올 곳이 못 된다. 지혁아, 벌써부터 오면 안 돼. 할아버지쯤은 되어야지, 지금 니 나이가 몇인데... 어이구...” 라는 아버지의 말소리가 들린다. 하늘나라로 오지 말라는 말이 간절하다 못해 울부짖는 것 같다. 환청인가? 꿈도 아닌데 너무나 분명하게 들린다. 창문 사이로 빗줄기가 스며든다. 내 마음에도 차갑고 시린 빗줄기가 스며든다. 이 비가 내 마음 한 구석의 쌓여있는 모든 것들을 다 씻어버렸으면 좋겠다. 오늘밤은 잠이 안 온다. 이제 편히 잘 수 있는 날도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 그런가 보다. 뭐 죽으면 평생 잘 텐데, 하는 생각도 든다. 비가 온 뒤 하늘에 뜬 별들은 정말 반짝반짝 빛난다. ‘내 인생에도 저렇게 빛날 날이 올까.’ 하는 동안 스르륵 잠이 온다. “주사 맞을 시간입니다.~” 아침을 깨우는 그녀의 목소리. 기분이 좋아 보인다. 오늘도 한줄기 희망을 가지고 나에게 주사를 놓는 진주씨가 너무나도 고맙다. 내가 못 듣는다는 걸 알면서도 인사를 하고 말을 해주는 그녀는 진정한 간호사이며, 천사이다. 나에겐 나이팅게일보다도 위대하고, 훌륭한 위인이다. 내가 깨어난다면 얼마나 좋을 까. 감사하다는 말이라도 전해야 하는데... ‘매일 아침, 식물 인간인 저를 위해 주사를 놓아주고, 말도 걸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서간호사님... 사실 전 다 듣고 있고 말도 하는데 못 들으시네요. 그래도 저를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간호해 주시는 이런 정성은 어머니 말고는 처음 받아봤어요. 감사합니다. 저의 나이팅게일, 서진주 간호사님.’

언제쯤 이런 인사를 할 수 있을까. 그녀가 들을 수 있을까? 아마 인사할 수 있게 되기 전에 먼저 가게 될 것 같다... 그럼 안되는데...

어느덧 내가 병원에 있는 지도 네 달이 다 되어가고 있다. 저번에 경찰서를 다녀온 후로 무섭고 두려워서 그 후론 밖에 나가질 못했다. 아직 소식이 없는 것을 보니, 나의 존재를 잊었나 하는 생각도 든다. 제발 잊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 더 든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기만을 간절히 기도한다. 죽는 건 정말 무서운 일이다. 병원에 오면서 많은 것들을 깨달았다.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참 많은 우여곡절 끝에 지금에 이르렀다. 행복했던 순간이 10년이라면, 나머지 20년은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조금은 행복한 것 같다. 사형수로서의 삶보다는 훨씬, 백배 아니 천배 낫다고 본다. 나에게 새롭게 주어진 두 번째 삶이고, 세상을 다시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나는 식물인간 체질인가 보다. 밖에 경찰들이 보인다. 옆에는 간호사들이 보인다. 아마 나에 대해 얘기하겠지.

“네, 여기 경찰청입니다. 최종 통보가 나와서요. 강지혁 씨를 병원에서 그만 있게 하라고 위쪽에서 명령이 내려졌어요. 한 두 달도 아니고 벌써 네 달째라서 저희도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래도 희망이 없는 건 아닌데...”

“희망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미 사형선고를 받았다고요. 저희는 의식이 돌아오면 다시 감옥으로 데려가려고 기다린 거지 살려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간호사님.”

“네... 제가 무슨 권리가 있다고 막을 수 있겠어요. 단지 너 무나도 아까운 환자였고 꼭 깨어나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그 분이 사형수라는 것을 깜빡했어요. 나머지 문제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구요. 그럼 한 번 들어가 보세요.”

나를 담당했던 김 형사와 형사반장이 문을 열고 들어온다. 구두굽 소리마저 두려워진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제발 데려간다는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저 정말 반성 많이 했습니다. 형사님.’ 가슴 속이 바싹 타는 것 같다.

“불쌍한 자식, 그러기에 왜 살인 같은 짓을 해가지구...왜...”

“그래도 이놈 참 착했었는데...”

“착하면 뭐해요. 법이 착하다고 밥 먹여줍니까? 차라리 감옥에 있지 왜 쫓기다가 사고를 당하냐고.”

“너 때문에 우리가 더 죄인 같잖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없는데 어찌란 말이야.”

“김형사 진정해. 어쩔 수 없지 않나. 우리가 결정내린 것도 아니고, 위쪽에서 그만하라고 한 거니까 우리도 할 만큼 했네. 벌써 4월이야. 밖에 핀 꽃들 좀 봐. 봄이라구 봄!”

“참, 봄인데 이렇게 꽃도 피고 날씨도 좋고 화창한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건지...”

그들의 말을 바로 옆에서 듣고 있자니 목이 메어왔다. ‘이런 찬란한 봄에 나는 아버지 곁으로 가는구나. 좋아서 눈물이 다 나네. 17년 만에 보게 될 아버지와 만남이 너무나도 기대된다.’ 라고 애써 위로를 해봐도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형사와 형사반장은 돌아갔다. 이제 나만의 시간

을 정리해야 한다. 적어도 일주일 안에 나는 가게 될 것이고, 그 안에 용서도 하고, 용서도 받아야 한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사람은 죽음이 눈앞에 닥치면 못할 것이 없다. 더군다나 나는 이제 죽음이 코앞에까지 닥쳤다. 병원에서 사형선고를 받는다는 것이 이런 기분이구나. 내 아버지를 죽인, 나의 인생을 죽인 사람을 용서해야겠다. 또 내가 저지른 일로 인해 피해 받는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싶다. 마지막 가는 길은 편했으면 좋겠다. 가는 길에 내 발목을 붙잡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늦은 밤, 닳은 남자가 들어온다. 누굴까, 왜 내 곁으로 오는 것일까? 내 얼굴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린다. 설마 지금 이 순간이 내 마지막이 되는 건 아니겠지? 죽는 것에 대해 정리도 하고, 다짐도 했는데도 여전히 두렵고 무섭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네가 내 동생을 죽인 놈이지? 네가 사람을 죽이고도 온전히 살 수 있을것 같았어?”

내가 죽인 사람 중 한 남자의 형인가 보다. ‘당신의 동생은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심한 짓을 일삼고 다녔고, 지금 나 또한 그 벌로 곧 죽을겁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 남자는 울분에 찬 목소리로 동생 얘기를 늘어놓더니 갑자기 술을 꺼내 마신다. 나의 복수심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에 또 다른 복수심을 자라게 했다. 그가 나의 산소 호흡기를 만진다. 그래,

차라리 이 사람 손에 죽는게 낫다. 이렇게라도 해서 그 사람이 받는 마음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된다면 나 또한 아버지께 가는 길이 좀 더 편할 것 같다. 산소호흡기가 떼어졌다. 난 서서히 하늘나라로 가고 있다. 나의 가족들, 서진주 간호사, 의사 선생님,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나는 하늘나라에서는 새로운 삶을 살 것이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김형사, 아침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누가 강지혁 산호호흡기를 떼고 도망갔나 봐.”

“네? 그럼...”

“그래도 웃고 있었대. 난 오히려 마음이 편하네. 우리 손으로 보내는 것보다 죄책감이 덜 들지 않겠어.”

“그렇긴 하네요. 마지막 가는 길이 뭐가 좋다고 웃었을까요?”

봄바람이 분다. 벚꽃이 병실 창문에서 유난히 화사하게 보인다. 내가 살았던 30년간의 찬란하고도 고단했던 삶의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삶이 시작됨을 알리는 것처럼.

전통문화

일산정보고등학교 2학년 8반

김 희 경

전주 풍남제부터 시작하여 날뫼축제, 옷골 문화축제, 봉산 미술제, 동성로축제, 비슬산 참꽃제, 통영한산대첩축제 이 축제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는가? 바로 전통을 이어가는 각 고장의 축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축제가 열리는 까닭은 바로 우리의 고장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부심을 가지고 세계에까지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어릴 적에 부모님을 따라 나섰던 전통문화체험이 문득 떠오른다. 그날처럼 값지고 훌륭한 체험은 없었던 것 같다. 어렸지만 너무나도 인상 깊었기에 하나 둘씩 생각이 난다. 전통춤을 추며 공연을 하는 사람들도 보았고, 부모님과 함께 음식을 만들었던 기억도 난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주거문화를 살펴볼 수 있었던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어떠한 노력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먼저 주거문화

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한다. 주거문화는 고대, 중세, 근대, 현대에 이르러 나날이 변화되고 있지만 벽돌과 기와를 엮고, 전통사회의 신분까지 엮 볼 수 있었던 예전의 주거문화가 현대사회에 들어서 전에 볼 수 없던 다양한 주택형식으로 바뀌며 한편으로는 우리의 전통문화 중 한부분이 묻히는 게 아닐까 싶어 걱정도 된다. 앞으로의 주거문화는 현대 삶도 잘 반영하면서 한옥의 정신이 깃들고 전통이 살아 숨쉬는 주거문화가 될 수 있도록 재창조 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모두의 정신이 담긴 전통을 후손들에게도 알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한국 전통의 생활 그릇들에 대해서 살펴보자. 여기서는 우리가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바로 나무를 사용하였다는 점인데 나무그릇이나 야외 도시락 합을 비롯해 다양한 것들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생활 속에서 우리의 목기는 우리의 맛을 담아냈던, 인류가 사용한 도구 중에서 가장 원초적인 생활도기로써 현대생활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어져온 유일한 것이라는 말을 충분히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번에는 이러한 그릇에 담겨진 전통음식들에 대해서 살펴보자.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한정식. 이것을 바로 전통음식이라 하는데, 각종 싱싱한 재료들만 사용하여 영양가 높고

맛도 좋은 전통음식은 나이 드신 분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많이 선호하고 있다. 전통음식을 통해 지난시대의 배경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다. 궁중음식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로 그 전통이 면면히 이어진 것으로 조선시대의 경우 진찬의궤, 진연의궤, 궁중음식발기, 조선왕조실록 등의 문헌에 식사의례와 기법, 조리기구, 상차림 구성법, 음식의 이름과 재료가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나는 인터넷을 통해 이것을 본 때 우리에게 음식과 더불어 좋은 전통문화를 알려주는 음식점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소식들은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게 힘이 되어준다.

최근 TV에서 사극드라마 열풍이 불고 있다. 이로 인해 네티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역대 왕이나 조선시대 배경 등을 검색하면서 역사와 더불어 전통문화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사극 열풍과 함께 왕들의 혼례도 자연스럽게 비춰지는 가운데 전통혼례에 대해서도 짧게 살펴보자. 혼례란 남녀가 하나로 합쳐 위로는 조상의 제사를 지내고 아래로는 자손을 후세에 존속시켜 조상의 대를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치르는 혼인의 예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관례, 혼례, 상례 및 제례의 사례를 중요시 여겼으며, 앞글자만 따서 관혼상제라고 통칭한다. 관례는 짧게 성인식을 말하며 혼례는 말 그대로 결혼식, 상례는 사람이 죽은 때로부터 묘지에 장사를 지낼 때까지의 절차로 사례 중 가장 복잡하고 엄숙한 의례로 최근에는 3일장을 일반적

으로 들고 있다. 제례는 돌아가신 조상을 모시는 방법과 절차이다. 이처럼 관혼상제는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문화이다.

우리나라는 5000년이 넘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양과 질적으로도 다른 나라에게 문화를 전파하고 가르칠 만큼 우수하다. 오랜 세월을 걸쳐 창조되고 계승되어 온 전통문화를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알게 모르게 이어져 오는 전통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참 기쁘고 한편으로는 신기하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아직도 자세히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에서는 약간의 안타까움이 남는다. 외국에서 오시는 손님들에게 소개하고 알릴 수 있는 전통문화가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다. 외국에서의 파티만큼 화려하고 거대하지는 않지만 색다른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전통문화축제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 고장의 특색을 잘 살리고, 문화발전에 더욱 이바지 한다면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은 크게 성장할 것이라 믿는다.

우리 민족 모두의 것이니 조상님들의 뜻을 받들어 잘 다듬고 살피야겠다. 우리들의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다음 후세에게도 길이 남겨져 역사를 이어갈 수 있다면 이 보다 더 좋은 것은 없으리라 생각한다.

생명사랑 밤길걷기, 그 특별한 밤

일산대진고등학교 2학년 12반

김 지 영

10월 26일 저녁 7시, 우리는 자살방지캠페인 밤길걷기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시청 앞에 모였다. 우리가 선택한 코스는 25Km. 청계천을 지나 서울숲을 반환점으로 두고 대학로를 지나 다시 시청 앞에 모이는 것이다. 친구들과 함께 밤을 보내고 새벽을 맞이할 생각을 하니 정말 설레고 기분이 좋았다. 또 가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만큼 우울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땐 너무 충동적인 생각이 들어서 내 자신이 무척 나약하다는걸 느꼈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번 기회로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앞으로 더 씩씩하고 현명하게 이겨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드디어 출발. 8시 30분이었다. 우리 6명은 씩씩하고 힘차게 걸었다. 청계천까지 가는 서울 시내를 정말 밟았다. 높은 빌딩들의 네온사인,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와 화기에애한 분위기로 평소 느끼던 밤의 오붓하고 고요한 분위기와는 다르고 그렇다고 낮의 활기찬 분위기만도 아닌, 모든 게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느껴지는 밤이었다. 출발하기 전에 새드스톤과 버튼을 받고 출발했다. 새드스톤은 마음의 짐이 담긴 자갈이다. 이 돌에 내 마음의 짐을 털고 코스를 완보한 후에 물에 가라앉히며 그 짐을 털어낸다는 의미이다. 정말 특별하고 의미있는 일 같았다. 간절하게 바라면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가 간절하게 그 돌에 내 짐을 실으면 정말 내 걱정과 슬픔이 해결될 것 같았다. 나는 돌을 두 개 집었다. 하나엔 내 짐을, 다른 하나엔 헛된 걱정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짐을 실었다. 버튼도 역시 의미를 갖는다. 뱃지처럼 옷이나 가방에 거는 건데 색깔마다 의미가 다 다르다. 자신을 위한, 친구나 가족을 위한, 삶의 희망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그리고 생명 그 자체를 위한 걷기를 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이다. 난 색깔별로 다 들고 출발했다.

청계천은 조명도 은은하고 놀러나온 사람들도 많았다. 걷기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많아 청계천을 꽉 메우고 걸었는데, 친구와 노래를 들으면서, 발바닥이 아프면 신발을 벗고 걷기도 하면서 즐겁게 걸었다. 뜻이 같은 사람 여럿이 함께 걸으니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심각하게 고민할 것도 없이 어색할 것도 없이 마냥 행복했다.

생각했던 것보다 청계천은 굉장히 길었다. 10Km를 걷는 사람들은 청계천 끝까지 갔다가 되돌아 오는데 코스라고 하니 길이가 5km인 셈이다. 중간에 컵에 담긴 초를 주었다.

약하지만 계속 불빛을 내는 촛불을 들고 걸으니 느낌이 또 달랐다. 사람들마다 그 촛불에 나름의 의미를 갖고 걸었을 것이다. 바람이 불어서 촛불이 꺼질까 걱정되어 손으로 가리면서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희미하고 약했지만 계속 빛났다. 그렇게 중간목표인 10Km에 도달하여 확인 스티커를 받고 간식을 먹으며 조금 쉬었다. 옆에는 자살방지에 관한 영상물이 상영되었다. 나름대로 이런저런 행사를 만들려고 신경 쓴 것 같았다. 왕따에 대한 주제를 다루었는데 같은 고통을 겪었을 경우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를 따돌려선 안되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분위기 때문이었던진 모르겠지만, 웬지 마음에 와닿았다.

다시 출발. 10시쯤이었던 것 같다. 아직까진 힘들지 않았다. 발바닥이 조금 아팠지만 그 정도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본격적으로 25km 코스에 진입하니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 대부분 10Km에 참가하고 25km에는 단체팀이나 동네 어른들이 대부분이었다. 다리 밑 강변이라 인적도 드물어 무서워하는 친구도 있었지만 이내 다시 노래하고 기도하고 함께 얘기하면서 즐겁게 걸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지금 이 순간을 절대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살게 해달라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떠한 걱정에서도 벗어나 이 걸음과, 함께 걷는 친구들에게만 충실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또 이 걷기로 내가 좀 더 성장하길 바라

면서...정말 감격스러울 만큼 고즈넉하고 행복했다. 다들 생각보다 너무나 씩씩하게 잘 걸었다. 학교에서 보던 모습과는 또 다르게 다들 의젓했다. 말다툼 같은 것도 없었고 밤길걷기라는 것으로 모두가 하나되어 열심히 걸었다.

드디어 한강다리가 보이고 반환점인 서울숲이 가까워지자 그 남은 1,2km가 굉장히 길게 느껴졌다. 반환점은 나올듯 하면서 나오지 않고 계속 안내요원 언니들만 보였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는 말만 하는 언니들이 야속했는데 그 언니들도 여기까지 걸어서 왔다는 애길 들으니 정말 춥고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강 산책로를 쭉 지나 지하도로 내려가 설문조사를 하고 숲 속으로 이어 들어가니 드디어 반환점 도착! 우리는 설렘과 환희 만족감으로 가득 차 환호성을 질렀다. 무엇보다 배가 고팠기 때문에 화장실 앞에 박스를 깔고 컵라면을 먹었다. 밤이 깊어서인지 쌀쌀한데다 먼 길 오느라 출출해서인지 정말 맛있었다. 깊은 밤이었지만 무서울 것도 없었고 일상의 잡념이나 고민들은 잊은지 오래였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그 순간을 즐기고 함께 얘기하고 웃으면 됐다. 다들 낮보다 더 밝고 한편 어른스러워진 모습이었다. 그렇게 짧고 달콤한 휴식에 힘입어 다시 출발했다. 너무 많이 쉬면 늘어지고 뒤흔들다며 서두르자는 아이들이 믿음직스럽고 의지가 됐다. 이제 우리는 '출발점'이라는 새로운 목표와, 함께라는

생각으로 또 다시 힘차게 출발했다.

반환점까지 길던 그 1, 2km가 되돌아 갈 땐 다시 처음처럼 짧게 느껴졌다. 같은 길이었지만 또 다른 느낌이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반짝이는 한강다리를 보면서 소름이 돋을만큼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걸었다. 걷다가 백발의 할아버질 봤다. 왜 이 밤중에 산책을 할까 하며 봤는데 웬지 낯익은 얼굴. 한 친구가 그분을 알아봤다. 김도향 할아버지였다. CM송을 부르시고 쇼프로그램에도 종종 나오시는 분.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중이셨는데 우리가 인사하자 웃으며 받아주셨다. 정말 신기했다. 그러고나니 마스크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리고 자전거를 타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연예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참 가다보니 올 때 지나간 휴식처가 보였다. 거기 모여서 이제 새로운 코스로 갈 거라고 했다. 그 길이 나중에 알게 된 대학로였다. 산책로에서 위로 올라와 어두운, 하지만 은은하게 밝은 거리를 걸었다. 걷기대회 안전을 위한 경찰차들이 드문 드문 보였다. 일산에 비해 밤늦게까지 영업을 하는 상점들이 많았다. 노상방뇨하는 술 취한 아저씨도 보았다. 지나가는 아줌마 아저씨들이 어디서 뭐하러 온거냐고 물으시길래 밤길걷기라고 했더니 굉장히 대견해하셨다. 강변처럼 고요하고 평온하진 않았지만 자정이 지나서인지 다시 시작하는 활기찬 기운이 느껴졌다. 자신감이 생기고 모든 게 긍정적이

고 멋있게 느껴졌다.

한참을 걷다보니 저 앞에 밝은 불빛들이 보였다. 동대문이었다. 낮보다 더 분주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옷을 한 짐 사들고 가는 사람들이 보였다. 나와 다른 생활 사이클을 가진 사람들, 다른 세상 사람들 같았다. 머릿속 한 구석 내가 모르던 문이 열리는 기분이었다. 지금 비행기를 타고 있다면 이곳만 유독 밝겠지. 아 한 번 보고싶다.

그렇게 동대문을 지나고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20분간 휴식시간이 있었다. 그곳에 피리부는 아저씨가 있었지만 너무 피곤해 듣지 못하고 벤치에 앉아 잠들어버렸다. 다시 출발하려는데 한 친구가 너무 힘들어해서 마음이 안 좋았다. 나도 힘들지만 그 아이는 평발인데다 빈혈도 있는데, 너무 힘들 것 같았다. 정말 안쓰러웠다. 올 때의 설레던 마음과 반환점까지 즐겁게 걷던 것마저 무의미해지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하루만큼은 모든 걸 잊고 행복하고 즐겁게만 보내고 싶었는데.. 힘들거란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어해서 마음이 아팠다.

그렇게 다시 걸었다. 점점 사람들 사이가 멀어지더니 서울 시내를 지나 창경궁에 왔을 땐 우리 팀까지 세 팀밖에 보이지 않았다. 발을 디딜 때마다 발바닥이 따갑고 옥신거렸다. 그렇게 절뚝이며 창경궁 앞을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꽹' 하는 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보니 택시끼리 부딪쳐

우리창이 깨져있었다. 내 친구는 거의 졸다시피 하면서 걷고 있었던지라 너무 놀라 울음을 터뜨렸다. 자기가 치인 줄 알았다며... 아 너무 마음이 아팠다. 어떻게라도 해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게 없어서 미안했다. 친구에게 괜한 제안을 한 것 같았다. 그렇게 껌껌하고 차도 거의 지나다니지 않는 길을 손잡고 묵묵히 걸었다. 그래도 난 행복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도전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다.

그렇게 한참을 걷다보니 샌드위치 가게가 보였다. 친구를 밖에 세워두고 서울시청까지 몇 분이 걸리냐고 물었더니 아저씨가 머뭇거리시더니 아직도 한참 남았다고 하셨다. 차마 친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조금만 더 힘내자며 다시 걸었다. 남은 길은 끝이 없어 보였다. 지칠대로 지친 우리는 묵묵히 걷기만 했다.

드디어 서울시청이 눈앞에 보였다. 행사가 다 끝난 어둠속에 은은한 불빛이 보였다. 우리가 거의 마지막인 것 같았다. 출발점을 통과하니 행사 관계자 분들이 잘했다며 박수도 쳐주시고 격려해주셨다. 그 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다 끝났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온몸에 전율이 느껴진다. 해낸 것이다. 아까 보았던 불빛은 엄청 큰 하트모양으로 완보한 사람들이 메시지를 적어 불빛을 봉투에 넣어 하나씩 올려놓은 것이었다. 우리도 봉투에 메시지를 적은 후에 불빛을 넣어 올려놓았다. 오늘 밤의 의미를 나중에라도 꼭 알게 해

달라고, 함께 걸은 친구들과의 특별한 우정도 영원하길 바란다고 적었다. 이 때는 너무 힘들어서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는지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젠 알 것 같다. 다시 떠올려보면 힘들었던 것보다 같이 손잡고 노래부르며 걷고, 기도하고, 서울 구경도 하고 그렇게 즐거웠던 기억만 생각이 난다. 완보증을 받고 본부에서 박카스와 컵라면, 초코파이를 받아 시청 앞 잔디밭에서 먹었다. 완보하고 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우린 해냈다. 자기 자신과의, 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에 대한 도전에서. 이 대회에 참가하기까지 학교 선생님들이 힘들다고 말렸던 걸 완보하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해보겠다고 참가한 것이었기에 더 크게 다가왔다. 이 25Km도 내 한계가 아니었다. 행복했다. 정말 감격스러웠다. 우리 모두 당당하게 25km 코스를 완보했고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 함께 걸은 친구들이 특별하고 더 친근하게 느껴졌고 우리 모두 좀 더 성숙한 것 같았다. 학교에서 장난치고 떠들기만 하던 친구들과 이렇게 공통된 목표를, 좋은 의미를 갖고 함께 했다는 그 자체로 정말 마음 깊은 곳까지 감동이 전해졌다. 한 친구는 평소에 학교에서 장난치거나 자는 모습만 봐왔는데 이번 걷기에서 우리 6명 중 끝까지 가장 씩씩하고 긍정적인 모습이었다. 끝나고 나서도 우리 모두를 격려하며 힘내라고, 자기는 만족하고 충분히 즐겁다고 했다.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더 걸렸지만, 봉사활동 시간 때문에 걸은 게 아니기 때문에 몇 시간이 걸렸건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다시 보게 되었다. 그만큼의 정신력과 긍정적인 마음이라면 무슨 일이든 해내고 어떤 시련이든 이겨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들 손에, 가방에, 모자에 지니고 걷던 새드스톤을 물에 가라앉혔다. 나도 내 마음의 짐과 함께 물속에 넣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첫 번째 돌에 실은 내 짐, 남을 지나치게 의식해 자각지심과 피해의식이 있었는데 그 돌이 가라앉는 그 순간만큼은 그 짐을 모두 털어낸 기분이었다. 두 번째 돌, 헛되고 아무 의미없는 걱정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현명해지고 마음에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누구에게나 자기 짐이 가장 커 보이지만 사실 조금만 멀리서 본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닐 수 있고 오히려 자신을 도약하게 하는 발판일 수도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생산적인 고민을 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것을 이겨냈으면 좋겠다.

걷기대회가 끝난 후 지금까지 항상 그 마음 같진 않아서 여전히 가끔은 우울하고 자신감이 부족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 상황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어차피 겪어야 할 일 이라면 되려 쓰게 받고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자는 생각이다. 또 그 과정에서 내 부족한 면이 보이더라도 그 자체의 나를 사랑하기로 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내 소신껏 옳다고 생각되는 길을 걸을 것이다. 무엇인가를 두려워하여 포기하기엔 아직은, 아니 평생 너무 젊고 씩씩할 내 모습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힘차게 보낼 거다. 이 글을 쓰면서 막연히 평온하고 행복했다는 느낌이 마음속에 하나씩 차곡차곡 정리된 기분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걷던 그 밤거리를 떠올리게 되었고 그 땀 너무 힘들어서 알지 못했던, 완보 후 봉투에 썼던 그 ‘의미’를 알 것 같다. 밤길을 걷는다는 것 낮의 화기애애하고 밝은 모습에 밤의 고요함이 더해진 순간. 설레면서도 마음이 안정되고, 고요하면서도 화기애애한 그 특별한 분위기에선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느껴지고 자신감이 생긴다. 함께 참가한 사람들과 웃고 얘기하며 걱정들을 잊고 걸을 수 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순간만 즐기면 되기에 발걸음도 가볍고 마음의 짐도 없다. 25km라는 짧지 않은 거리를 함께 의지하며 걷는다는 것. 밤길걷기라는, 생명사랑이라는 같은 목표 아래 하나되어 열심히 걷고 있다는 것으로 모두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이 될 것이다. 또 이 대회에 참가한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힘든 사람들이, 용기를 주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며 함께 고통을 짊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걷겠다는 ‘의지’를 보인 건 힘들지만 다시 일어서보겠다는 다짐이자 새로운 출발이다. 나를 위해, 친구와 가족을 위해, 이름모를 사람들을 위해 다시 걷는 그 길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니고 무의미한 일도 아니다.

이 추억은 내 마음속에서 자주 꺼내져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난 아직 내 한계에 부딪히지 않았다. 아니, 한계라는 건 없다고 생각한다. 그건 내가 정하고 마음먹은 목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처럼 다짐하고 마음을 다잡았으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 끈기로 살아갈 것이다. 내가 선택한 일이, 그게 겉으로 보이는 성공과 실패라는 이름이 붙더라도, 내 마음속 깨달음이 있고 다시 나아가겠다는 생각과 자신이 승리했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성공한것이다. 한계라고, 모든게 끝났다고 단정짓는 것은 마음속의 부질없는 새드스톤일 뿐 사실 아무것도 끝난 게 없다. 끝을 정하는 건 나인데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성공 실패를 가르며 한계라고 단정짓는걸까. 우리에게엔 한계도, 좌절도, 실패도 없다, 모든 것을 조금만 멀리서 볼 줄 안다면.

단 풍

고양외국어고등학교 1학년 4반

장 영 준

“나 왔어요.”

얼마만인지 모른다. 작년 12월에 집을 떠났으니 아마 10개월 정도를 해외에서 보냈나보다. 프랑스에서 비행기를 저녁 7시에 탔으니 비행시간이 반나절이므로 아침에 도착하는 게 당연하다.

난 한국의 아침을 보고 싶었다. 햇살이 비치는 슬레이트 지붕을 보고 싶었고 그 옆에 제멋대로 난 잡초도 보고 싶었다. 이뿐만 아니라 그냥 세상의 아침 풍경을 보고 싶었다. 인천 바다의 구수함을 느끼며 이런 풍경을 만끽했다. 나무의 단풍들이 장관을 이루었다.

10개월 만의 아파트 입구와 엘리베이터는 낯설고도 반가워 어색하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심호흡을 크게 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어떻게 온거니? 돌아온거니? 이놈아, 돌아오면 돌아온다고 말을 할 것이지. 밥은 먹고 온거야?”

엄마가 나를 반긴다. 외국 생활을 할 땐 가끔 이런 날을 그리워하기도 했다. 집에서 벗어나려고 외국으로 간 거지만 말이다.

“응, 좀 아까 먹었어요.”

나는 엄마의 얼굴을 눈에 익힌 다음 베란다 쪽을 바라보며 답했다.

“그래, 어서 들어와라. 이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 줄 아니? 오니까 마음이 가라앉네 그냥.”

엄마는 들뜬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나 다음 출장지로 가는데 시간이 좀 남아서 한국에 들른 거예요. 조금 있다가 다시 나가봐야 돼요.”

라고 말하고 나서 아까 본 베란다 쪽으로 갔다. 아까 날씨가 제법 쌀쌀하더니만 한국 나무에도 내가 출장갔던 프랑스 처럼 어김없이 단풍이 들었다. 매년 보는 거지만 단풍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그 속에 풍족함이 들어있는 것 같다. 나무에서 끊임없이 나무가 주는 양분을 충분히 먹고 자랐기 때문이란단다. 그러나 이제 곧 떨어질 단풍은 풍족함 보단 쓸쓸함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나는 그런 단풍잎들을 보는 것이 더 좋았다. 내 처지와 비슷하단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또 나간다고? 명절은 쇠고 가면 좋으련만……. 다음주가 명절인데 정말 가족들 안 만나고 갈거니? 회사에 부탁을

해서…….”

“엄마, 일이잖아요. 죄송해요.”

나는 엄마에게 설득을 듣기도 전에 말을 잘랐다. 사실 이런 말을 툭 던지고 나면 엄마께 미안하기 일쑤지만 그 습관을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이 내 안에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역시나 방에는 나의 학창 시절에 받은 상장과 메달이 즐비하게 벽에 걸려져 있다. 방안을 한 바퀴 둘러보고 상장과 메달의 수가 예전보다 꽤 늘어났음을 느꼈다, 의아해하며 새로운 상장을 보았더니 나도 모르게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 최우수상 김진철’

‘짜식, 공부 좀 하네. 혹시 나보다 공부 더 잘하는 거 아니야?’ 속으로 이런 흐뭇한 생각을 하며 진철이를 빨리 보고 싶단 생각이 들었다.

“엄마, 진철이 공부 잘하네? 상 탕게 내가 받았던 것보다 많은 것 같아.”

나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내가 너한테 얘기 안했나? 진철이 이번에 전교 1등 해가지고 학교에서 개 대학가는 걸 엄청 기대한다더라. 잘 된 일이지. 형제가 다 공부 잘하고, 나도 참 복 받은 것 같네.”

엄마의 말끝이 흐려지긴 했지만 방문이 열려있었기 때문에 잘 들을 수 있었다.

“에휴, 뭐 공부만 잘하면 단가? 진철인 언제 들어와?”

“12시 쯤 오겠지. 학교 보충수업이 그때 끝나니까. 다음 달이면 수능인데 여유가 있겠니?”

엄마는 빨래를 가지러 베란다로 나갔다. 나는 그 뒤를 재빨리 쫓아가며 물었다.

“그렇구나, 진철이 얼마나 컸나 보고 싶었는데. 지금 키는 얼마나 컸어? 180정도?”

“180은 안되고 177정도 될 걸? 개가 원래 등치는 나보다 좋은데 맨날 늦게까지 공부해서 키가 이제 더디게 자라네. 그래도 공부 잘하지, 성격 좋지, 얼굴 잘생겼지,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앤데 말이야.”

엄마는 빨래를 걷으면서 말했다.

“야, 그렇게 멋있게 자랐단 말이야?”

나는 엄마가 아주 조금은 나 때문에 서운한 감정이 있는 것 같아 그걸 풀어주려고 중문밖에서 얼굴만 빼꼼히 내밀며 말했다.

“그렇구 말구, 아마 보면 깜짝 놀랄 거다. 여자 친구들도 얼마나 많은지 그걸 보노라면 인기가 짱이라니까!”

엄마의 동생 자람에 나는 엄마의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젠 나보다 동생에게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았다.

“대단하데 이 녀석, 아 근데 형님이 몇 달만에 왔는데 야자 하루 정도는 뺄 수 있는 거 아니야?”

“졸업한지 얼마나 됐다고 너 고3때 상황을 잊어? 개 공부 때문에 무척이나 바쁜 애야. 니가 조금만 참아,”

“그런가? 음..... 할 수 없지 뭐, 내가 기다리는 수밖에.”

그때 집 전화 벨소리가 들렸다.

“내가 받을게요.”

나는 전화를 건 사람이 진철이임을 알 수 있었다. 녀석과 나는 다섯 살 차이지만 서로 통하는 게 많았다. 음식과 운동은 물론 좋아하는 펜 색까지 같을 정도로 우리의 생각은 비슷했다. 다만 진철이는 나보다 활발하고 매사에 적극적이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당황한 듯한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형 목소리도 못 알아듣냐?”

“어? 형이야? 언제 왔어?”

“오늘 아침에, 오랜만인데 짜식, 지금 학교일텐데, 왜 전화했어?”

나는 물었다.

“아, 수시 쓰는 것 때문에 엄마랑 상의할 게 있어서.”

‘엄마랑 상의한다고? 여전하네 엄마는, 그때나 지금이나 당신 뜻대로……’

“대학 니가 가는거지, 엄마가 가는거냐?”

나는 급격히 목소리를 낮춰 얘기했다.

“그래도, 형. 엄마 좀 바꿔주라.”

‘이러면 안 되는데, 너도 나처럼 끌려 다니면 안 되는데……’

나는 심각하게 고민했다,

“누구니?”

엄마가 걷은 옷가지들을 거실로 가지고 들어오면서 말했다,

“진철이, 애 수시 쓴대는데?”

엄마는 내 얘기에 바로 빨래들을 내려놓고 수화기를 쟁취했다.

“여보세요, 선생님과 얘기는 잘 해봤니?”

엄마는 진철이와 얘기를 좀 하고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진철이가 수시로 대학을 갈 수도 있겠구나. 너와 같은 대학이라 더구나.”

엄마는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웃었다.

“그리고 오늘 원서 접수하려고 집에 일찍 들어온다더구나.”

그 말에도 나의 얼굴은 자못 굳어졌다. 얼굴을 펼 수 없었다.

“내 동생이 내가 갔던 길을 똑같이 걷게 된다면 어찌지.”

“동생이 좋은 대학 간다는 게 기쁘지 않니? 동생이 너의 실력만큼 잘하는 게 샘이 난거야?”

엄마는 놀리기라도 하시는 듯 기분 좋은 농담을 하셨다.

내가 계속 긴장한 표정을 짓자 이상하다는 듯이 나의 얼굴

을 쳐다보며 말했다.

“아냐 나도 무지 기쁘지. 동생이 좋은 대학 가는데 싫어할 형이 누가 있겠어.”

나는 일부러 웃어보였다.

“애가 피곤해서 그런가? 얼굴이 초췌해졌네, 시차도 아직 적응 안됐을텐데 한숨 자거라. 이따 진철이 오면 깨워줄게.”

엄마는 거실에 앉아 빨래를 개기 시작했다.

“으음, 그래야겠어요. 나 조금만 잘게요.”

나는 방으로 들어가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을 했다. 주체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언제 말해야 될지 생각했다. 햇살이 구름에 가려 직접 비춰지진 않았지만 구름을 통과한 빛이 창문에 녹아 파스함은 느낄 수 있었다. 그 파스함에 스르르 잠이 들었다. 나는 꿈을 꿔다. 꿈속에서 나는 다시 나의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 있다. 나는 책상에 앉아 힘겨운 표정으로 공부하고 있는 나를 볼 수 있었다. 엄마는 여전히 엄한 표정으로 공부하는 내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다. 그 날은 내 생애에서 가장 잊고 싶은 날이었다. 수능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날, 나는 너무 아파서 보충수업을 빠지고 집으로 왔다. 그러나 엄마는 아픈 나를 수업을 빠졌다고 혼내고 계셨다. 나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불 속에서 열이 난 채 자지도 못하고 밤새도록 우는 것이다.

그 때 나는 엄마가 내게 바라는 건 오직 나의 성공이 아니라
엄마의 위상을 떨치는 것이었던 걸 깨달았었다.

나는 더 어렸을 때의 나를 볼 수 있었다. 엄마와 나는
탁자에 서로 마주보며 앉았다. 엄마는 내게 무언가를 읽어
주었다. 그것은 성경이었는데 아버지의 유품이라고 생각된다.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이후로 엄마는 성경을 내게 쪽 들려주었다. 나는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너무 싫었다. 내가
그 교육을 거부했던 날을 볼 수 있었다. 나는 짜증을 부렸고
엄마는 나의 요구를 수용해주셨다. 나는 이런 것들을 꿈
속에서 보았고 느꼈다.

내가 꿈에서 깬 이유는 진철이가 나를 깨워주었기 때문이다.
근 일 년이 넘도록 보지 못했지만 쌍거풀이 진하게 있는
눈과 입이 진철이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했다.

“형, 오랜만이야!”

나는 진철이를 안으면서 말했다.

“진철아! 진짜, 오랜만이네! 더 잘생겨지고, 공부도 잘 한
다며?”

“에이 형만큼 하겠어? 형 빨리 오랜만에 밥 같이 먹자.”
진철이는 나를 식탁으로 데려갔다. 나를 붙들 수 있을 만큼
진철이는 키가 컸다.

“야, 키 진짜 많이 컸다. 나보다 더 크네.”

나는 식탁에 앉았다.

“정말 오랜만에 우리 세 식구가 같이 밥을 먹는구나!”

진철이가 좋아하며 말했다. 나의 예상과는 달리 진철이의 얼굴에 행복이 가득했다.

“그래 정말, 거의 1년이 다 됐네. 미안하다. 형이 돈 버는 것 때문에.....”

“뭘, 형은 우릴 위해 일하는 건데 이해해야지.”

진철이는 내게 고맙게 말했다.

“엄마는 왜 안 드세요? 좀 드세요.”

진철이는 엄마를 챙겨드렸다.

“아냐, 별로 배가 안 고파서 그래. 그냥 여기 있으려나.”

엄마는 가만히 우리가 나누는 얘기를 들어주실 뿐이었다.

“아까 수시 접수한대며, 벌써 다 한거야?”

“그럼, 형이 곤히 주무시고 계실 때 벌써 다 했거든요?”

나는 엄마의 표정이 아까와는 다름을 감지하고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뭐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나는 모처럼만에 밝은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진수야, 엄마는 네가 이제 출장 일 그만하고 한국에 머물렀음 싶다.”

엄마 또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다. 나는 갑작스런 엄마의 말에 놀랐다. 갑자기 그런 말씀을 꺼낸 것에도 의아해 했다.

“엄마,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회사에서 정해주는 거라 어쩔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나는 엄마의 눈치를 보며 말했다.

“이제 그만 들어와, 그만하면 됐다.”

엄마는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설명해주세요. 대체…….”

“오후에 회사에서 전화가 왔었다. 회사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했는데 너는 곳이 출장을 가겠다고 했더구나, 회사 직원이 집안에 무슨일이 있냐고 하더구나.”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 동안의 서러움을 따질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나는 그 감정을 외면하고 싶어 되묻지 않았다.

“엄마, 그건…….”

“변명은 하지 않아도 좋다. 나는 홀어미로서 너에게 최선을 다하고 사랑을 주었다. 그런데 이 어미가 싫어 피해다니려는 거냐?”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박동이 빨라짐을 느낄 수 있었다.

‘최선을 다하고 사랑을 주었다.’

그것은 내 인내심의 한계를 건드렸다.

“사랑을 제게 주셨다고요? 엄마가 내게 준 건 사랑이 아닌

집착과 구속이에요. 엄마는 제가 원하는 걸 밟으시고 공부를 시키셨어요. 제가 아픈 날에도 제게 편잔을 주시고 오로지 공부만 하라고 하셨어요. 전 그게 싫어서 떠난거예요.”

나는 마음에 쌓여있는 것들을 모두 쏟아내고 싶었지만 진철이가 보고있음을 깨달았다. 아차! 이제 곧 대학을 가야할 아이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한거야. 때문에 나는 자리를 박차고 방으로 들어갔다. 엄마에게 너무 심한 말을 한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나는 곧 잘한거라고 나 자신을 합리화시켰다. 잘했어. 잘 한거야.

이렇게 되뇌이면서 나는 침대에서 잠이 들기를 청했다. 내가 선잠이 들었을때 누군가 방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이 순간은 정말 혼자 있고 싶은데.’

나를 손으로 감싸는 느낌이 전해졌다.

“형, 괜찮아?”

진철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혼자 있고 싶으니까 그만 나가줘.”

나는 고개를 베개에 박은채로 진철이에게 말했다.

“형하고 얘기 좀 하고싶어.”

진철이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나는 누워있는 채로 진철이에게 자신의 꿈을 버리지 말고 엄마 말을 따르지 말라고 했다.

“진철아 너는 지금이 행복하니? 아마 정말 고되고 외로울

꺼야. 지금이라도 엄마의 네가 아니라 너의 너를 찾는게 어떠니?”

나는 고개를 들어 진철이와 눈을 마주치며 말했다.

“형, 난 정말 다행스럽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랑 지금 내가 가려고 하는 대학과 길이랑 잘 맞아.”

진철이는 내게 무언가 말하고 싶은 어조로 말했다. 그러나 난 인정하지 않았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우린 엄마가 만들어 준 세계에서 살고있는 거라고! 너도 빨리 너의 꿈 찾아가. 그렇지 않으면 나처럼 후회하게 될 거야.”

나는 순간 흥분해서 언성을 높였다.

“형이 꿈꾸던 이상이 정말 형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누구나 상상을 할 땐 이상에서의 성공을 꿈 꺾. 그런데 그 이상에서의 삶을 실패한다고 생각해 봐. 귀농한 농부들이 모두 행복해하는 건 아니야, 더 불행해진 사람도 있어. 엄마는 형에게 더 안정된 삶을 가게 하려고 하신거야.”

진철이의 또렷하고 안정된 목소리가 나의 흥분을 가라앉혔다.

“네 말 이해했어. 이제 그만 나가줘.”

나는 진철이에게 말했다.

“한마디만 할게. 예전에 엄마가 나한테 성경을 읽어주셨을 때 들은 말이야. ‘눈에 보이게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위한 사랑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랑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위한 사랑이다.’ 나가볼게 형.”

진철이의 말을 들은 나는 한동안 멍한 상태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정말 나를 위해서일까.....’

나는 과거의 기억들을 회상하였다. 그러나 나는 깨달을 수 없었다. 진철이가 들려준 구절을 계속 상기 시켰다.

‘아냐, 나에게 사랑은 없어. 사랑받은 기억도 없잖아.’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며 체념하려 했다. 하지만 엄마가 나에게도 들려준 성경이 내게 이런 고민의 해답을 줄 것 같아 성경을 찾아보았다. 나는 어렸을 적 엄마가 성경을 두는 자리를 기억해 내었다. 나는 서랍을 열어보았다. 그 안 한 칸에는 성경이 또다른 한 칸에는 공책 몇 권이 쌓여져 있었다. 나는 호기심이 생겨 그 공책을 열어보았다. 그것은 놀랍게도 나의 성장일기였다. 나는 하나 하나를 살펴보았다. 엄마가 손수 쓰신 그 일기 안에는 날마다 있었던 일들이 적혀져 있었다. 내가 슬플 때는 위로의 말을, 내가 기쁠 때는 당신의 즐거움이 표현되어 있었다. 나는 바로 내 생애에 가장 슬펐던 날을 찾기 시작했다. 일기장엔 그 날도 어김없이 엄마의 일기가 적혀있었다.

‘아들의 열이 심하다. 그러나 위로의 말 한마디를 못했다.

나는 그 대신 약을 주며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을 매몰차게 나무랐다. 하지만 어찌겠는가 과부의 아들이 인정받게 하기 위함은 성공으로의 길 뿐이라는 걸. 오늘도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남보다 더 한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것을 말이다.

나의 눈에선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이 눈물이 어머니의 가슴에 닿아 세월에 굳어진 어머니의 마음을 녹여낼 수만 있다면……

이른 아침, 나는 밖으로 나와 빨갛게 핀 단풍잎들을 보았다. 나는 더 이상 단풍잎들이 서럽게 느껴지지 않았다. 선명하게 핀 단풍잎들을 따 엄마에게 선물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엄마의 보살핌으로 몇몇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하늘에 따스한 햇살이 길을 비춰 주고 있었다.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백신고등학교 1학년 17반

안진영

아이들로 꽉 차 있고 항상 시끌벅적 했던 서울에서의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엄마의 일 때문에 행주초등학교로 전학을 오게 되었다. 한 학년에 반 한 개밖에 없던 학교. 아이들이 많아 봤자 20명. 적응하기 힘들었던 것은 사실이다. 물론 충분히 많이 친해질 수 있었던 학생 수였지만 그 당시 그 아이들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서로로서 많이 친해 있었다. 그땐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꽤나 어색했던 걸로 기억한다. 여자애들은 10명 정도 있었는데 그때는 그 아이들이 무슨 심보였는지는 모르지만 나를 제외하고 이것저것 속닥거리는 일이 많았다. 집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서 그때는 상당히 힘들어했다. 그리고 나는 적응 못하는 사실들을 그 어린 나이에 나 혼자 나름대로 철저히 숨기고 있었다.

“학교생활 어떠니?” 선생님께서 항상 나에게 질문하셨던 것이다. 그때마다 내 대답은 항상 “괜찮아요.” 하고 미소 한번

짓고 웃어 넘길 뿐이었다. 그 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나도 함께 아이들과 뭉쳐질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도 웃으며 뛰어 돌아다닐 만큼의 친근함은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았고, 그야말로 ‘밥 같이 먹는’ ‘옆에 같이 앉는’ 정도의 친구라고 밖에 볼 수 없었다.

그리고 난 그때 알았다. 역시 선생님은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상당히 애들하고 생활하는 데에 대해 어색해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 채신 것이다. 전학 오면서 선생님께 인사드릴 때 내가 소극적이고 부끄럼을 많이 탄다는 것을 이미 눈치 채고 계셨고, 태어날 때부터 친구인 그 아이들과 속 터놓고 얘기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다 짐작하고 계셨던 것이다.

그 뒤 선생님께서는 모둠형식으로 조를 짜서 아이들과 하나 하나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과제물 같은 거라든지 만들기라든지 하나하나 같이 해나가면서 아이들과 정말 많이 친해졌다. 정말 어색함이라는 말은 이미 머릿속을 떠나간지 오래고, ‘웃자’라는 말이 표정으로 드러날 정도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친해진 아이들 가운데서 싸움이 일어났다. 정말 싸움이란 건 생각지도 못해서 그 때 꽤나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었다. 얼마 없는 학생 수였기 때문에 정말 한번 싸움이 나면 서로 어색해지기 십상인 정말 나름대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결국 서로 오해에 오해를 쌓아서 거의 반에 반이 넘게 어색해지고 괜히 인상 쓰고 하면서 가을에 들어섰다. 나는 그나마 친해진 애들끼리도 서로 싸우니까 정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정말 별거 아닌 일인데 그때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꼭 미래가 달린 것처럼!

그러기를 약 2주정도, 선생님께서는 무슨 수를 써도 평소와 같은 사이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아이들에게 마법을 쓰셨다. 아이들이 변한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 준 선생님만의 비법은 '얼굴 지푸리지 말아요'. 이 전에 내가 학교로 전학와서 어색해 하고 소극적으로 애들을 대하고 부끄러워 할 때를 알아채신 후 부터 모둠 활동을 할때 악보를 나눠주셔서 같이 불렀던 노래다. 물론 그 노래를 같이 불러서인지는 몰라도 이 노래를 같이 부르는 것이 아이들과 친해지는 것에 대해 한 몫했다고 생각한다. 아이들끼리 서로 싸운 뒤에도 선생님께서 아시고는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를 연속으로 부르게 하셨다. 하루에 한번씩은 꼭 불렀던 것 같다. 그 뒤 며칠이 지나고 애들끼리 다시 잘 놀고 다시 편하게 지내기 시작했다.

전학와서 그나마 친해진 아이들끼리 싸워서 어색했던 그 상황을 다시 편하게 돌려준 그 노래에 나는 그때 어찌나 감격

스럽던지!! 그 때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얼굴 찌푸리지 말자. 인상써서 해결될 건 없잖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그 말 때문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아이들을 어색하게 대할 때도 처음과 다르게, 나도 모르게 얼굴이 굳어 버리지 않고 웃으면서 말했고, 아이들끼리도 서로 오해를 풀어나가고, 아무리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불편한 게 있어도 쉽게 기분따라 얼굴 찌푸리지 않고 말을 침착하게 해나가니까 정말 쫘쫘 밀봉되어있던 것이 짝 뜯겨져 나가는 것 처럼 그야말로 서로 시원해진 반이 되었다. 그 때 이후로는 인상 쓸 일이 생겨도 최대한 웃으려고 노력한다. 기분이 안 좋으면 계속 머릿속으로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이 노래를 계속 반복재생 한다. 그러면 기분이 한결 나아지고 사람을 더 친근하게 대할 수 있게 된다. 난 나에게 이런 변화를 주신 선생님을 잊지 못한다. 정말 ‘삶의 지혜’를 알려주신 분이다. 내가 3학년이 되었을 때 박사학위 준비로 그 노래의 악보를 버리지 말라고 말하신 채 떠나버리셨다. 2학년 때 이후로 한번도 뵈지 못한 선생님이지만,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신 노래는 항상 남아 있다. 그리고 항상 나를 기분 좋게 만든다. 절대 잊혀지지 않는, 절대 외롭게 만들지 않는, 절대 기분 나쁘게 만들지 않는 그 선생님의, 그 노래가.

학·생문예

2007년 제17호

발 행 인 : 오수길

편 집 인 : 강선구, 정영호

디자인/인쇄 : 미래에드컴(02)322-1883

발 행 처 : 고양문화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00

TEL : (031) 963 - 0600

발 행 일 : 2007년 12월 30일



고양문화원

고양문화원은 향토문화 보존과 창달을 위해
2008년도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